

중등

수능 독해

정답과 해설

1. 시

01 언 후일 _ 김소월

본문 014~015쪽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서정적, 애상적, 민요적

주제 떠난 입을 잊지 못하는 애뜻함과 입에 대한 그리움

- 특징**
-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지님
 -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 미래 상황을 가정하고 대답하는 방식의 문장 구조 ‘~면 ~ 잊었노라.’가 반복됨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 05 ○

06 잊었노라 07 면, 가정

심력 문제

08 ④ 09 ③ 10 ① 11 ⑤

01 이 작품의 화자는 ‘나’(그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로 작품 속에 직접 드러나 있다.

02 이 작품은 민요와 같은 3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다.

03 이 작품의 화자는 이별한 당신을 잊지 못하고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으며, 반어적 표현을 통해 당신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04 이 작품의 화자는 먼 훗날 당신을 만날 상황을 가정하여,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잊었노라.’라고 하였을 뿐, 당신과 다시 만났던 순간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05 이 작품에서는 ‘~면 ~ 잊었노라.’, 또는 ‘~ 잊었노라.’의 반어적 진술을 반복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06 이 작품에서는 반어적 표현인 ‘잊었노라.’를 반복하여 당신을 잊지 못하는 화자의 애뜻하고 간절한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07 1~3연에서는 연결 어미 ‘-면’을 사용하여 먼 훗날 당신과 만났을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08 **화자·대상**
이 작품의 화자는 당신을 잊지 못하는 애절한 마음을 솔직히 드러내지 않고, 그 속마음과는 반대로 ‘잊었노라.’라며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2 정답과 해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의 화자는 사랑하는 당신과 이별한 처지이다.

②, ③ 화자는 미래의 어느 날 당신과 만날 것을 가정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을 뿐, 실제로 화자와 당신이 만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신의 행동은 가정일 뿐이며, 당신의 속마음도 알 수 없다.

⑤ 화자는 먼 훗날 당신을 만날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통해 결국 미래의 그날까지도 여전히 당신을 잊지 못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당신을 원망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알아두기 시적 상황 및 화자의 태도

시적 상황	사랑하는 당신과 이별함
화자의 태도	먼 훗날 당신과 만났을 때를 가정하고, 그때에 당신을 ‘잊었노라.’라고 말할 것임을 밝힘 → 당신과 이별한 상황에서도 떠난 당신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함

09 표현

이 작품은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지닌다. 이 작품의 각 행은 ‘면 훗날 ∨ 당신이 ∨ 찾으시면’과 같이 세 번 끊어 읽을 수 있는데, 이는 민요 「아리랑」을 ‘아리랑 ∨ 아리랑 ∨ 아라리요.’와 같이 3음보로 나누어 낭송(노래)하는 것과 같다.

오답 풀이 ①, ④ ‘잊었노라.’라는 반어적 표현을 반복하며 화자의 그리움을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면 ~ 잊었노라.’의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

⑤ 화자는 미래의 먼 훗날 당신과 만날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알아두기 운율 형성 요소

같은 음보의 반복	면 훗날 ∨ 당신이 ∨ 찾으시면 그때에 ∨ 내 말이 ∨ ‘잊었노라.’ →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지님
같은 시어 및 문장 구조의 반복	• 시어 ‘잊었노라.’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 • 1~3연에서 ‘~면 ~ 잊었노라.’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

10 시어(구)

이 작품에서 ‘면 훗날’은 당신을 그리워하는 화자가 당신과 만날 상황을 가정한 미래의 어느 날일 뿐, 이미 떠나 버린 당신과 화자가 미래에 재회를 약속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② 이 작품에서 ‘잊었노라.’는 2연에서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3연에서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4연에서 ‘면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와 같이 시상 전개에 따라 당신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점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③ 화자는 자신이 당신에게 ‘잊었노라.’라고 말을 했을 때, 당신이 속으로 나무랄 것이라는 반응을 가정하고 있다.

④ 줄곧 당신을 잊지 않고 그리워했던 화자의 본심이 드러난다.

⑤ 결코 잊을 수 없는 당신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반어적으로 표현하여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11 화자·대상 + 표현 + 주제

이 작품의 화자는 현재 당신과 이별한 처지로, 여전히 당신을 그리워하며 이별한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까닭에 화자는 미래의 '먼 훗날'이라는 시간을 가정하고, 그런 미래에도 잊을 수 없는 당신에 대한 마음을 반어적 표현인 '잊었노라'와 결합하며 당신과의 이별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과 당신에 대한 화자의 애절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그때'는 미래의 '먼 훗날'을 의미한다.

②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과 같이 화자는 현재가 아닌 미래에 당신을 만날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③ 화자가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라고 말한 것은 먼 훗날까지도 당신을 잊지 못할 것임을 표현한 것이다.

④ 화자는 미래의 먼 훗날 당신과 만날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지, 화자와 당신이 서로 만날 것을 약속한 것은 아니다. 당신은 화자를 떠난 상황이다.

+ 독해 체크

본문 016쪽

- ① 당신 ② 그리움 ③ 이별 ④ 잊었노라 ⑤ 가정
⑥ 강조 ⑦ 반어 ⑧ 민요 ⑨ 먼

+ 어휘 체크

본문 017쪽

- 1 (1) ⊖ (2) ⊕ (3) ⊖
2 <가로> ① 반어법 ② 운율
<세로> ① 반복법 ③ 율격

02

나룻배와 행인 _한용운

본문 018~019쪽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상징적, 명상적

주제 인내와 희생을 통한 참된 사랑의 실천

- 특징**
- 비유적 표현을 통해 '나'와 당신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 경어체와 부드러운 어조를 통해 당신에 대한 화자의 헌신적인 태도를 드러냄
 - 수미상관 방식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운율을 살리며 주제를 강조함

확인 문제

- 01 ○ 02 × 03 ○ 04 × 05 ○
06 행인, 나룻배 07 바람

심력 문제

- 08 ④ 09 ② 10 ② 11 ⑤

01 이 작품의 화자는 경어체 및 경어체의 종결 어미 '-니다'를 사용한 부드러운 어조를 통해, 당신에 대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2 2연의 '당신은 훗날로 나를 잊겠습니다.'에서 당신이 화자인 '나'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알아두기 '나'와 당신의 관계와 태도

'나'(나룻배)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넌
	희생 ↑ 무심 헌신 ↓ 무정
당신(행인)	'나'를 잊발고 돌아보지 않음

03 이 작품의 1연과 4연은 동일하다. 이와 같이 시의 처음과 끝에 같거나 매우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여 배치하는 표현 방법을 '수미상관'이라고 한다.

04 3연의 3행에서 '나'는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무심하고 무정한 당신이지만, '나'는 당신이 반드시 돌아올 것임을 믿고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5 이 작품에서 화자인 '나'는 물만 건너면 무심하게 가 버리는 당신에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당신이 돌아올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다.

06 이 작품에서는 화자인 '나'를 '나룻배'에 비유하고, 당신을 '행인'에 비유하여 '나'와 당신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7 이 작품에서 '급한 여울', '바람', '눈비'는 '나'가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거나 당신을 기다릴 때에 겪는 어려움, 시련이나 고난, 역경 등을 의미한다.

08 표현

이 작품의 2연에서는 무심하고 무정한 당신에 대한 '나'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반어적 표현은 쓰이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경어체의 종결 어미 '-니다'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경어체를 사용한 고백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헌신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⑤ 수미상관의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는 1, 4연에서는 은유법과 대구법을 사용해 '나'와 당신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09 화자·대상

이 작품에서 '나'는 자신을 '나룻배'에, 당신을 '행인'에 비유하여 '당신'에 대한 희생적·헌신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며, 당신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지니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당신의 무정함과 무심함을 알고 있지만, 원망이나 서러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화자 = '나' = 나룻배

↓

화자의 특성 및 태도

- 부드러운 어조를 지님
- 사물인 '나룻배'에 자신을 비유함
- 당신에 대해 절대적인 믿음을 지님
- 당신에 대해 헌신적·희생적인 태도를 보임

10 시어(구) + 어휘

㉠에는 당신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화자의 절대적인 믿음이 드러난다. 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한자 성어는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뜻의 '거자필반(去者必返)'이다.

- 오답 풀이**
- ①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 ③ 재앙과 근심, 걱정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말이다.
 - ④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 ⑤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이르는 말이다.

11 화자·대상

3연으로 보아, 화자인 '나'는 물만 건너면 돌아보지도 않고 가 버리는 당신이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에서 '나'가 외롭고 불안한 마음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이 작품에서 '나'로 직접 드러나 있는 화자는 '나룻배'로 비유되어 희생적·헌신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시인의 분신이라고도 할 수 있다.
 - ② 1연에서는 '나는 나룻배 / 당신은 행인'이라며 '나'와 당신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 ③ 2연에서 당신은 '나'를 흠발로 짓밟는 등 '나'에게 부정한 태도를 보이지만, '나'는 깊은 열으나 급한 여울을 건너가는 등 당신을 위해 어떤 어려운 상황도 이겨 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④ 3연에서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면서도 당신을 기다리는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를 통해 당신이 '나'에게 절대적이며 소중한 대상을 알 수 있다.

+ 독해 체크

본문 020쪽

- ① 확신 ② 나룻배 ③ 흠발 ④ 사랑 ⑤ 눈비
⑥ 은유 ⑦ 수미상관

+ 어휘 체크

본문 021쪽

- 1 (1) 여울 (2) 행인 (3) 나룻배
2 (1) ㉠ (2) ㉡ (3) ㉢

04 정답과 해설

03

모란이 피기까지는 _김영랑

갈래 자유시, 서정시, 순수시

성격 유미적, 탐미적, 낭만적, 상징적

주제 • 모란이 피고 지는 것에 대한 감흥
• 모란에 대한 기다림(소망에 대한 바람과 기다림)

특징 •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함
• 역설과 도치를 통해 아름다움에 대한 도취와 그것의 덧없음에 대한 슬픔을 보여 줌
• 세련된 시어와 부드러운 어조 등을 통해 섬세하고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을 구현함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 05 수미상관
06 삼백예순 날 07 도치법

실력 문제

08 ⑤ 09 ① 10 ① 11 ③

01 이 작품은 연 구분이 없는 1연 12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02 울림소리란 발음할 때 목청이 떨려 울리는 소리를 말한다. 국어의 모든 모음이 이에 속하며, 자음으로는 'ㄴ', 'ㄹ', 'ㄹ', 'ㅇ'이 있다. 이와 같은 울림소리를 연달아 사용하면 물이 흐르는 듯한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다.

03 이 작품의 화자에게 '모란'은 화자가 기다리는 순수한 미적 대상이자 삶의 보람이며, 정서적 일체감을 느끼는 대상이다.

04 이 작품은 모란이 피고 지는 것에 대한 화자의 감흥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에게 있어서 모란이 피고 지는 것은 삶의 모든 보람(소망)이 이루어졌다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

05 이 작품의 1~2행과 11~12행은 수미상관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수미상관이란 시의 처음과 끝에 같거나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여 배치하는 기법을 말한다.

06 '삼백예순 날'은 화자가 모란을 기다리는 날들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으로, 화자의 슬픔과 정감의 깊이를 드러낸다.

07 이 작품의 마지막 행에는 '나는 아직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라는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로 표현한 도치법이 사용되었다.

08 화자·대상 + 표현 + 주제

이 작품은 화자의 삶의 보람이자 기쁨인 '모란'에 대한 기다림의 정서와, '모란'이 피고 지는 것에 대한 감흥을 표현한 시이

다. '모란'의 피고 짐을 삶의 보람(소망)과 연관 지어 확장 해석할 수는 있지만, 당시 민중들의 울분과 연결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시의 음악성과 세련된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화자는 '모란'으로 상징되는 아름다움을 위해 삼백예순 날의 기다림과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유미적, 탐미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② 이 작품은 모란이 피고 지는 과정을 통해 소망하는 것에 대한 기다림과 바람을 노래하고 있다.

③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네다'에서 과장법을, '나는 아직 기둥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에서 도치법을 사용해 모란에 대한 화자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④ 잘 다듬어진 시어를 사용하고 '뚝뚝'으로 모란이 낙화하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모란이 피고 지는 것에 대한 감흥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9 표현

이 작품은 수미상관의 구조나 울림소리의 사용 등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나, 시행 배열의 간결함과 규칙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② 수미상관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③ 'ㄴ, ㄹ, ㅁ, ㅇ'과 같은 울림소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④ 시어 '모란', '-ㄹ 테요'의 반복을 통해 부드러운 어감을 형성하고 있다.

⑤ 짧은 시행과 긴 시행의 교차로 두 시행씩 한 단락을 이루게 하여 호흡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10 표현

이 작품에서 '봄'은 모란이 피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계절이지만, 모란이 지는 슬픔을 감내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은 화자가 느끼는 이와 같은 모순된 감정을 함축한 역설적 표현이다. ①의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에서도 너무나 고와서 오히려 서럽게 느껴진다는 의미로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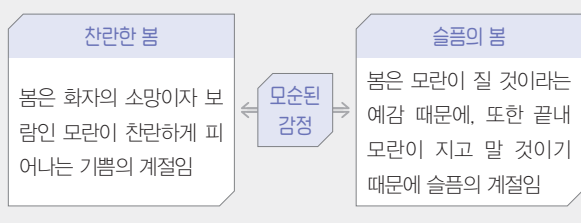
오답 풀이 ②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와 같이 반어법으로 당신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표현하였다.

③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와 같이 반어법으로 이별의 슬픔을 표현하였다.

④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와 같이 과장법으로 '그날(조국 광복)'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였다.

⑤ '햇발같이', '샘물같이'와 같이 직유법으로 맑고 순수한 세계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알아두기 '찬란한 슬픔의 봄'에 쓰인 역설적 표현



11 화자·대상

이 작품에서 '모란'은 화자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대상이자 삶의 보람(소망)인 존재이다. 따라서 화자는 모란이 지는 것을 삶의 모든 보람과 소망이 무너지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에 들어갈 화자의 정서는 '슬픔, 상실감, 서러움' 등의 부정적인 정서가 적절하다. '기쁨'은 모란이 피어났을 때의 정서이다.

+ 독해 체크

본문 024쪽

- ① 모란 ② 상실감 ③ 기다림 ④ 봄 ⑤ 보람 ⑥ 기쁨
⑦ 슬픔 ⑧ 수미상관

+ 어휘 체크

본문 025쪽

- 1 (1) 비로소 (2) 감흥 (3) 자취
2 (1) ㉠ (2) ㉡ (3) ㉢

실전 04

청포도 _이육사

본문 026~027쪽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상징적, 감각적

주제 • 조국 광복에 대한 염원

•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

특징 • 푸른색과 흰색의 선명한 색채 대비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함

•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드러냄

• 각 연을 2행으로 배열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음성 상징어를 감각적으로 사용함

확인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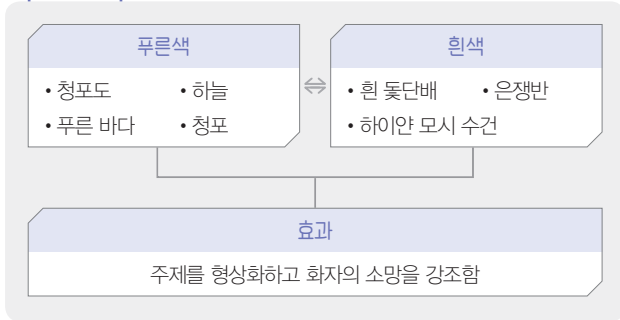
- 01 ○ 02 × 03 × 04 ○ 05 의태어
06 광복 07 하이얀

심력 문제

- 08 ④ 09 ①, ④ 10 ③

01 이 작품은 화자의 희망이나 동경을 상징하는 시어인 '청포도', '하늘', '푸른 바다', '청포'의 푸른색과, 순수함과 정성을 상징하는 시어인 '흰 뚝단배', '은쟁반', '하이얀 모시 수건'의 흰색의 선명한 색채 대비를 통해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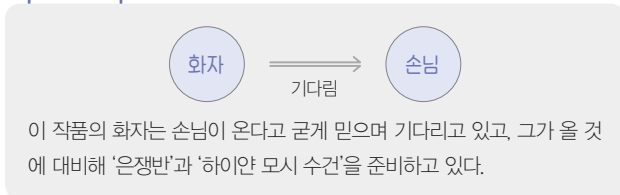
알아두기 시어의 색채 대비



02 3연에서 '푸른 바다'는 화자의 희망이나 동경과 연결된 시어로, 화자가 기다리는 희망과 소망이 담긴 세계로 이해할 수 있다.

03 6연에서 '은쟁반'과 '하이얀 모시 수건'은 손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화자의 정성을 상징하는 시어이다.

알아두기 화자의 태도



04 이 작품에서 '내가 바라는 손님'은 화자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으며 기다리는 대상으로, 시련과 고난이 끝나고 찾아올 '평화로운 세계' 또는 '조국의 광복'을 의미한다.

05 '주저리주저리'와 '알알이'는 음성 상징어에 해당한다. 음성 상징어란 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필연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단어로, '명명'과 같은 의성어와 '영금영금'과 같은 의태어가 있다. 이 작품에 쓰인 '주저리주저리'와 '알알이'는 그중 의태어에 해당한다.

06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 말(1939년)에 발표되었다. 이와 같은 창작 배경과 독립지사이기도 했던 작가의 삶을 고려할 때, 화자가 기다리는 손님은 '조국의 광복'으로 해석할 수 있다.

07 시어 '하이얀'은 '하얀'의 시적 허용에 해당한다.

08 화자·대상 + 표현

이 작품의 화자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계, 또는 조국의 광복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손님'이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정성을 다해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④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주저리주저리', '알알이'와 같은 의태어가 쓰였다.
 - ② 이 작품에는 '청포도', '손님'과 같은 상징적 시어들이 쓰였다.
 - ③ 푸른색과 흰색의 선명한 색채 대비를 통해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이 작품은 각 연을 2행씩 배열하는 구조를 통해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알아두기 표현상 특징

색채 대비	푸른색과 흰색의 선명한 색채 대비가 나타남
상징	풍요롭고 평화로운 고향의 정서를 '청포도'로, 조국의 광복을 '손님'으로 상징하여 표현함
음성 상징어	'주저리주저리', '알알이'와 같은 의태어를 통해 풍요로운 삶을 형상화함
의인법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에서 풍요로운 삶의 모습을 의인화하여 표현함
시적 허용	'하이얀 모시 수건'에서 흰색의 색채 감각을 높이기 위해 시적 허용을 사용함

09 시어(구)

이 작품에서 '내가 바라는 손님'은 화자가 정성을 다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대상으로,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올 손님이다. 이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상징하며, 창작 배경이나 작가의 삶을 고려할 경우 조국의 광복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다.

10 표현

〈보기〉의 밑그림에서 ㉔는 '내가 바라는 손님', 즉 '청포'를 입고 온다는 손님의 모습이다. 이 작품에서 '청포'는 '청포도, 하늘, 푸른 바다'와 함께 '푸른색'의 이미지를 지닌 소재로, 풍요롭고 평화로운 고향 마을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나아가 조국 광복에 대한 희망을 상징한다. 따라서 청포를 입고 찾아오는 '손님'은 밝고 희망적인 느낌으로 표현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푸른 바다'는 푸른색 계열의 시어이며 '희망과 소망의 세계'를 상징하므로, 밝고 평화로운 느낌이 들도록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② '흰 돛단배'는 흰색 계열의 시어이며 '희망', '꿈'을 상징하므로, 푸른색 계열의 시어인 '하늘', '바다'와의 색채 대비를 통해 선명하고 희망적인 느낌이 들도록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청포도'는 푸른색 계열의 시어이며 화자의 '희망'이나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계'를 상징하므로, 싱그럽고 풍성한 느낌이 들도록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⑤ '은쟁반'은 흰색 계열의 시어이며 화자의 '정성'을 상징하므로, 깨끗하고 정성 어린 느낌이 들도록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 독해 체크

본문 028쪽

- ① 고향 ② 소망 ③ 손님 ④ 조국 ⑤ 확산 ⑥ 풍요
⑦ 정성 ⑧ 청포도 ⑨ 은쟁반 ⑩ 일제 강점기

+ 어휘 체크

본문 029쪽

- 1 (1) 함뻑 (2) 알알이 (3) 주저리주저리
2 <가로> ① 청포 ② 모시
<세로> ① 청포도 ③ 시절

갈래 자유시, 서정시**성격** 고백적, 상징적, 의지적**주제**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한 노력

특징

- 일상적인 표현과 고백적 어조를 통해 주제를 드러냄
-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화자의 내면세계를 형상화함
- 경어체의 종결 어미 ‘-ㅂ니다’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고백적 태도를 드러냄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 05 길
06 돌담, 쇠문 07 하늘

실력 문제

08 ④ 09 ⑤ 10 ④ 11 ②

01 이 작품에 쓰인 시어는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적인 표현이다. 화자는 이와 같은 일상적인 표현과 경어체의 종결 어미 ‘-ㅂ니다’를 사용한 고백적 어조를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를 깊이 성찰하고 있다.

02 이 작품에서는 높임 표현인 경어체의 종결 어미 ‘-ㅂ니다’를 활용한 서술어를 반복하여 고백적이고 간절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3 이 작품의 1연에서 화자는 ‘무엇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막연하게 무엇인가 상실했다는 것은 깨달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화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머니를 더듬으며 길로 나서고 있다.

04 6연에서 화자는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 즉 자신이 시련과 고통의 과정을 지속하는 이유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담’은 화자의 현실의 자아와 참된 자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담 저쪽에 남아 있는 자아는 화자가 추구하는 참된 자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05 1연에서 화자는 무엇인가 상실했음을 깨닫고, 이를 탐색하고 찾기 위해 ‘길’로 들어선다. 따라서 ‘길’은 화자가 자아를 탐색하기 위해 선택한 공간이자 과정으로 볼 수 있다.

06 이 작품에서 ‘돌담’과 ‘쇠문’은 화자와 참된 자아의 만남을 가로막는 대상으로, 참된 자아가 있는 화자의 내면과 단절을 가져오는 장애물이다.

07 ‘하늘’은 자아 성찰의 매개체로서, 화자의 성찰과 반성을 이끌어 내고 새로운 의지를 갖도록 화자를 이끌어 주는 대상이다.

08 시어(구) + 주제

이 작품에서 ‘길’은 화자의 자기 탐색과 성찰의 공간이자 과정으로서 설정된 장소이다. 화자는 이와 같은 ‘길’을 걷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잃어버린 참된 자아(본질적 자아)와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되찾고자 한다. ④와 같이 화자의 내면세계와의 단절을 가져오는 대상은 ‘돌담’, ‘쇠문’이다.

오답 풀이 ① ‘길’은 돌담을 끼고 끝없이 연달아 이어져 있다.

②, ③ ‘길’은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 화자가 선택한 공간이고, 화자는 길을 걸으면서 자신의 내면세계를 탐색하여 잃어버린 참된 자아를 찾는 과정을 겪고 있으므로, ‘길’은 참된 자아,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한 공간이자 과정이다.

⑤ ‘풀 한 포기 없는’ 시련과 고난의 ‘길’은 곧 화자가 살아가고 있는 어둡고 암울한 현실 그 자체로 볼 수도 있다.

알아두기 | ‘길’을 걷는 과정의 상징적 의미**상실을 인식함**

참된 자아를 잃어버린 상황

길을 나섬

담 저쪽의 참된 자아를 만나기 위해 길을 걸음

‘길’의 상징적 의미

자아를 탐색하는 장소

화자가 잃어버린 것은 담 저쪽에 있는 참된 자아로, ‘길’은 현재의 부끄러운 자아를 극복하고 참된 자아를 찾는 탐색의 장소이다. 화자는 ‘길’을 걷는 여정을 통해 참된 자아를 회복함으로써 암담한 현실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09 시어(구)

5연의 ‘하늘’은 화자에게 자아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매개체임과 동시에, 새로운 의지를 갖도록 화자를 이끌어 주는 대상이다.

오답 풀이 ②, ③ ‘돌담’과 ‘쇠문’은 현실의 화자와 참된 자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④ ‘그림자’는 화자가 길 위에서 느끼는 절망감으로 볼 수 있다.

알아두기 | 시어 ‘하늘’의 역할**시어 ‘하늘’**

참된 자아를 회복하지 못한 화자를 부끄럽게 만들었지만,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의지를 갖게 만드는 매개체임

↑ 올려다봄**화자의 상황**

- 1연: 참된 자아를 잃어버림
- 2~4연: 참된 자아를 찾고자 길을 나섰으나, 장애물에 가로막혀 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는 시간이 지속됨
- 5연: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느끼며 눈물짓다가 하늘을 올려다봄

10 표현

이 작품의 화자는 내면세계에 대한 탐색과 이를 통한 자기 성찰의 내용을 고백적이고 진솔한 어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는 참된 자아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긴 하지만, 이것은 부끄러움에 대한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화자가 단호하고 자신감 있는 어조로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강조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길', '돌담', '하늘' 등 소박하고 일상적인 시어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② 화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부끄럽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차분하고 담담한 어조로 성찰한 후 참된 자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차분한 어조로 삶에 대한 자기 성찰적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돌담'이나 '쇠문', '그림자'와 같은 상징적 시어를 통해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형상화하고 있다.

⑤ 경어체 종결 어미 '-버니다'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화자의 고백적이고 간절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알아두기 화자의 성찰적 자세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 참된 자아를 회복하지 못한 데서 오는 부끄러움 • 자아 성찰적 자세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있는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참된 자아를 회복하고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

이 작품의 화자는 '하늘'을 보고 현실에 굴복하고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데, 이러한 부끄러움은 화자에게 자아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 이를 통해 화자는 일제 강점기의 억압적 현실 속에서 지식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성찰하며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11 화자·대상 + 시어(구)

〈보기〉를 통해 당시 일제의 고등계 형사가 작가를 사상범으로 단정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이 작품의 3연에서 길 위에 드리운 '긴 그림자'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즉, '긴 그림자'는 화자를 둘러싼 절망적인 현실 상황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은 화자가 자신의 내면세계를 탐색하는 부분이다.

③ ㉢은 참된 자아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 오랜 시간 이어짐을 표현한 부분이다.

④ ㉣은 화자의 자아 성찰로, 참된 자아를 회복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부분이다.

⑤ ㉤은 참된 자아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 부분이다.

+ 독해 체크

본문 032쪽

- ① 자아 ② 의지 ③ 길 ④ 성찰 ⑤ 담 ⑥ 지식인
⑦ 쇠문 ⑧ 이상 ⑨ 매개체 ⑩ 과정

+ 어휘 체크

본문 033쪽

- 1 (1) 포기 (2) 매개체 (3) 자아 성찰
2 (1) ㉠ (2) ㉢ (3) ㉤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상징적, 독백적, 의지적

주제 가장으로서의 고달픔과 가족에 대한 애정

특징

- 일상적이고 평범한 시어로 가장의 책임감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노래함
- 가난한 시인이자 가장으로서 살아가는 고된 현실을 상징적 시어로 표현함
-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자식에 대한 사랑을 신발의 문수(치수)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함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 05 문수
06 책임감 07 가장

실력 문제

08 ⑤ 09 ④ 10 ① 11 ⑤

01 아홉 명이나 되는 자식이 있다는 것, 알전등을 사용한 것, 신발 치수를 문수로 나타낸 것 등에서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1960년대임을 알 수 있다.

02 1연 4행에 제시되어 있는 '아니 어느 시인의 가정에는'을 통해 화자의 직업이 시인임을 알 수 있으며, 4연 2행에 제시되어 있는 '아홉 마리의 강아지야.'를 통해 화자의 자식이 아홉 명임을 알 수 있다.

03 '알전등'은 갓 따위의 가리개가 없는 전구, 또는 전선 끝에 달려 있는 맨전구를 뜻하는 것으로, 1960년대의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면서 시간적 배경이 저녁 무렵임을 알려 준다. 이 작품에서 축약적 심상을 통해 가정의 따뜻함을 표현한 시어는 '아랫목'이다.

04 '강아지 같은 것들야.'에서 '강아지'는 아홉 명의 자식 모두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막내둥이만을 한정하여 표현한 것은 아니다.

05 '알전등, 문수(십구 문 반, 육 문 삼), 아홉 켤레의 신발, 아홉 마리의 강아지(자식을 많이 낳지 않는 요즘 세태와 차이가 있음)' 등을 통해 이 작품이 1960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6 '십구 문 반의 신발'은 아주 큰 치수의 신발로, 화자가 가장으로서 느끼는 무거운 책임감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시구이다.

07 '눈과 얼음의 길', '얼음과 눈으로 벽을 짜 올린', '연민한 삶의 길',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에서 화자가 가장으로서 고달프고 힘든 삶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8 표현

이 작품은 현실의 고달픔을 차가운 ‘얼음’과 ‘눈’에, 가정의 따뜻함을 ‘아랫목’에 비유하여 축약적으로 대비시키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에서는 ‘신발’, ‘알전등’, ‘아랫목’, ‘강아지’ 등과 같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② 2연 1행의 ‘내 신발은’에서 화자(나)가 시의 표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눈과 얼음의 길’, ‘얼음과 눈으로 벽을 짜 올린’, ‘연민한 삶의 길’,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에서 시인인 화자의 가난하고 고달픈 삶을 비유적,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아니 현관에는 아니 들칸에는 / 아니 어느 시인의 가정에는’, ‘귀염둥아 귀염둥아 / 우리 막내둥아’, ‘아홉 마리의 강아지야. / 강아지 같은 것들아’, ‘내가 왔다. / 아버지가 왔다.’ 등과 같이 동일한 시어와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9 주제

이 작품은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는 가장으로서의 고달픔과 가족(자식들)에 대한 지극한 애정을 노래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에는 많은 자식을 둔 화자의 모습과, 자식에 대한 화자의 애정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화자가 많은 자식을 둔 것을 뿌듯해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이 작품에는 가장으로서 느끼는 화자의 삶의 무게와 고달픔이 제시되어 있을 뿐, 자식이 아버지의 고달픈 삶을 그리며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이 작품은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된 한 가정의 비애를 노래한 것이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고달픈 삶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⑤ 이 작품에 가족을 위해 가정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의 모습이나 이러한 사회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10 시어(구) + 표현

‘십구 문 반’은 아주 큰 치수의 신발 사이즈로,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으로서 느끼는 무거운 책임감을 비유하여 강조한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② ‘눈과 얼음’은 차가운 속성을 지닌 것으로, ‘눈과 얼음의 길’은 가장으로서의 고단한 삶, 화자가 겪는 고달프고 힘겨운 현실을 의미한다.

③ ‘미소하는 / 내 얼굴을 보아라.’는 현실의 삶은 힘들지만 자식들 앞에서는 웃음을 보이려는 가정의 마음이 담긴 시구로, 자식들에 대한 화자의 애정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강아지’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이자, 누군가의 보살핌과 보호가 필요한 존재이다. 따라서 ‘아홉 마리의 강아지’는 화자의 아홉 명의 자식들을 은유법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

⑤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에는 넉넉하게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는, 가장으로서 부족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부끄러움과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자책감이 담겨 있다.

11 화자·대상

이 작품의 화자는 힘든 현실 속에서도 자식들을 보살펴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4연의 ‘미소하는 / 내 얼굴을 보아라.’와 같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 내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⑤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알아두기 화자의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는 삶의 모습

화자의 상황

- 시인이자 아홉 명의 자식을 둔 한 가정의 아버지
- 집 밖에서 힘들게 일하며 고달픈 삶에 연민을 느낌
- 자식들을 사랑하고 특히 막내를 귀여워함
- 자식들(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느낌
- 넉넉하게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가족에게 미안해함



삶의 모습

가난한 시대의 고달픈 현실 속에서 가족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지닌 아버지들의 삶의 모습

독해 체크

본문 036쪽

- ① 아홉 ② 책임감 ③ 알전등 ④ 문수 ⑤ 강아지
⑥ 가장 ⑦ 시인 ⑧ 막내 ⑨ 대조 ⑩ 아랫목

어휘 체크

본문 037쪽

- 1 (1) 지상 (2) 아랫목 (3) 문수 (4) 굴욕
2 (1) ㉠ (2) ㉡ (3) ㉢

본문 038~039쪽

07

엄마 걱정 기형도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회상적, 애상적, 고백적

주제 장사하러 시장에 간 엄마를 혼자 기다리던 외롭고 슬픈 유년의 기억

특징 • 외롭고 슬픈 어린 시절의 기억을 섬세하고 솔직하게 고백함

•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과거 → 현재’로 시간의 변화를 보임

• 시구의 반복, 비유적 표현, 감각적 심상 등을 통해 화자의 처지와 심정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확인 문제

- 01 × 02 ○ 03 × 04 ○ 05 찬밥
06 과거, 현재 07 청각적

심력 문제

- 08 ④ 09 ① 10 ④ 11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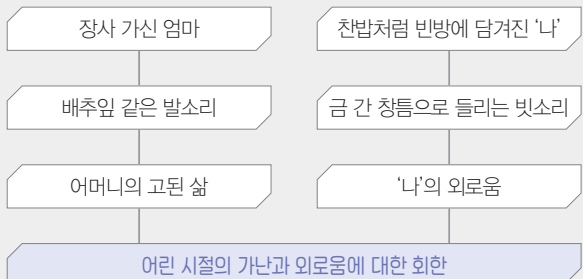
- 01 이 작품은 과거 회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어른이 된 현재의 화자는 유년 시절에, 시장에 장사하러 간 엄마를 늦도록 기다리던 경험과 그로 인해 느꼈던 정서를 이야기하고 있다.
- 02 장사하러 시장에 간 엄마를 혼자 기다리던 어린 화자의 외롭고 쓸쓸한 정서와 슬프고 허전한 느낌이 이 작품의 주된 정서이다.
- 03 이 작품에서 '배추잎 같은 밭소리'는 삶에 지친 고단한 엄마의 밭소리(엄마의 모습)를 비유한 표현이다.
- 04 이 작품에서는 '안 오시네', '엄마 안 오시네', '안 들리네' 등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시적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 05 시어 '찬밥'은 늦게까지 혼자 엄마를 기다리던 화자의 처지와 모습을 비유한 표현이다.
- 06 이 작품은 어른이 된 현재의 화자가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는 형식을 취한다. 1연은 과거의 시점에서 과거의 모습을 형상화한 부분이고, 2연은 어른이 된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떠올리고 있는 부분이다.
- 07 1연의 8행인 '금 간 창틈으로 고요히 밭소리'에서 '금 간 창틈'은 가난한 살림살이를 드러내는 시각적 심상이고, 고요한 '밭소리'는 화자의 외로움을 고조시키는 청각적 심상이다.
- 08 **화자·대상 + 시어(구) + 표현**

1연에서 '나'가 천천히 숙제를 한 이유는 늦도록 오지 않는 엄마를 혼자 기다리며 느끼는 무서움과 외로움, 혼자 지내야 하는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1연의 '열무 삼십 단을 이고 / 시장에 간 우리 엄마 / 안 오시네'와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을 통해 '나'가 장사하러 시장에 간 엄마를 혼자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직유법과 청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삶에 지친 고단한 엄마의 모습을 '배추잎 같은 밭소리'로 표현하고 있다.
- ③ '찬밥'은 늦도록 혼자 방에 남아서 엄마를 기다리는 '나'의 모습을 빗댄 표현이다.
- ⑤ 2연의 2행과 3행,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내 유년의 윗목'에는 촉각적 심상이 쓰였다.

알아두기 작품에 나타난 '나'와 '엄마'의 모습

이 작품에는 엄마의 고된 삶에 대한 이야기와, 시장에 가신 엄마를 기다리는 '나'의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 09 **시어(구)**
- 이 작품에서는 화자의 외로움과 슬픔, 허전함과 쓸쓸함 등의 정서와 작품의 분위기를 '찬밥, 금 간 창틈, 밭소리, 빈방, 윗목'과 같은 소재를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알아두기 시어(구)의 의미와 기능

시어 '찬밥, 금 간 창틈, 밭소리, 빈방, 윗목'	기능
• 춥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 • 쓸쓸하고 외로운 느낌 • 슬프고 허전한 느낌 • 세상과 동떨어진 공간에서 외톨이로 있는 느낌	⇒ 작품의 분위기와 정서를 살려 줌

- 10 **표현**
- ㉠에는 활유법이 쓰이고 있다. 활유법이란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이다. 이 작품에서는 무생물인 '해'를 '시든' 식물(생물)처럼 표현하고 있다. ㉡에서도 무생물인 '메아리'를 '자맥질을 하는' 생물처럼 표현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역설법이 사용된 시구이다.
- ② 은유법이 사용된 시구이다.
- ③ 직유법이 사용된 시구이다.
- ⑤ 반복법이 사용된 시구이다.

- 11 **화자·대상 + 표현**
- 화자는 1연에서 어린 시절의 '나'가 느꼈던 외로움과 슬픔을, 어른이 된 2연에서도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유년 시절이라며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 시절의 '나'와 어른이 된 '나'의 괴리감을 보여 준다는 구상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② 이 작품은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1연은 화자의 유년 시절을, 2연은 어른이 된 현재를 다룬다.
- ③ '안 오시네', '엄마 안 오시네', '안 들리네' 등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심화한다.
- ④ '금 간 창틈'에 시각적 심상인, '배추잎 같은 밭소리 타박타박' 등에 청각적 심상인,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등에 촉각적 심상이 쓰이고 있다.
- ⑤ 엄마의 고달픈 삶을 '배추잎 같은 밭소리'로, '나'의 외로움을 '찬밥처럼 방에 담겨'로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 독해 체크

본문 040쪽

- ① 과거 ② 현재 ③ 시장 ④ 어른 ⑤ 외로움
⑥ 찬밥 ⑦ 윗목 ⑧ 열무 ⑨ 엄마 ⑩ 촉각

+ 어휘 체크

본문 041쪽

- 1 (1) 단 (2) 윗목 (3) 괴리감
2 시장 → 장사 → 사심 → 심상 → 상형 → 형상화

갈래 자유시, 서정시**성격** 감각적, 고백적, 성찰적**주제** 문명의 소음에 길들여진 삶에 대한 비판과 성찰

특징

- 문명의 소리와 자연의 소리를 대조적으로 나타냄
- 다양한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감각적으로 표현함
- 풀벌레 소리를 통해 깨달은 점을 진솔하게 고백함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 05 텔레비전
06 어둠 07 성찰

실력 문제

08 ③ 09 ④ 10 ④ 11 ② 12 ⑤

- 01 이 작품의 화자는 이전에 듣지 못했던 풀벌레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나'임을 '내 귀', '내 눈'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 02 이 작품은 '풀벌레', '어둠', '소리' 등의 시어를 반복하고, '~을/를 생각한다.', '~을 것이다.'의 문장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03 이 작품은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공감각적 심상을 주로 활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후각적 심상은 나타나 있지 않다.
- 04 이 작품은 문명의 소리를 의미하는 '텔레비전'과 자연의 소리를 의미하는 '풀벌레 소리'가 대조되고,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과 '어둠', '별빛' 등이 대조되어 주제를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05 1행의 '텔레비전'은 인공적인 대상으로, 자연의 소리를 의미하는 2행의 '풀벌레 소리'와 상반된 의미를 지닌다.
- 06 화자는 텔레비전을 끄고 어둠을 접하며 비로소 어둠 속에서 풀벌레 소리를 듣게 된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어둠'은 풀벌레 소리를 더욱 선명하게 듣게 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 07 화자는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 때문에 자신의 눈과 귀가 두꺼워졌고, 풀벌레 소리가 이런 벽에 부딪쳐 돌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고 있다.
- 08 **화자·대상**
이 작품의 화자는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텔레비전' 소리를 듣느라 자연의 소리를 상징하는 '풀벌레 소리'를 듣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화자는 텔레비전의 빛과 소리로 대표되는 현대 문명의 삶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② 화자는 '어둠', '별빛', '풀벌레 소리'로 대표되는 생태계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갈 것을 노래하지만, 이 작품에서 화자가 자연 속에서 살았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화자가 어린 시절에 헤어진 존재들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화자는 수없이 왔다가 되돌아갔을 풀벌레 소리의 존재를 알리며, 현대인들에게 내면을 채울 수 있는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

알아두기 인식의 변화에 따른 화자의 성찰**인식의 전환**

텔레비전을 끄고 평소에 듣지 못했던 풀벌레 소리를 듣게 됨

**인식의 확대**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풀벌레 소리와 풀벌레의 '여린 마음들'까지 생각하게 됨

**화자의 성찰**

'단단한 벽'을 만들어 풀벌레 소리를 외면해 온 것을 반성하고, 풀벌레 소리를 내면 깊숙이 받아들임

09 표현

[A]는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시의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생생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에는 무언가에 대해 묻거나 답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이 작품에는 사투리가 사용되지 않았다.

③ 이 작품에는 직유법, 다양한 심상 등이 활용되고 있지만, 반어의 방법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이 작품에는 검은색과 흰색의 색채 대비가 나타나지 않는다.

10 화자·대상 + 시어(구)

㉔은 화자가 텔레비전과 같은 문명의 빛과 소리에 익숙해져 자연의 소리에 무관심해진 것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 후에 비로소 풀벌레 소리가 방 안 가득 들어오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② 풀벌레 소리를 듣게 된 화자는 큰 울음 사이에서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라고 표현하였다.

③ '까맣고 좁은 통로들'은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의미한다.

⑤ 화자는 밤공기를 들이쉬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는 표현을 통해, 풀벌레 소리를 내면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1 시어(구)

㉔는 작은 풀벌레들의 소리를 뜻하는 것으로, 자연적인 삶이나 생태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는 모두 ㉔와 대조되는 인공적인 삶, 현대 문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2 주제

이 작품의 화자는 텔레비전을 끄고 풀벌레 소리를 듣게 된 경험을 통해, 문명의 소리에 길들여져 풀벌레 소리와 같은 자연의 소리를 잊고 살았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현대인들에게 내면을 채울 수 있는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권유하고 있지만, 환경 오염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에는 텔레비전을 끄고 난 뒤, 풀벌레 소리를 듣게 된 화자의 경험이 제시되어 있다.

② 화자는 어둠이 찾아온 후에야 풀벌레들의 소리를 인식하였다.

③ 화자는 텔레비전과 같은 문명의 소리가 자신의 눈과 귀를 두껍게 만들었고, 그 벽으로 인해 풀벌레 소리와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추측하고 있다.

④ 화자는 현대 문명으로 인해 '풀벌레 소리',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와 같은 자연의 삶을 외면하고 살아온 것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 독해 체크

본문 044쪽

- ① 풀벌레 ② 무관심 ③ 외면 ④ 전등 ⑤ 어둠
⑥ 청각 ⑦ 문명 ⑧ 소음

+ 어휘 체크

본문 045쪽

- 1 (1) 풀벌레 (2) 낭랑 (3) 현란
2 (1) ㉠ (2) ㉡ (3) ㉢

본문 046~047쪽

09

(가) 까마귀 싸우는 골에 (나) 까마귀 검다 하고

가 [까마귀 싸우는 골에_정몽주의 어머니]

갈래 고시조, 평시조, 단시조

성격 교훈적, 상징적

주제 나쁜 무리와 어울리는 것을 경계하고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마음

특징 대조적 소재(까마귀, 백로)와 상징적 시어(흰빛, 청강)를 통해 주제를 우회적으로 표현함

나 [까마귀 검다 하고_이직]

갈래 고시조, 평시조, 단시조

성격 비판적, 풍자적

주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

특징 대조적 소재(까마귀, 백로)를 통해 주제를 우회적으로 표현함

확인 문제

- 01 × 02 × 03 ○ 04 ○ 05 비판
06 설의법 07 청강에, 걸 회고

심력 문제

- 08 ⑤ 09 ⑤ 10 ③ 11 ②

01 (가)에서 '까마귀'는 다툼을 일삼는 나쁜 무리, 즉 부정적 의미로 쓰였고, '백로'는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 결백한 인물, 즉 긍정적 의미로 쓰였다. 그러나 (나)에서 '까마귀'는 겉은 초라하나 속은 올바른 사람, 즉 긍정적 의미로 쓰였고, '백로'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즉 부정적 의미로 쓰였다.

02 (가)의 중장에서 화자는 '까마귀'가 '백로'의 흰빛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시샘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03 '청강(淸江)'은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강에 조히(깨끗이) 씻은 몸'은 지조와 절개가 있는 군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04 (나)의 종장에서 화자는 '백로'를 겉은 희나 속은 검은 것이라고 하며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05 (나)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고려 유신들)을 '백로'에 빗대어 비판하며 풍자하고 있다.

06 (나)의 '검을소냐.'는 '검지 않다.'라는 의미를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와 같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제시하여 변화를 주는 표현 방법을 '설의법'이라고 한다.

07 시조에서는 대체로 종장의 첫 음보가 3음절로 고정되어 나타나는데, (가)의 '청강에'와 (나)의 '걸 회고'가 이에 해당한다.

08 화자·대상 + 시어(구) + 표현

(가)와 (나) 모두 '백로'를 듣는 이로 설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대조적인 소재와 상징적인 시어를 통해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오답 풀이 ①, ④ 두 작품은 모두 평시조이다. 평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로 구성되며, 4음보의 율격을 지닌다.

② (가)에서는 '까마귀'를, (나)에서는 '백로'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③ (가)에서는 '까마귀'(검은색)가 '백로'의 흰빛(흰색)을 시샘한다는 것에서 두 대상의 색채가 대비되고 있고, (나)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까마귀 검다 하고'에서 '까마귀'의 검은색과 '걸 회고'에서 '백로'의 흰색이 대비되고 있다.

09 시어(구)

(나)에서 화자는 '까마귀'는 겉은 검지만 속은 검지 않고, '백로'는 겉은 희지만 속은 검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까마귀'는 겉모습과 달리 양심을 지키는 올바른 사람을, '백로'는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양심이 없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10 시어(구) + 어휘

㉠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뜻한다. ③의 '표리부동(表裏不同)'은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를 것을 뜻하므로, ㉠과 의미가 통한다.

- 오답 풀이** ① 자기 눈에 물 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이다.
 ② 불을 보듯 분명하고 뻔함을 이르는 말이다.
 ④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을 이르는 말이다.
 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음을 이르는 말이다.

11 시어(구) + 주제

(가)에서 화자는 '백로'가 '청강에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걱정하고 있으므로, '청강'은 이성계가 아니라 아들인 정몽주가 추구하는 세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까마귀'는 다투는 일삼는 무리(소인배), 구체적으로는 새 왕조를 건국하려는 이성계 일파를 상징하므로, '까마귀 싸우는 골'은 새 왕조를 건국하려고 세력을 다투는 무리들 속이라고 볼 수 있다.

③, ④ (가)의 '백로'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대상으로, 작가가 염려하는 아들 정몽주, 또는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 결백한 군자를 의미한다. 반면 (나)의 '백로'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대상으로, 정몽주와 같은 고려의 유신들 즉,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 빗댄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작품의 '백로'는 구체적으로 모두 고려의 유신들, 또는 그와 같은 입장의 존재로 볼 수 있다.

⑤ (가)에서는 '백로'의 '흰빛'을 통해 지조와 절개, 결백한 마음 등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에 (나)에서는 고려 유신들을 빗댄 '백로'가 겉은 희고 속은 검은, 즉 겉과 속이 다른 존재라고 풍자하며 조선 개국 공신의 입장에서 자신들을 합리화하고 있다.

알아두기 (가), (나)에 쓰인 대조적 시어와 주제

	(가)	(나)
까마귀	신흥 세력인 이성계 일파	조선의 개국 공신(화자)
↕		
백로	고려에 지조와 절개를 지키려는 정몽주	고려에 지조와 절개를 지킨 유신들
↓		
주제	나쁜 무리와 어울리는 것에 대한 경계	화자를 비난하는 인물에 대한 풍자

+ 독해 체크

본문 048쪽

- ① 흰빛 ② 백로 ③ 부정 ④ 평시조 ⑤ 외형률
 ⑥ 까마귀 ⑦ 정몽주 ⑧ 고려

+ 어휘 체크

본문 049쪽

- 1 (1) 지조 (2) 절개 (3) 시샘
 2 (1) ㉠ (2) ㉡ (3) ㉢

10 훈인가 정철

본문 050~051쪽

갈래 평시조, 연시조(전 16수), 정형시

성격 계몽적, 교훈적, 설득적

주제 유교 윤리의 실천을 권장함

특징 • 백성들을 교화하려는 목적으로 창작됨
 • 청유형, 명령형 표현을 통해 설득력을 높임
 •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우리말과 일상어를 사용함

확인 문제

- 01 ○ 02 ○ 03 × 04 × 05 청유형
 06 마소 07 향음주

실력 문제

- 08 ④ 09 ② 10 ⑤ 11 ⑤

- 01 두 개 이상의 평시조가 하나의 제목으로 엮인 시조를 연시조라고 하는데, 이 작품은 16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이다.
- 02 이 작품에서 중심을 이루는 내용은 당대에 중시했던 '삼강오륜(三綱五倫)'의 유교적 윤리이다. 작가는 백성들에게 유교적인 가치를 가르치고, 백성들이 바람직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 이 작품을 창작하였다.
- 03 <제3수>는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딴 마음'은 형제간의 우애를 해치는 마음을 의미한다.
- 04 <제9수>의 화자는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의 태도를 제시함으로써 어른을 공경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제9수>에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 05 이 작품에는 '하자꾸나', '가자꾸나', '보자꾸나'의 청유형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백성들에게 바람직한 생활상을 부드럽게 권유함으로써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06 <제8수>에서는 윤리 의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마소'에 빗대어 표현하여, 옳은 일을 하며 살 것을 권장하고 있다.
- 07 <제9수>에서는 향촌의 선비와 유생들이 학덕과 연륜이 높은 어른들을 모시고 술을 마시며 잔치를 하는 '향음주례'라는 전통문화를, <제13수>에서는 힘든 일을 서로 거들어 주면서 품을 지고 갚는 '품앗이'라는 전통문화를 엿볼 수 있다.

08 화자·대상

화자는 시적 대상인 백성들에게 유교 윤리를 강조하며, 이를 실천할 것을 권장함으로써 자신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제13수>의 '내 논 다 매거든'을 통해 화자가 논을 매는 농민임을 알 수 있다.

②, ③ 화자는 명령형, 청유형 표현을 사용하여 유교 윤리를 가르치고 있으므로 강압적 어조가 아니라 계몽적, 설득적 어조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백성들에게 유교 윤리를 권장한다는 점에서 화자는 비판적 태도가 아니라 계몽적, 교훈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제3수>, <제4수>, <제8수>, <제9수>, <제13수>에서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알아두기 「훈민가」의 창작 목적

	중심 내용	유교 덕목
<제3수>	형제간의 우애	오륜
<제4수>	부모에 대한 효도	오륜
<제8수>	올바른 행동	자치 질서
<제9수>	어른에 대한 공경	오륜
<제13수>	근면과 상부상조	자치 질서

↑

유교 사상이 밑바탕이 되어, 유교적 교화를 목적으로 창작됨

09 표현

이 작품에서는 청유형 표현 '하자꾸나', '가자꾸나', '보자꾸나'를 통해 대상을 예찬하는 것이 아니라, 유교 윤리를 실천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에서는 작가가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순우리말을 사용하고 있다.

③ 이 작품에서는 백성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정감이 느껴지는 어휘를 사용하여 이를 그려 내고 있다.

④ 이 작품에서는 화자가 청자인 백성들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⑤ 이 작품에서는 유교 윤리의 가르침과 관련된 내용을 명령형 표현을 통해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유교 윤리의 실천을 강조하고 전달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배경지식 + 우리말의 종결 표현

종결 표현이란 문장을 끝내는 데 쓰이는 표현을 말한다. 국어의 문장은 종결 어미의 형태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의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평서문	말하는 이가 하고 싶은 말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진술하는 문장 ㉠ 집에 간다.
의문문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 ㉡ 집에 가니?
명령문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무엇을 시키거나 행동을 요구하는 문장 ㉢ 집에 가.
청유문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함께 행동할 것을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문장 ㉣ 집에 가자.
감탄문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거의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 ㉤ 집에 가느구나!

10 시어(구)

㉠에서 '새었다'는 '날이' 밝았다.'의 의미로, 날이 밝았으니 호미를 메고 일하러 갈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은 농민들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가 아닌, 농민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의 바람직한 태도와 관련이 있다.

오답 풀이 ① ㉠의 '모습조차 같은 것인가?'는 화자가 말을 건네는 대상인 형과 아우의 외모가 닮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② ㉡은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섬기지 못하면 돌아가신 후에는 소용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여읜 자식의 슬픔을 의미하는 한자 성어인 '풍수지탄(風樹之歎)'과 관련이 있다.

③ ㉢은 '마소와 같은 가족에게 갓 고깔을 씌워서 밥을 먹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라는 의미를 지닌 설의적 표현으로, 사람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마소'에 빗대어 나무라고 있는 것이다.

④ ㉣은 '나갈 데 계시거든'이라는 상황을 가정하여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11 시어(구) + 주제

<제13수>에서 화자는 농사일을 할 때 근면하고 상부상조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제3수>에서는 형과 아우에게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낼 것을 권장한다.

② <제4수>에서는 나중에 후회하며 슬퍼하지 말고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도할 것을 권장한다.

③ <제8수>에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권장한다.

④ <제9수>에서는 어른을 공경할 것을 권장한다.

알아두기 작품이 창작된 시기의 사회·문화적 상황

유교 사상이 생활의 바탕이 됨

↓

- 부모에 대한 효를 중요하게 생각함
- 장유유서(長幼有序: 어른과 어린이 사이의 도리는 엄격한 차례가 있고 복종해야 할 질서가 있음을 이르는 말)와 노인 공경을 중요하게 생각함
- 농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었으며, 농사일을 할 때 상부상조(相扶相助: 서로서로 도움)의 정신으로 협동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함

+ 독해 체크

본문 052쪽

- ① 우애 ② 공경 ③ 형 ④ 마을 ⑤ 계몽 ⑥ 효도
⑦ 근면 ⑧ 순우리말 ⑨ 이해

+ 어휘 체크

본문 053쪽

- 1 (1) 마소 (2) 평생 (3) 향음주
2 (1) ㉠ (2) ㉡ (3) ㉢

2. 소설

본문 060~061쪽

01

문수 좋은 날 ① _현진건

갈래 단편 소설, 현대 소설, 사실주의 소설

성격 사실적, 비극적, 반어적, 현실 고발적

주제 일제 강점기 도시 하층민의 궁핍하고 비참한 삶

- 특징**
- 일제 강점기 도시 하층민의 비참한 삶을 사실적으로 드러냄
 - 극적인 반전(상황적 반어)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작품의 비극성을 극대화함
 - '비 오는 날'의 날씨 배경을 통해 작품 전체의 분위기와 비극적 결말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확인 문제

01 ○ 02 ○ 03 설령탕 04 비속어

심력 문제

05 ④ 06 ⑤ 07 ④ 08 ③

01 이 작품에서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씨 배경은 작품 전체에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물이 처한 현실의 불행과 비극적 결말을 암시한다.

02 이 작품에서 '인력거', '인력거꾼', '김 첨지', '양복쟁이', '동광 학교', '전(삼십 전, 오십 전, 팔십 전, 일 원 오십 전)', '백동화', '푼(서 푼, 다섯 푼)', '조밥', '남대문 정거장', '우장' 등은 작품을 창작할 당시(일제 강점기였던 1920년대)의 사회상이 반영된 소재이다.

배경지식 인력거

자전거 바퀴와 같이 생긴 구조의 큰 두 바퀴 위에 사람이 타는 자리를 만들고, 그 위에 포장을 둘러싸워 만든 것이다. 1869년경에 일본에서 서양 마차를 본떠 만들어진 인력거는 1894년 일본인이 10대의 인력거를 수입해 들여와 영업을 시작함으로써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선을 보였다. 최초의 인력거꾼은 모두 일본인이었다가 점차 한국인으로 바뀌었다. 이로부터 인력거는 부산, 평양, 대구 등 지방 도시에 급속히 보급되어 가마를 대신하는 중산층 이상의 교통수단으로 번성을 누렸다. 인력거 영업은 1923년 절정에 이르러 전국에 4647대(서울 1816대)를 기록하였으나, 1912년부터 등장한 임대 승용차(택시)와의 경쟁에 밀려 점차 사양길을 밟았다.

03 이 작품에서 '설령탕'은 돈을 번 김 첨지가 앓는 아내에게 사다 주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아내에 대한 김 첨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04 이 작품에서 김 첨지가 사용하는 생생한 비속어는 하층민의 생활상과 인물의 심리를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05 서술

이 작품은 작품 밖의 서술자(작가)가 전지전능한 위치에서 작품과 관련된 모든 것, 즉 인물들의 성격과 가치관, 과거와 미래, 내면 심리 등의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모두 전달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②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③, ⑤ 3인칭 관찰자 시점(작가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06 인물·사건

(나)에서 김 첨지는 아내의 병이 위중함에도 약 한 첩 써 본 일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김 첨지는 병이 나도 약을 쓰지 않고 참고 견뎌야 한다는 고지식한 신조를 지니고 있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근 열흘 동안 돈 구경도 못한 김 첨지는 ~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뻐했다.'를 통해 김 첨지가 근 열흘 만에 돈을 벌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나)의 '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를 통해 김 첨지의 형편이 매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③ (라)의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덩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음이다.'를 통해 김 첨지가 이어지는 행운에 내심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의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쿨룩거리기는 벌써 달포가 넘었다.'를 통해 김 첨지의 아내가 한 달 넘게 병을 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7 배경·소재

'비 오는 날'이라는 날씨 배경이 작품의 음산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인공 김 첨지의 착잡한 심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하지만,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③ 이 작품은 겨울비가 내리는 배경을 묘사하며 시작된다. 이는 그만큼 '비 오는 날'이라는 음산하고 쓸쓸스러운 날씨 배경이 작품의 전반적 분위기나 내용 전개 방향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② '눈이 올 듯했다'는 것에서 계절적 배경이 겨울임을 알 수 있다.

⑤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날씨 배경은 사건의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알아두기 '겨울비'가 내리는 날씨의 역할

'겨울비'가 내리는 날씨

-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열다가 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었다.'
- '흐리고 비 오는 하늘은 어둡침침한 게 벌써 황혼에 가까운 듯하다.'
- '곳은비는 의연히 추적추적 내린다.'



날씨 배경의 역할

-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어둡고 음산하게 이끌어 감
- 김 첨지의 복잡하고 착잡한 심리 상태를 반영함
- 앞으로 다가올 불행과 비극적 결말을 암시함

08 서술

㉔의 다음 내용으로 보아, 김 첨지는 겉으로는 야단을 쳤지만 속마음으로는 아내를 안타까워하고 있으므로, ㉔은 아내에 대한 김 첨지의 생각을 단적으로 제시한 부분이라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조밥도 못 먹는 년', '저먹고 지랄을 하게.'를 통해 비속어를 실감 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④ 비속어를 사용하여 1920년대 당시 하층민들의 생활상을 사실적이고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 ⑤ ㉔을 통해 김 첨지의 성격, 심리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김 첨지는 겉으로는 설령탕을 사 달라고 하는 아내를 야단쳤지만, 속으로는 아내의 바람대로 해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으므로 김 첨지는 무뎠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배경지식 + 소설의 인물 제시 방법

직접적 제시	•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특성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방법을 말함 • 인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고, 독자가 인물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음
간접적 제시	• 서술자의 개입 없이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 등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을 말함 • 인물을 생동감 있게 그려 낼 수 있고, 독자로 하여금 상성력을 발휘하게 함

01 문수 좋은 날 ②

본문 062~063쪽

확인 문제

01 × 02 ○ 03 복선 04 행운

실력 문제

05 ⑤ 06 ④ 07 ④ 08 ③

- 01 (마)에는 나가지 말라는 아내의 부탁을 외면하고 일을 나와서 느끼는 김 첨지의 걱정과 불안, (사)에는 집 가까이 다다르자 느끼는 아내에 대한 김 첨지의 걱정과 불안이 드러나 있다.
- 02 아내가 중증의 병을 앓고 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해 인력거를 끌러 나오는 김 첨지의 모습에서, 김 첨지가 비참할 정도로 가난한 처지임을 알 수 있다.
- 03 (마)에서 병든 아내가 일을 나가려는 김 첨지를 만류하는 것과, 그래도 일을 나가는 김 첨지에게 일찍 들어오라고 말하는 것은 이후에 불행한 일이 생길 것임을 암시하는 복선이다.
- 04 (바)~(사)에서 김 첨지는 큰돈인 '일 원 오십 전'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고 남대문 정거장으로 향하고 있다. 따라서 손님을 계속 태우는 김 첨지의 행운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b 정답과 해설

05 인물·사건

(사)에서 김 첨지의 다리가 갑자기 무거워진 것은, 집에 가까이 다다르자 병에 걸려 누워 있는 아내와 어린 자식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 오답 풀이** ① (마)에서 '집을 나올 제 아내의 부탁이 마음에 켜기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② (바)에서 '빙글빙글 웃는 차부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넘쳐흘렀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③ (바)에서 '그 학생을 태우고 나선 김 첨지의 다리는 이상하게 거뭇하였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④ (사)에서 김 첨지는 인력거 채를 천 채 길 한복판에 멈춰 서는데, 그 이유는 '영영하고 우는 개똥이의 곡성'을 들은 듯싶었기 때문이다.

알아두기 '발단~전개' 부분에 나타난 '김 첨지'의 심리

정류장에서 양복쟁이를 동광 학교까지 태워 줌	이른 아침부터 돈을 벌게 된 김 첨지는 모uhan 잔을 마실 수 있고, 아픈 아내에게 설령탕을, 아이에게는 죽을 사다 줄 수 있게 되어 마음이 넉넉해짐
기숙사 학생을 남대문 정거장까지 태워 줌	손님을 태운 인력거가 집에 가까워질수록 아내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해져서 걸음이 느려지고, 집에서 멀어질수록 근심과 걱정을 잊기 위해 일에 몰두하여 걸음이 빨라짐
큰 가방을 들고 있던 손님을 인사동까지 태워 줌	돈을 더 벌게 되어 기뻐하지만, 아내에 대한 걱정으로 걸음이 황급해짐. 집에 가까워 올수록 두려움이 커지면서 마음이 괴상하게 누그러짐

06 서술

(마)에서 평소와 달리 김 첨지에게 나가지 말라고 말하거나, 일찍 들어오라고 말하는 병든 아내의 부탁은 자신에게 벌어질 비극을 예감하는 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㉔은 작품의 비극적 결말(아내의 죽음)을 암시하는 복선에 해당한다.

07 인물·사건

- ㉔에는 아내의 병세에 대한 불안감을 애써 외면하는 김 첨지의 모습이 드러난다. 또한 이를 통해 병든 아내를 두고도 일을 나가야 하는 김 첨지의 매우 가난한 처지를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김 첨지의 무뎠직한 성격이 나타난지 하지만, 앞뒤 내용으로 볼 때 김 첨지의 성격이 포악하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⑤ 김 첨지는 통명스럽고 무뎠직하게 말할 뿐, 아내를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김 첨지는 남대문 정거장까지 가자는 말을 들은 순간, 집에 있는 병든 아내를 걱정하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 ③ 김 첨지는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일을 해야 먹고살 수 있기 때문에 병든 아내의 부탁에도 일을 나가려는 것이다.

08 인물·사건

(사)에서 김 첨지는 집에 가까이 다다를수록 나가지 말라고 부탁하던 병든 아내의 모습이 떠올라 걸음이 느려지고, 집에서 차차 멀어질수록 근심과 걱정을 잊기 위해 다시 빨리 걸으며 일에 몰두한다. 즉 아내에 대한 걱정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걸음이 빨라진 것은 아니다.

01 문수 좋은 날 3

본문 064~065쪽

확인 문제

01 ○ 02 × 03 치삼 04 원수

실력 문제

05 ③ 06 ② 07 ⑤ 08 ④

01 이 작품에서는 비속어의 사용을 통해 김 첨지의 심리와 삶의 모습을 사실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아)~(차)에 쓰인 비속어에는 궁핍한 삶에 대한 김 첨지의 원망과 아내에 대한 불안감 등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02 (차)의 ‘긋은비’는 술을 마시며 집에 돌아가는 시간을 늦추고 있던 김 첨지가 결국 집에 돌아가기 위해 거리로 나선 순간의 날씨이다. 시종일관 암울하고 을씨년스럽게 내리는 긋은비는 현재 김 첨지의 암울한 심정을 드러내며, 집에서 맞닥뜨릴 불행한 결말을 암시하는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03 김 첨지가 술을 마시는 것은 집에 돌아갈 시간을 미루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걱정하던 아내를 빨리 만나러 가지 않고, 치삼과 술을 마시며 버티는 것은 김 첨지 스스로도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04 (아)에서 김 첨지가 돈을 집어 던지는 행동에는 궁핍한 삶에 대해 원망하는 심정이 담겨 있다. 또한 취중에도 집어 던진 돈의 거처를 살피며 연연해하는 자신의 모습에도 화를 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결국 지독한 가난으로 인한 현상이다.

05 서술 이 작품에서 김 첨지가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구체적인 갈등 상대가 있기 때문은 아니다. (아)~(차)에 쓰인 비속어에는 주로 술에 취한 김 첨지의 고조된 감정, 즉 궁핍한 삶에 대한 원망이 사실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06 인물·사건 이 작품에서 김 첨지가 친구 치삼과 술을 마시고, 과장된 말과 행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내에 대한 불길한 예감으로 집에 돌아가기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첨지의 행동을 열심히 일한 자신에게 주는 보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④ 김 첨지는 굶다시피 하는 형편에 병든 아내를 두고 나가 일을 해서 번 돈을 술을 마시며 탕진하고 있다. 이러한 김 첨지의 모습을 통해 당대 고달픈 하층민의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③ (자)에는 술에 취해서 술을 급하게 마시고 “또 부어, 또 부어.”라고 외치며, 치삼의 어깨를 치며 큰 소리로 웃는 등 과장된 말과 행동을 하는 김 첨지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⑤ 김 첨지가 치삼의 어깨를 치며 큰 소리로 웃는 것은 술에 취해서이기도 하지만, 아내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07 인물·사건 + 배경·소재

김 첨지가 돈에 화풀이를 하는 이유는 병세가 깊은 아내의 부락을 뿌리치고 나올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 즉 지독한 가난 때문에 돈이 원수처럼 느껴지고 원망스러웠기 때문이다.

08 인물·사건 + 서술

김 첨지가 치삼에게 “우리 마누라가 죽었다네.”라고 말한 것은 집에서 맞닥뜨리게 될 불길한 상황을 예감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이런 말을 함으로써 내심 아내에게 별일이 없기를 바라는 김 첨지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오답 풀이 ③ 김 첨지가 던진 돈이 양푼에 떨어지며 짹하고 울린 것을 ‘정당한 매를 맞는다는 듯이 짹하고 울었다.’라고 표현한 것에는 돈에 화풀이하는 김 첨지의 행동에 대해 은연중에 동조하는 서술자(작가)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01 문수 좋은 날 4

본문 066~067쪽

확인 문제

01 × 02 ○ 03 허장성세 04 죽음 05 반어

실력 문제

06 ② 07 ④ 08 ⑤ 09 ⑤

01 (카)에서는 개똥이가 젖을 빠는 소리가 날 뿐 꿀떡꿀떡하고 젖 넘어가는 소리가 없으며, 아내가 죽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02 (하)에서 아내는 김 첨지가 사 온 설령탕을 끝내 먹지 못하고 숨을 거두는데, 이 장면에서 작품의 비극성이 가장 고조된다.

03 (카)~(파)에서 김 첨지가 고향을 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등의 허장성세를 부리는 것은 스스로의 불안감을 떨치기 위한 행동이다.

04 김 첨지가 방문을 열었을 때 나는 다양한 냄새들은 죽음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드러낸다.

05 이 작품의 결말은 ‘문수 좋은 날’이라는 제목과 반대되게 비극적으로 끝을 맺는다. 따라서 이 작품의 제목은 김 첨지의 비참한 삶을 반어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06 배경·소재

술에 취했음에도 아내를 위해 ‘설령탕’을 사 오는 김 첨지의 모습에서 김 첨지의 소박한 인간미와 아내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반면 결말 부분에서 결국 아내는 ‘설령탕’을 먹지 못하고 죽게 되므로, ‘설령탕’은 작품의 비극성을 더욱 고조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첨지의 불안감과 관련이 없다.

알아두기 '설령탕'의 역할

- '사흘 전부터 설령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다. ~ 인제 설령탕을 사 줄 수도 있다.'
- '김 첨지는 취중에도 설령탕을 사 가지고 집에 다다랐다.'
- '설령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 하층민의 가난한 현실을 드러냄
- 아내에 대한 김 첨지의 사랑을 확인시켜 줌
- 아내가 설령탕을 먹지 못하고 죽음으로써 결말의 비극성을 강조함

07 서술 + 주제

절정과 결말 부분에서 김 첨지가 허장성세를 부리는 것은 아내를 구박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애써 외면하려는 과장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운수 좋은 날'이라는 이 작품의 제목은 아내의 죽음이라는 결말의 비극성을 강조하는 반어적 표현이다.

③, ⑤ 설령탕도 먹지 못한 아내의 죽음은 결말의 비극성을 더욱 고조시킨다. 이와 같은 결말은 결국 일제 강점기 도시 하층민의 궁핍하고 비참한 삶을 효과적으로 보여 준다.

08 서술

㉔의 '꿀떡꿀떡하고 젖 넘어가는 소리'는 김 첨지의 아내가 살아 있을 때 들릴 수 있는 소리이다. 나머지는 모두 아내의 죽음을 암시하는 표현이다.

09 인물·사건

이 작품의 발단과 전개 부분에서는 김 첨지에게 행운이 계속되어 김 첨지는 하루 벌이로는 큰돈을 벌게 된다. 기숙사 학생을 남대문 정거장까지 태워다 주면서 그의 기쁨은 절정에 다다르지만, 집이 가까워지자 아내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감을 느낀다. 이후 위기 부분부터는 불안감이 더 고조되며, 집에 가는 시간을 늦추기 위해 친구 치삼과 술을 마신 뒤 마침내 집에 돌아간 절정, 결말 부분에서는 아내의 죽음을 맞닥뜨리고 슬픔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김 첨지의 심리 변화 과정을 ⑤와 같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 독해 체크

본문 068쪽

- ① 행운 ② 설령탕 ③ 죽음 ④ 인력거꾼 ⑤ 분위기
⑥ 사랑 ⑦ 비극성 ⑧ 복선 ⑨ 아내 ⑩ 반어적

+ 어휘 체크

본문 069쪽

- 1 (1) 달포 (2) 일변 (3) 댕바람
2 (1) ㉠ (2) ㉡ (3) ㉢

본문 070~071쪽

02

동백꽃 1 김유정

갈래 단편 소설, 순수 소설, 농촌 소설

성격 향토적, 해학적, 서정적

주제 산골 젊은 남녀의 순박한 사랑

- 특징**
- 상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어수룩한 행동으로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함
 - 토속적, 향토적 어휘와 소재를 풍부하게 사용하여 작품의 정서와 분위기를 형성함
 - 1930년대 시골을 배경으로 하여 젊은 남녀의 순박하고 풋풋한 사랑을 서정적으로 그림

확인 문제

- 01 × 02 ○ 03 ○ 04 닭싸움 05 감자

실력 문제

- 06 ⑤ 07 ② 08 ⑤ 09 ④

01 이 작품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중심인물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이다.

02 (다)에서 "느 집엔 이거 없지?"라는 점순이의 말은 민망함을 감추려는 것이었으나,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여 '나'는 점순이의 호의를 거절하였다.

03 (가)는 점순이가 이유 없이 닭싸움을 붙여 '나'를 괴롭히는 현재의 상황이고, (나)~(라)는 닭싸움을 하기 전 '나'가 점순이의 감자를 거절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다.

알아두기 '동백꽃'의 역순행적 구성

이 작품은 닭싸움을 중심으로 '현재-과거-현재'로 이어지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현재	발단('오늘도 또 ~ 아르령거리는지 모른다.')
과거	전개('나를 전 감자 ~ 달아나는 것이다.'). 위기
현재	절정, 결말

04 '나'와 점순이가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은 (가)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 부분에는 점순이가 계속해서 자기네 닭과 '나'의 닭을 싸움 붙이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즉 '나'와 점순이가 갈등을 겪고 있는 이유는 점순이가 일부러 붙이는 '닭싸움' 때문이다.

05 점순이는 '감자'를 주며 '나'에게 관심을 표현한다. 그러나 '나'가 이를 거절하자 점순이와 '나'의 갈등이 시작된다.

06 인물·사건

'나'는 점순이가 왜 '나'를 괴롭히지 못해서 안달인지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점순네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똑 오소리같이 실
 짝하게 생긴 놈)이 덩저리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에
 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의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아댔다.'를 통해 이전에도 점순
 이의 괴롭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점순이에게 감정이 없었던 '나'에게 점순이가 먼저 감자를 건넸고,
 그것을 거절한 이후 닭싸움이 벌어졌다. 따라서 사건은 '나'가 아니라
 점순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④ (가)의 '대뜸 지게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네 닭을 후려칠까 하
 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놓았다.'를 통해, '나'가 점순이
 에게 부당함을 따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7 서술

㉠에서 '나'는 점순이가 자신에게 호감의 표시로 감자를 준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점순이가 화를 낸 것은 저의 잘못
 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은 이러한 '나'의 어수룩한 모
 습을 드러내어 해학성을 유발한다.

오답 풀이 ① ㉠은 사건의 원인을 바르게 파악한 것이 아니라, 점순이
 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어수룩함을 드러내고 있다.

③ ㉠에서 '나'는 사소한 일을 부풀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로 생각하는 바를 솔직히 말하고 있다.

④ ㉠은 자기가 하고도 아니한 체, 알고도 모르는 체하는 시치미를 떼
 는 태도와는 관련이 없다.

⑤ ㉠에는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실제와 반대되게 말을 하는
 반어적인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08 인물·사건

㉠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 결정적인 말이지만, 원
 래 점순이의 의도는 갑작스레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쑥
 스러워서 ㉠과 같이 말을 붙인 것이다.

09 인물·사건

[A]에서 점순이는 '나'에게 감자를 주며 호감을 표현한 것을
 '나'가 이해하지 못하고 거절하자 매우 불안하고 화가 났다.

오답 풀이 ① 점순이는 '나'가 감자를 싫어해서 실망한 것이 아니라,
 '나'가 자신의 호의를 거절한 것 때문에 화가 난 것이다.

② 점순이는 '나'의 마음을 잘 몰라 당황한 것이 아니라, '나'가 감자를
 단호히 거절해서 자존심이 상한 것이다.

③, ⑤ [A]에 나타난 점순이의 반응은 걱정하거나 미안해하는 것이 아
 니라, '나'의 거절에 불안하고 화가 난 것이다.

01 점순이는 '나'에게 감자를 건넸다가 불안함에 눈물을 흘리고
 간 그날 저녁부터 '나'의 닭을 괴롭힌다. 즉 '나'에 대한 보
 복으로 닭을 때린 것이다.

02 (바)로 보아, '나'가 점순이에게 직접 화내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가족이 마름인 점순네 땅을 부치며 생계를 꾸려 가고
 있기 때문이다.

03 '마름'은 땅 주인을 대신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을 뜻하
 는 말로, 1930년대의 시대상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04 (바)에 제시된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라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를 통해, 어머니가 '나'에게 주의를 준 이유는 땅
 이 떨어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05 인물·사건

'나'는 다소 어수룩하며 무뚝뚝하고 우직한 성격인 반면에, 점
 순이는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이다. 따라서 둘의 성격은 서
 로 비슷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점순이가 '나'의 닭을 괴롭히는 것은 '나'에 대한 원망의
 표현이자, '나'의 관심을 끌고 싶은 마음이 담긴 행동이다. 따라서 애
 증, 즉 사랑과 미움이 교차하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나'는 점순이에게 적극적으로 따지고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
 라서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너무 분해 울타리라도 후려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마)를 통해 평소 점순이는 부끄러움을 타지 않으며, 분하다고 눈물
 을 보이는 일은 더더욱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순이가 눈물을 보인
 것은 '나'에게 호의를 거절당해 민망하고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④ (바)의 '설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먹는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느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를 통해, '나'가 감자를 거절한
 이유가 점순이의 말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점순이가 그 말을 안
 했다면 아마도 '나'는 감자를 받아먹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알아두기 등장인물의 성격

점순	• 천연덕스럽고 괄괄함 • 조숙하고,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함
'나'	• 순박하고 어수룩함 • 무뚝뚝하고 우직함

06 인물·사건

(바)에서 '나'는 자신의 집은 점순네의 신세를 많이 지고 있는
 데, 자신과 점순이가 좋아지내거라도 하면 점순네 부모님이
 화를 낼 것이며, 그로 인해 집이며 땅을 빼앗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오답 풀이 ① (바)의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 인품 그런 집은 다시없
 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하는 것이다.'를 통해, '나'의 집과
 점순네 집의 사이가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나'는 점순이의 관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점순이에게
 관심이 많지 않다.

02 등백꽃 2

본문 072~073쪽

확인 문제

01 ○ 02 × 03 마름 04 땅

실력 문제

05 ⑤ 06 ⑤ 07 ③

- ③ 어머니의 당부 때문에 '나'는 점순이가 기를 북북 쓰며 '나'를 말려 죽이려고 하기 전부터 점순이를 멀리했다.
- ④ 점순이와 친해지지 않도록 '나'에게 당부를 한 것은 '나'의 어머니이지 점순네 어머니가 아니다.

07 서술

〈보기〉는 (사)의 일부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꾸어 쓴 것이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사건의 속사정과 인물들의 속마음 까지도 자세히 서술하므로, 독자가 인물들의 심리를 잘 파악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된 (사)는 화가 난 '나'의 심리가 실감 나게 제시되어 있어 극적 긴장감이 잘 나타나 있지만, 〈보기〉는 (사)에 비해 극적 긴장감이 덜하다.
- ②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작품 속 등장인물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들려주므로,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가깝다. 그러나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므로,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멀다.
- ④ 서술자의 눈에 비친 세계만 제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에 해당한다.
- ⑤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된 〈보기〉는 사건의 속사정, 인물들의 속마음을 다 알려 주기 때문에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한다.

배경지식 ①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과 효과

-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서술함
- 독자에게 직접 말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친근감과 신뢰감을 줌
- 주인공이 자신의 입장에서만 말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지고 전달하는 내용에 한계가 있음

02 동백꽃 ③

본문 074~075쪽

확인 문제

01 × 02 ○ 03 외적 04 약, 관심

심력 문제

05 ⑤ 06 ② 07 ② 08 ①

- 01 (자)에 제시된 '욕을 이토록 먹어 가면서도 대거리 한마디 못하는 걸 생각하니'를 통해, '나'가 점순이에게 욕을 듣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 02 점순네 닭에게 계속 지던 '나'의 닭은 (타)에서 점순네 닭을 공격하는 듯하였지만, 결국 상황이 역전되어 다시 점순네 닭에게 쫓이게 되었다.
- 03 소설의 갈등은 등장인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적 갈등'과, 등장인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외적 갈등'으로 나뉜다. 그리고 이 외적 갈등에는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 인물과 운명과의 갈등 등이 있는데, 점순이와 '나'의 갈등은 인물과 인물 사이의 외적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알아두기 '점순'과 '나'의 외적 갈등

점순	외적 갈등	'나'
• 자신의 호의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함 • '나'에 대한 양감으로 닭싸움을 시킴	⇒	• 점순이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함 • 닭싸움에서 이기려고 닭에게 고추장을 먹임

- 04 점순이가 깔깔거리며 되도록 '나'가 많이 들으라고 웃는 것은 '나'를 약 올리기 위한 행동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나'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05 배경·소재

점순이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나'에 대한 원망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수탉과 '나'의 수탉을 싸움 붙이는 것일 뿐, 이를 소작인에 대한 마름의 횡포로 보기는 어렵다.

06 서술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어수룩한 '나'가 점순이에게 미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서술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③ 작품 속에서 '나'로 등장할 경우, 이때의 '나'는 서술자이다. 서술자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경우 이 작품과 같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고, 서술자인 '나'가 등장인물을 관찰하여 객관적으로 전달할 경우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된다.
- ④ 3인칭 관찰자 시점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이다.
- ⑤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이다.

07 인물·사건

'나'는 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병든 황소가 살모사를 먹고 용을 쓰는 것처럼 기운이 뻗진다는 말을 듣고는, 점순네 수탉과의 싸움에서 자신의 수탉이 이기게 하기 위해 닭에게 고추장을 먹인다.

- 오답 풀이** ① (카)의 '장독에서 고추장 한 접시를 떠서 닭 주둥아리께로 들이밀고 먹여 보았다.'를 통해, '나'의 수탉이 평소에 고추장을 즐겨 먹은 게 아니라 '나'가 억지로 먹인 것임을 알 수 있다.
- ③ 고추장을 먹었을 때 닭의 덩치가 커진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④, ⑤ '나'가 자기 닭에게 고추장을 먹인 것은 닭을 괴롭히거나 닭이 건강해지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닭이 싸움에서 이기기를 바라서이다.

08 인물·사건

'나'는 ㉠에서 '나'의 수탉이 고추장을 먹었는데도 계속 점순네 수탉에게 당하자 화가 난다. 하지만 ㉡에서 자신의 수탉이 점순네 수탉을 공격하자 신이 나고 통쾌함을 느끼다가 ㉢에서 급세 상황이 역전되자 '나'는 풀이 죽고 허탈해한다.

알아두기 닭싸움 진행 과정에 따른 '나'의 심리 변화

'나'의 수탉이 점순네 수탉에게 계속 당함	분함, 억울함
'나'의 수탉이 점순네 수탉을 공격함	기쁨, 통쾌함
'나'의 수탉이 점순네 수탉에게 다시 공격당함	허탈함, 실망함

확인 문제

01 × 02 ○ 03 호드기 04 동백꽃

실력 문제

05 ⑤ 06 ④ 07 ⑤ 08 ③

- 01 (하)의 '나도 한때는 각실각실히 일 잘하고 얼굴 예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를 통해, '나'가 과거에는 점순이에게 호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02 (하)에서 "뭐, 이 자식아! 누 집 닭인데?"라는 점순이의 말을 듣고, '나'는 마름인 점순네의 닭을 자신이 죽였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인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를 통해, '나'가 울어 버린 이유는 닭을 죽인 일로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03 (파)에서 '나'는 약을 올리기 위해 '나'의 닭을 집어내다가 닭싸움을 시켜 놓고 천연스레 호드기를 붙고 있는 점순이의 모습에 매우 약이 올라서 '두 눈에서 불과 함께 눈물이 펑 쏟아졌다.'라고 했다.
- 04 두 사람이 파문힌 노란 '동백꽃'은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며 '나'와 점순이 사이에 생긴 사랑의 감정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소재이다.

배경지식 + 작품에 제시된 '노란 동백꽃'

이 작품에 나오는 동백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붉은색이나 흰색의 동백꽃이 아니라, 생강나무의 노란 꽃을 지칭하는 것이다. 작가인 김유정의 고향이 강원도인데, 거기에서는 생강나무를 동백나무(동백나무)라고도 부른다. 생강나무라는 이름은 잎 또는 가지를 꺾으면 알싸한 생강 향기가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05 배경·소재 + 서술 + 주제

이 작품은 소작농과 마름 사이의 계층적 갈등보다는 사춘기 두 남녀의 애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점순이와 '나'의 갈등은 사춘기 소년 소녀 사이의 감정에서 오는 갈등으로, 시대 상황이나 계층적인 대립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06 인물·사건

(거)에서 "너 이담부터 안 그럴 테냐?"라는 점순이의 물음에 '나'는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래!"라고 답하였다. 이것은 자신이 점순네 닭을 죽인 일로 예상되는 두려운 결과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답일 뿐, 점순이의 마음을 받아 주게 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나도 한때는 각실각실히 일 잘하고 얼굴 예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를 통해, '나'가 과거에는 점순이에게 호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파)에서 약이 올라 눈물이 쏟아지는 '나'와 달리, 점순이는 천연스레 호드기를 붙고 있는 태연한 모습을 보인다.
- ③ 점순이가 닭싸움을 붙인 것은 '나'에 대한 앙갚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이다.
- ⑤ 지금까지 당차고 당돌했던 점순이의 모습과는 달리, 어머니의 역정에 겁을 먹고 살금살금 산을 내려가는 점순이의 모습은 이전과는 대조적어서 해학성을 유발한다.

알아두기 '닭싸움'의 결말과 역할

'나'가 점순네 수탉을 단매로 때려죽임

점순이의 제의를 '나'가 받아들임

'나'가 점순이에게 떠밀려 함께 동백꽃 속에 파묻힘

'닭싸움'은 결말 부분에서 '나'와 점순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07 인물·사건

㉔은 어수룩하고 둔한 '나'가 점순이의 애정을 어렵פות하게 느끼게 되었음을 후각적인 감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㉔은 점순이에 대한 미움이 극에 달하여 점순이의 눈을 여우 새끼의 눈길에 비교하고 있다.

② ㉔은 '나'에 대한 점순이의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점순이가 소작농의 아들인 '나'에게 마름 집의 수탉을 죽인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말이다.

③ ㉔은 소작농의 아들인 '나'가 마름집인 점순네 닭을 죽임으로써 밭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④ ㉔은 '나'가 분한 마음에 점순네 닭을 때려죽이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는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터트린 울음이다.

08 서술

㉔은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나'의 행동을 과장되고 익살스럽게 표현하여 독자의 웃음을 유발한다.

알아두기 작품의 해학성

- 점순이의 마음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나'의 어리숙함을 통해 웃음을 유발함
- '쟁그러워', '싱둥경둥', '각실각실' 등과 같은 토속어를 사용하여 인물을 희화화함
- 과장과 익살이 담긴 해학적 어조를 사용함

+ 독해 체크

본문 078쪽

- ① 닭싸움 ② 감자 ③ 고추장 ④ 동백꽃 ⑤ 이해
⑥ 적극 ⑦ 웃음 ⑧ 애정 ⑨ 해소 ⑩ 향토적

+ 어휘 체크

본문 079쪽

- 1 (1) 침해 (2) 빈사지경 (3) 마름
2 호의 → 의적이 → 이마빠기 → 기색 → 색동 → 동리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성장 소설

성격 사실적, 교훈적, 동화적

주제 정직하게 사는 삶의 중요성

특징

- ‘현재-과거-현재’의 역순행적 구성을 취함
- 주인공의 갈등과 심리 변화가 섬세하게 드러남
- 주인공과 대립하는 인물이 등장하여 주인공의 갈등을 키움
- 갈등의 해결 과정을 통해 주인공이 성숙해 가는 과정을 드러냄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작은아버지
05 거스름돈

심력 문제

06 ③ 07 ④ 08 ④ 09 ② 10 ③

01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전달하고 있다.

02 ‘지전’, ‘고깃간’, ‘둥구미’, ‘일 원’, ‘은전’ 등의 소재를 통해 이 작품의 배경이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임을 알 수 있다.

03 (가)에서 문기는 숨겨 둔 공과 책상 서랍 속의 쌍안경이 없어 지자 불안해하며 공과 쌍안경을 찾고 있다.

04 (가)에서 문기는 작은아버지가 회사에서 돌아오시면 잘못된 일이 들켜 혼이 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05 (나)에서 문기는 고깃간에서 거스름돈을 생각보다 많이 받고, 어리둥절하고 당황하여 돈과 주인을 의심스레 쳐다보았다.

06 인물·사건

문기는 숙모의 심부름으로 고기 한 근을 사러 갔다가 고깃간 주인의 실수로 거스름돈을 더 받게 되었으므로, 수만이 고깃간 주인을 속여 많은 돈을 받아 났다는 ③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수만은 돈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는 문기의 질문에, “염려 없어. 나 하는 대로만 해.”라고 답하며 거스름돈을 쓰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다.

② 문기는 수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니 자기 책임이 없다고 합리화하며, 수만은 거스름돈은 문기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 책임은 없다며 합리화하고 있다.

④ 문기는 거스름돈으로 공, 만년필, 쌍안경, 만화책을 사고 활동사진 구경을 했으며 군것질도 했다.

⑤ 문기는 거스름돈을 잘못 받아 당황해하고, 거스름돈을 쓰자는 수만의 제안에 머뭇거리는 등 소심하고 순진한 면모를 보인다. 반면에

수만은 문기에게 더 받게 된 거스름돈을 함께 쓰자고 제안하는 등 계산적이고 영악한 면모를 보인다.

알아두기 ‘문기’와 ‘수만’의 성격

문기	수만
• 겁이 많고 소심함 • 착하고 순수함	• 대담하고 탐욕스러움 • 약삭빠르고 계산적임
• 돈을 쓰자는 수만의 말에 머뭇거림 • 거스름돈을 쓸 생각에 양심의 가책을 느낌	• 문기에게 거스름돈을 더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줌 • 거스름돈을 함께 쓰자고 문기를 꼬임

07 인물·사건

문기는 고깃간 주인의 실수로 더 많은 거스름돈을 받게 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수만을 만나 거스름돈을 함께 쓰면서 문기는 갈등을 겪게 된다.

오답 풀이 ① 문기와 수만은 마음이 맞아 서로 어울려 거스름돈을 함께 썼다.

② 문기는 책상 서랍에 쌍안경을 숨겨 두었는데, 쌍안경은 보이지 않고 서랍 안은 뒤죽박죽으로 누군가 뒤진 흔적이 있어 두려워한다. 하지만 이 일이 문기가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된 최초의 원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③ (가)의 내용으로 보아 문기가 숙모와 작은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는 문기가 겪는 갈등과 관련이 없다.

⑤ 문기는 친구들이 아니라, 숙모와 작은아버지(삼촌)에게 들릴까 봐 쌍안경을 책상 서랍에 숨겨 두었다. 그리고 이 일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다.

배경지식 갈등의 개념과 유형

• **갈등의 개념**: 인물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얹혀 있거나 인물과 인물, 혹은 인물과 외부 환경의 관계가 대립되어 충돌을 일으키는 일을 말함

• **갈등의 유형**

내적 갈등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상반된 심리가 원인이 되는 갈등 예) 인물이 겪는 고민, 근심, 불안, 망설임 등
외적 갈등	인물이 그를 둘러싼 외부 요소와 상반된 입장과 태도를 지니고 있어 생기는 갈등 예) 인물과 인물의 갈등, 인물과 사회의 갈등, 인물과 운명의 갈등, 인물과 자연의 갈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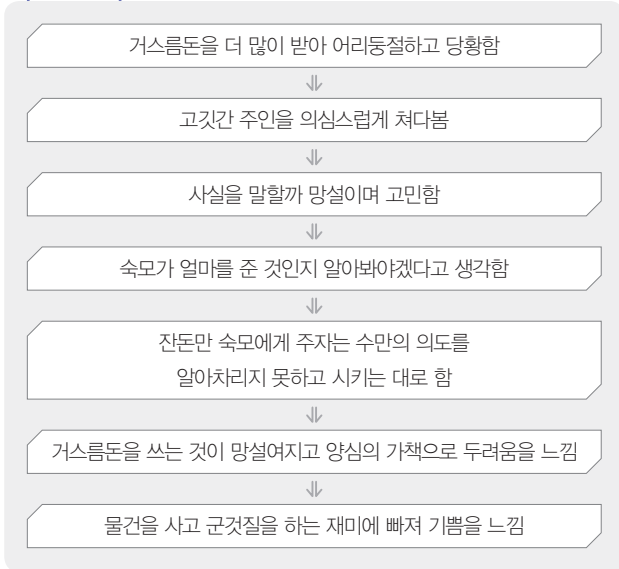
08 인물·사건

문기는 고깃간에서 거스름돈을 많이 받자 어리둥절하고 당황해한다. 이후 거스름돈을 쓰자는 수만의 제안에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걱정하지만, 이내 물건을 사고 군것질을 하는 재미에 빠지게 된다.

오답 풀이 ①, ⑤ 문기는 고깃간 주인에게 거스름돈을 더 받고 놀람과 어리둥절을 느낀다.

- ②, ③ 문기는 거스름돈으로 물건을 샀다는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 등의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차차 물건을 사는 재미인 '다른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화가 나거나 미안한 감정을 느끼지는 않았다.

알아두기 '문기'의 심리 변화



09 서술

(가)는 현재의 일이고, ㉠을 기점으로 (나)~(다)는 과거의 일을 나타낸다. 여기서 ㉠은 문기의 현재 상황이 며칠 전의 일과 관련되어 있음을 드러내며, 독자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을 통해 문기의 심리 상태는 알 수 없으므로 ②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현재-과거-현재'의 역순행적 구성 방식은 독자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사건에 흥미를 갖게 하는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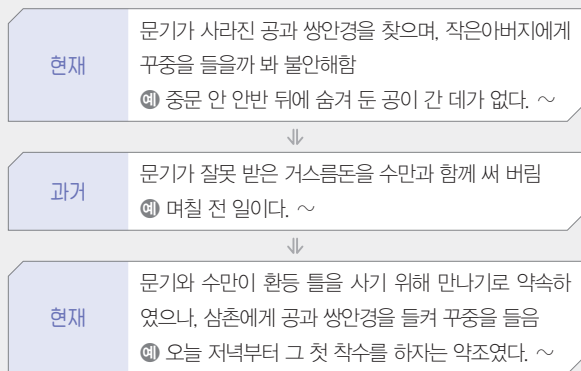
③ ㉠은 과거 회상을 시작하는 부분으로, 현재에서 과거로 이야기가 전환되는 부분이다.

④ ㉠은 역순행적 구성 중에서 '현재 → 과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⑤ 문기가 현재 찾는 공과 쌍안경은 며칠 전에 고깃간에서 잘못 받은 거스름돈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문기의 현재 상황은 ㉠의 며칠 전 일과 관련이 있다.

알아두기 '하늘은 맑건만'의 역순행적 구성

역순행적 구성은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시간이 뒤바뀌어 전개되는 구성 방식으로, '입체적 구성'이라고도 한다. 이 작품은 '현재-과거-현재'의 역순행적 구성을 보인다.



10 어휘

㉠ 앞에 제시된 내용을 미루어 볼 때, 문기와 수남은 함께 거스름돈을 쓰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는 '함께 일할 때 생각, 방법 따위가 서로 잘 어울리고'라는 의미의 '손이 맞고'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일이 익숙해지고'의 의미이다.

② '교제나 거래 따위를 중단하고'의 의미이다.

④ '부정적인 일이나 찜찜한 일에 대해 관계를 청산하고'의 의미이다.

⑤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잠시 멈추고'의 의미이다.

03 하늘은 맑건만 ②

본문 082~083쪽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삼촌 05 안마당
06 약조

실력 문제

07 ⑤ 08 ⑤ 09 ⑤ 10 ②

01 (라)에서 삼촌은 문기가 찾고 있던 공과 쌍안경을 상 밑과 무릎 밑에서 꺼내 들며 어디서 난 것들인지를 묻고 있다. 따라서 공과 쌍안경은 숙모가 아닌, 삼촌이 가지고 있었다.

02 (바)에서 문기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물 위로 공을 흘려보내는데, 멀리 떠났을 공을 생각하며 자기의 허물도 사라진 듯 후련함을 느꼈다.

03 문기는 죄책감 때문에 남은 거스름돈을 고깃간 집 안마당에 던졌지만, 수만은 이를 믿지 않고 문기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다.

04 (라)에서 문기는 공과 쌍안경이 어디서 난 건지를 묻는 삼촌에게, 잘못을 사실대로 털어놓지 못하고 수만이 준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05 (바)에서 문기는 삼거리 고깃간으로 가 남은 돈을 종이에 싸서 그 집 안마당으로 던지며 다시는 허물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06 문기와 수만은 남은 돈으로 환등 틀을 사기로 약조했는데, 더 이상 양심을 어기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문기에게 수만은 약조를 지킬 것을 요구했다.

07 인물·사건

문기는 삼촌한테 혼날까 봐 공과 쌍안경을 수만이 줬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삼촌은 문기의 말을 그대로 믿어 준다.

이는 문기에게 더 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여, (마)에서 문기의 얼굴을 벌겋게 달아오르게 한다.

- 오답 풀이**
- ① 문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또한 집안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탓에, 삼촌이 부모님을 대신해 문기를 길러왔다.
 - ② 문기는 양심을 어기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수만은 문기 혼자 돈을 쓰려 한다고 생각하며 남은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
 - ③ 삼촌은 문기의 장래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문기를 어디까지든지 공부부를 시키려 하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잘못을 꾸짖고 있다.
 - ④ “아버지는 저 모양이시구, 앞으로 집안을 일으킬 사람은 너 하나야.”라는 삼촌의 말을 토대로, 문기의 아버지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8 인물·사건

문기는 수만에게 거스름돈을 돌려주었다고 말하지만, 수만은 문기의 말을 믿지 않고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이러한 수만의 태도는 문기와 수만의 새로운 갈등을 예고함으로써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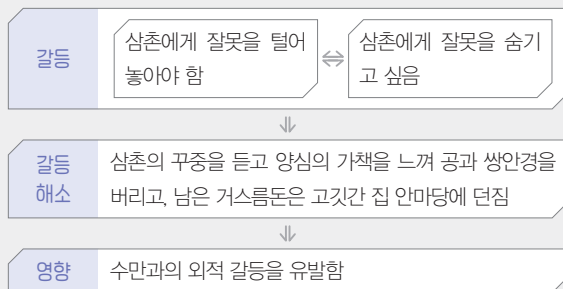
- 오답 풀이**
- ① 수만의 태도는 수만과 문기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임을 독자가 예상할 수 있게 할 뿐, 독자의 예상을 뒤집는 반전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 ② 문기는 수만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자 고개를 떨어뜨리고 울상을 짓는데, 이를 통해 문기의 내적 갈등이 다시 시작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 ③ 문기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수만의 오해가 제시되어 있지만, 이를 통해 둘 사이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지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 ④ 문기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수만이 아닌 삼촌이다.

09 인물·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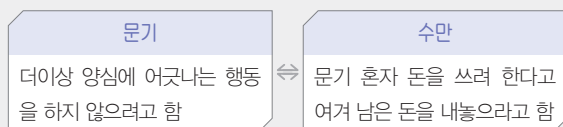
수만은 문기 혼자 돈을 쓰려 한다고 생각하면서 남은 돈을 내놓으라며 문기의 먹살을 잡는다(㉠). 이는 문기와 수만의 외적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으로, 이로 인해 문기의 내적 갈등 또한 심화된다.

알아두기 '전개' 부분에 드러난 갈등

• 문기의 내적 갈등



• 문기와 수만의 외적 갈등



10 인물·사건 + 배경·소재

문기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보기〉와 같이 공과 쌍안경을 버리고 남은 돈을 고깃간 집 안마당에 던진 후에는 홀가분함을 느끼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바)에서 문기는 고깃간 집 안마당에 돈을 던지고 물 위로 떠내려갔을 공을 생각하며 후련함을 느낀다. 따라서 〈보기〉의 문기는 자신의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사람들 몰래 공과 쌍안경을 버린 것이다.
 - ③ 다시는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문기의 태도로 볼 때, 문기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했음을 알 수 있다.
 - ④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 문기는 내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과 쌍안경을 버린 것이지, 남은 돈을 수만과 나누지 않고 혼자 쓰려고 한 것은 아니다.
 - ⑤ 문기는 고깃간 집 안마당에 쓰고 남은 거스름돈을 던졌지만, 거스름돈으로 공과 쌍안경을 산 잘못을 주인에게 털어놓지는 않았다.

알아두기 '공'과 '쌍안경'의 역할

- 문기와 수만에게 물건을 사는 재미를 줬던 물건
- 문기에게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물건
- 문기의 내적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게 하는 물건

03 하늘은 맑건만 ③

본문 084~085쪽

확인 문제

- 01 × 02 ○ 03 × 04 점순 05 일제 강점기
06 정직

실력 문제

- 07 ③ 08 ④ 09 ⑤ 10 ② 11 ③

- 01 수만은 문기가 거스름돈을 혼자 쓰려 한다고 생각해, 남은 돈을 받아 내기 위해서 문기의 잘못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 02 문기는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잘못을 소문내겠다는 수만의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숙모의 돈을 훔쳐서 수만에게 주었다.
- 03 (차)에서 숙모는 불장 안의 돈을 점순이 훔쳐 갔다고 생각했다.
- 04 점순은 숙모의 돈을 훔쳤다는 누명을 뒤집어쓰는데, 문기는 점순이 돈을 훔쳤다는 숙모의 말을 듣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값으면 고만이지’라며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였다.
- 05 ‘수신’은 바른 품성을 기르기 위해 만든 일제 강점기의 교과목이다. 따라서 ‘수신’은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일제 강점기(1930년대)임을 나타내 준다.

06 (카)에서 문기는 수신 시간에 '정직'의 의미와 중요성을 배우면서, 양심의 가책을 더욱 크게 느끼고 괴로워했다.

07 인물·사건

수만은 점점 더 과감하고 집요하게 문기를 괴롭혔지만, 소심하고 겁이 많은 문기는 수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당하기만 했다.

- 오답 풀이** ① 문기는 "김문기는 ○○○ 했다"라고 쓴 수만의 낙서를 지우는 등 수만이 자신의 잘못을 소문낼까 봐 불안해했다.
 ② 문기를 괴롭히는 수만의 행동은 점점 더 과감해지고 집요해지는데, 이로 인해 문기의 고민과 내적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④ 문기는 결국 수만의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숙모의 돈을 훔쳐서 수만에게 졌다.
 ⑤ 수만의 괴롭힘에 문기의 불안함과 긴장감은 점점 커져 갔다.

알아두기 '문기'를 괴롭히는 수만의 행동

괴롭힘의 이유	문기가 혼자 돈을 다 쓰려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함
↓	
괴롭힘의 행동	• 판장과 빈지판에 "김문기는 ○○○ 했다"라고 낙서함 • "공공공 했다지.", "질적도 했다지."라고 말하며 문기를 따라다님 • 당장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도적질했다"라고 똑바로 쓰겠다며 문기를 협박함

08 인물·사건

(차)에서 숙모는 문기에게 불량 안의 돈을 보았는지 묻긴 했지만, 문기가 학교에서 지금 왔다고 생각하고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숙모는 그 돈을 점순이 훔쳐 갔다고 생각했다.

- 오답 풀이** ① 문기의 잘못과 관련된 낙서를 하고, 잘못을 소문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만이 문기를 심하게 괴롭힐수록 문기의 내적 갈등은 심화된다.
 ② 문기는 숙모의 돈을 훔쳤다고 누명을 쓰고 쫓겨난 점순으로 인해 죄책감이 더욱 심해졌다.
 ③ (카)에서 문기가 맑고 푸른 하늘을 쳐다볼 수 없었던 이유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한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이 떳떳하게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두려워졌음을 깨닫게 된 문기의 내적 갈등은 더욱 심해졌을 것이며, 결국 자신을 '떳떳한 얼굴로 그 하늘을 쳐다볼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며 자책하게 된다.
 ⑤ 문기는 수신 시간에 거짓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정직이 얼마나 귀하고 중한 것인지를 배우면서, 그 이야기가 마치 자신의 잘못을 나무라는 것처럼 들려 괴로워했다.

알아두기 '문기'의 내적 갈등의 심화

• 점순이 숙모의 돈을 훔쳤다는 누명을 씌 • 수신 시간에 '정직'에 대해 배움
↓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을 심하게 느끼게 됨
↓
잘못을 저지르기 전의 떳떳한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짐

09 인물·사건

(카)에는 수신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내적 갈등이 심화된 문기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⑤는 이와 같은 내적 갈등의 예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③ 인물과 인물 사이의 외적 갈등에 해당한다.
 ② 인물과 사회 사이의 외적 갈등에 해당한다.
 ④ 인물과 자연 사이의 외적 갈등에 해당한다.

10 인물·사건 + 어휘

문기는 '정직'에 대해 배우고 있는 수신 시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마치 그 내용이 자신을 나무라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나타내는 속담으로는 '지는 죄가 있으면 자연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여짐'을 뜻하는 ②가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알은수로 남을 속이려 한다는 말이다.
 ③ 쉬운 일이라도 협력하여 하면 훨씬 쉽다는 말이다.
 ④ 강한 자들끼리 싸우는 통에 아무 상관도 없는 약한 자가 중간에 끼어 피해를 입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한다는 말이다.

11 인물·사건 + 주제

㉔는 문기가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한 것이다. 또한 점순이 누명을 쓴 것은 숙모가 그렇게 생각해 벌어진 일이지, 문기가 누명을 뒤집어씌운 것이 아니다.

03 하늘은 맑건만 ④

본문 086~087쪽

확인 문제

- 01 ○ 02 × 03 × 04 ○ 05 하늘
 06 교통사고 07 갈등, 정직

실력 문제

- 08 ② 09 ⑤ 10 ④ 11 ④

01 죄책감에 시달리던 문기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 위해 담임 선생님의 집을 찾아가다.

02 문기는 죄책감으로 무거운 마음 때문에 자동차 소리를 듣지 못하다가 사고의 순간에서야 자동차 소리를 듣는다.

03 (거)에는 문기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내용과 고백을 한 이후의 문기의 심리 상태가 제시되어 있을 뿐, 문기의 이야기를 들은 후 삼촌의 반응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삼촌에게 잘못을 털어놓고 홀가분해진 문기의 모습으로 볼 때, 삼촌이 문기를 엄하게 꾸짖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04 문기는 삼촌에게 그동안 저질렀던 잘못을 털어놓고 마음과 몸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05 잘못을 털어놓기 전의 문기는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을 심하게 느껴 맑은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런 문기는 잘못을 저지르기 전의 멍멍한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06 문기는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정신을 잃었다.

07 결말 부분인 (거)에서는 문기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통해, '바르고 정직하게 살자.'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08 인물·사건

(파)에서 문기는 잘못을 털어놓기 위해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지만, 학교에서의 엄하고 딱딱한 모습과는 달리 선생님이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자 오히려 말문이 열리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문기는 삼촌에게 그동안의 잘못을 모두 자백한 후에 몸과 마음이 가볍고 즐거움해짐을 느꼈다.

③ 문기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자신의 잘못 때문에 받은 벌이라고 여겼다.

④ (타)에서 친구들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즐겁게 놀지만, 문기는 죄책감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⑤ (거)에서 죄책감 때문에 맑은 하늘을 쳐다볼 수 없었던 문기는 마침내 하늘을 멍멍이 마음껏 쳐다볼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잘못을 털어놓은 문기는 양심을 회복하고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알아두기 내적 갈등의 해소로 인한 '문기'의 심리 변화

내적 갈등의 해소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그동안의 모든 잘못을 삼촌에게 자백함
↓	
문기의 심리 변화	• 마음속의 어둠이 사라지며 맑아짐 • 몸과 마음이 가볍고 즐거움해짐 • 맑은 하늘을 멍멍이 마음껏 쳐다볼 수 있게 됨

09 배경·소재 + 주제

제목 '하늘은 맑건만'은 정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맑고 깨끗한 하늘을 멍멍이 바라볼 수 없는 문기의 상황과 대조되는 것으로, 정직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맑은 하늘'은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했던 문기의 심리 상태와 대조되는 표현이다.

② 문기의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삶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을 뿐, 타인에 무관심한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③ 이 작품의 주인공인 문기는 소년으로, 맑은 하늘처럼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정직한 마음을 회복하고 싶어 한다. 이미 어린아이인 문기가 순수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문기는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함'이라는 '권선징악(勸善懲惡)'의 의미처럼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이 작품의 주제는 아니다.

알아두기 제목 '하늘은 맑건만'의 의미

'하늘'은 변함없이 맑고 푸른 모습을 지닌 소재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양심을 의미한다. 문기는 죄책감 때문에 맑은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작품의 제목인 '하늘은 맑건만'은 깨끗한 하늘처럼 '양심을 지키며 정직하고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는 주제를 담고 있다.

문기의 마음	하늘
• 죄책감에 어두운 마음 • 순수하지 못함 • 양심에 어긋나게 행동함	• 죄책감이 없는 멍멍한 마음 • 맑고 깨끗하며 순수함 • 정직과 양심을 의미함

10 인물·사건

고깃간 주인은 문기가 건넌 일 원을 십 원으로 착각하고 거스름돈을 많이 내어 주었던 것이다. 따라서 문기가 거스름돈을 더 받기 위해 일부러 고깃간 주인을 속인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문기는 공과 쌍안경을 버린 후에, 쓰고 남은 거스름돈을 종이에 싸서 고깃간 집 안마당에 던졌다.

② 고깃간 주인은 일 원을 십 원으로 알고 거스름돈을 잘못 거슬러 주었는데, 문기는 이를 돌려주지 않고 수만과 함께 공, 만년필, 쌍안경, 만화책 등을 사고 군것질을 했다.

③ 문기는 당장 남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문기의 잘못을 소문내겠다는 수만의 협박을 견디지 못해 불장 안의 숙모 돈을 훔쳐서 수만에게 주었다.

⑤ 삼촌은 문기가 거스름돈으로 산 공과 쌍안경을 발견하고 그 출처를 묻지만, 문기는 수만이 준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11 인물·사건 + 서술 + 주제

문기는 삼촌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양심을 회복하며 내적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 따라서 문기의 잘못으로 일어난 수만과의 외적 갈등 또한 해소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주인공인 문기는 그동안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성장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② 결말 부분에는 문기의 자백을 들은 삼촌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 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독자의 궁금증과 흥미를 유발한다.

③ 이 작품은 문기와 같이 평범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우리 주변에서 있을 만한 경험을 사건으로 제시하여, 독자의 공감과 성찰을 이끌어 낸다.

⑤ 이 작품에서는 사건과 갈등 진행 과정에 따른 문기의 심리 변화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 독해 체크

본문 088쪽

- ① 거스름돈 ② 누명 ③ 삼촌 ④ 가책 ⑤ 계산
⑥ 엄격 ⑦ 내적 ⑧ 과거 ⑨ 죄책감 ⑩ 정직

+ 어휘 체크

본문 089쪽

- 1 (1) 필시 (2) 약조 (3) 약과
2 (1) ㉠ (2) ㉡ (3) ㉢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전후 소설

성격 사실적, 향토적, 의지적, 상징적

주제 민족의 수난과 그 극복 의지

특징

- 부자(父子)가 겪는 수난을 통해 민족의 시대적 아픔을 드러냄
- '외나무다리'와 같은 상징적 소재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냄
- '현재 - 과거 - 현재'의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취함

확인 문제

01 × 02 ○ 03 전사, 총알 04 고등어

실력 문제

05 ② 06 ① 07 ③ 08 ⑤

- 01** 이 작품은 아버지와 아들의 2대에 걸친 수난을 통해,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역사를 형상화한 소설이다. 아버지인 만도는 일제 강점기에 강제 징용을 나가 한쪽 팔을 잃었고, 아들인 진수는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한쪽 다리를 잃고 돌아온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만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 02** 이 작품의 제목이 '수난시대'임을 고려할 때, 전쟁에서 갑자기 돌아오는 아들이 병원에서 나온다는 것은 강제 징용에서 팔을 잃은 만도처럼, 진수에게도 불행한 일이 생겼음을 암시하는 복선이라고 볼 수 있다.
- 03** (가)의 '전사'와 (나)의 '총알'은 6·25 전쟁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04** 만도는 정거장으로 가기 전에 장거리에 들러 아들 진수에게 먹일 반찬으로 고등어 한 손을 산다. 따라서 '고등어 한 손'은 아들에 대한 만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05 서술 + 주제

(가)~(라)에는 주인공인 만도의 내면 심리와, 만도의 안타까운 처지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까지 제시되어 있다. 이로 보아,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는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경상도 시골의 작은 마을이다.
 ③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일제 강점기부터 6·25 전쟁 직후까지이다.
 ④ 만도와 진수 부자의 2대에 걸친 수난을 통해, 우리 민족이 겪었던 시대적 아픔을 드러낸다.
 ⑤ (가)의 시작 부분에서 '진수가 돌아온다.', '살아서 돌아온다.', '우리 진수는 ~ 오늘 돌아오는 것이다.'와 같이 '돌아온다.'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아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만도의 기쁨을 강조하고,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06 인물·사건

(가)~(라)는 현재의 시점으로, 6·25 전쟁에서 돌아오는 것은 만도가 아니라 아들 진수이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만도가 과거 일제 강점기 때 강제 징용에 끌려갔다가 사고를 당해서 한쪽 팔을 잃은 사연이 나온다.

오답 풀이 ⑤ '정거장 대합실'은 아들 진수를 기다리는 현재의 시점에서, 만도가 징용에 끌려갔다가 팔을 잃게 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로, 과거 회상의 매개체가 된다.

알아두기 작품의 시대적 배경

과거 회상 부분	현재 시점 부분
만도가 강제 징용에 끌려갔던 일제 강점기	진수가 참전했던 6·25 전쟁 직후

07 인물·사건

(가)~(라)에서 만도가 서운한 감정은 느끼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②, ⑤ 만도는 아들이 돌아온다는 기대감으로 기쁨과 설렘을 느낀다.

④ 만도는 아들이 병원에서 나온다는 말에 혹시라도 크게 다친 것은 아닌지 불안해한다.

08 서술

⑦은 아들 진수를 만날 기대감에 부풀어 있으면서도 만도가 내심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로, 진수에게 비극적인 일이 생겼음을 암시하는 복선의 역할을 한다.

04 수난시대 2

확인 문제

01 ○ 02 ○ 03 공습 04 다이너마이트

실력 문제

05 ⑤ 06 ② 07 ⑤ 08 ⑤

- 01** (마)~(아)는 과거 회상 부분으로, 만도가 일제 강점기에 징용에 끌려갔다가 팔을 잃게 된 사연이 제시된다.
- 02** 이 작품은 '현재 → 과거 → 현재'의 역순행적 구성 방식으로, 시점을 교차하며 서술되고 있다.
- 03** (사)에서 만도가 굴 안으로 도로 들어간 것은 비행기의 공습에 놀라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으로 굴 바닥에 엎드리고자 했기 때문이다.

04 (사)~(아)로 보아, 만도는 비행기의 공습을 피하려고 다시 굴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바람에 한쪽 팔을 잃었음을 알 수 있다.

05 인물·사건 + 배경·소재
(마)로 보아, 만도를 포함하여 백 명 남짓한 사람들이 강제 징용에 끌려갔으며,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모른 채 그저 차를 타라면 탈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06 배경·소재
(마)~(아)에서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에는 '징용, 북해도 탄광, 남양 군도, 연합군, 공습경보, 공습' 등이 있다. ②의 '정거장'은 현재에도 보편적으로 쓰이는 단어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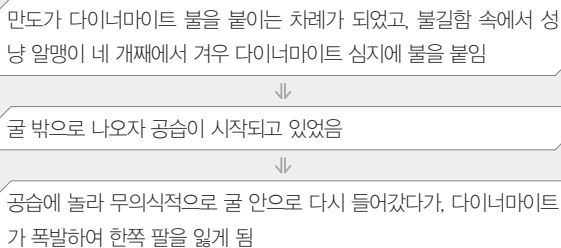
알아두기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

일제 강점기	6·25 전쟁
징용, 북해도 탄광, 남양 군도, 연합군, 공습경보, 공습 등	전사, 총알, 상이군인, 전쟁, 수류탄, 포격 등

07 인물·사건
(사)로 보아, 만도는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인 뒤 얼른 굴 밖으로 피했으나, 갑작스런 비행기의 공습에 놀라 무의식적으로 다시 굴 안으로 몸을 피했다가 다이너마이트 폭발 사고를 당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만도는 공습에 놀라 굴 안으로 몸을 피했다가 다이너마이트 폭발 사고를 당했다.
② 다이너마이트 폭발로 정신을 잃은 만도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한쪽 팔의 절단 수술이 끝난 뒤였다.
③ 만도는 자신이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댕기는 차례에 폭발 사고를 당했다.
④ (바)와 (사)를 통해 만도는 사이렌이 미처 불기도 전에 비행기가 산 등성이를 넘어 공습하던 순간 한쪽 팔뚝을 잃었음을 알 수 있다.

알아두기 '만도'가 팔을 잃게 된 과정



08 인물·사건
문맥으로 보아, ㉠의 '그런 때'는 공습경보의 사이렌이 미처 불기 전에 비행기의 공습이 시작된 경우를 말한다. 이는 준비 없이 맞닥뜨린 공습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가장 손해가 큰 경우로 만도가 한쪽 팔을 잃은 경우 역시 이런 때에 해당한다.

04 수난시대 3

본문 094~095쪽

확인 문제

01 ○ 02 × 03 상이군인 04 주막집

실력 문제

05 ③ 06 ③ 07 ②

01 (자)의 첫 문장 속 '기차 소리'를 계기로, 서술의 시점이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기차의 기적 소리는 시점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02 (차)에서 만도가 아들에게 모진 말부터 내뱉은 것은 자신의 바극이 아들에게까지 이어진 것에 대해 느끼는 분노와 절망감 때문이다.

03 진수는 전쟁에서 한쪽 다리를 잃고 상이군인이 되어 돌아왔다. '상이군인'은 '전투나 군사상 공무 중에 몸을 다친 군인'을 말한다.

04 아들의 불행에 고통을 느끼고 아들을 차마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던 만도는 주막집에 이르러서야 아들을 돌아보았고, 주막집에서 술을 연거푸 마신 뒤에야 심리적인 안정을 조금 되찾게 된다.

05 인물·사건 + 배경·소재
(카)에서 만도가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앞장서서 걸은 것은 아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드는 슬픔과 안타까움, 분노 등의 감정으로 인해, 아들을 차마 바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06 인물·사건
㉠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본 만도가 한쪽 다리가 없는 아들 진수의 모습을 보고 놀라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 오답 풀이** ① 만도는 기적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곧 진수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대감과 설렘, 초조함과 긴장감을 느낀다.
② 만도는 진수가 나오지 않자, 진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에 불안해한다.
④ 만도는 진수가 한쪽 다리를 잃은 것에 대해 절망하며 속상해한다.
⑤ 만도는 한쪽 팔을 잃은 자신의 처지와 한쪽 다리를 잃은 아들의 처지를 생각하며 비통해한다.

07 서술
이 작품은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며 서술되고 있다. <보기>로 보아, A와 D는 만도가 진수를 기다리는 현재의 시점이고, B와 C는 만도가 강제 징용에 끌려갔던 과거의 시점이다. C는 징용에 끌려간 만도가 비극적 참사를 당하는 부분이므로, 갈등 해소와는 관계가 없다.

- 오답 풀이** ①, ③ 시간의 흐름으로만 보면, 'B → C → A → D'의 순서이다.
④ (차)에서 '꽤애크' 하고 울리는 기차 소리를 계기로, 만도가 과거를 회상하던 시점에서 다시 진수를 기다리는 현재의 시점으로 돌아오게 된다.

⑤ 한쪽 다리를 잃고 돌아온 진수를 보며, 만도는 자신이 한쪽 팔을 잃었던 것과 같은 심적인 고통을 경험한다. 만도는 자신이 겪었던 비극이 아들에게도 대를 이어 이어진 것에 대해 분노와 절망감을 느낀다.

04 수난시대 4

본문 096~097쪽

확인 문제

01 × 02 ○ 03 논두렁길 04 외나무다리

실력 문제

05 ① 06 ⑤ 07 ④

01 진수가 한쪽 다리를 잃게 된 것은 전쟁 중에 수류탄 파편에 맞았기 때문이다.

02 (파)에서 만도는 앞으로 살아갈 일을 걱정하는 진수를 위로하면서 서로가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협력하면서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03 (파)에서 주막을 나선 만도와 진수 부자는 '논두렁길'을 함께 걸으면서 서로의 처지에 대해 이해하고, 함께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04 이 작품에서 '외나무다리'는 만도와 진수에게 닥친 현실의 시련과 고난을 상징함과 동시에, 우리 민족이 극복해야 할 시련을 상징한다. 또한 작품 속의 인물들이 수난을 극복하며 살아갈 것임을 보여 줌으로써, 민족 수난과 그 극복 의지라는 작품의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강조한다.

05 배경·소재 + 주제

(거)의 '외나무다리'는 만도와 진수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을 상징하지만, 서로 도우며 다리를 건너는 부자의 모습을 통해 고난과 시련에 대한 극복 가능성을 암시하는 역할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나무다리'는 절망적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② 작가는 '외나무다리'를 통해 민족 수난과 그 극복 의지라는 작품의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③ '외나무다리'는 만도와 진수, 나아가 우리 민족의 시련의 공간이자, 수난 극복의 현장이다.

④, ⑤ 만도와 진수가 서로 화합하여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모습을 통해, 부자가 내적·외적 갈등을 해소하고 앞으로 서로 도우며 살아갈 것임을 알 수 있다.

06 배경·소재 + 서술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만도와 진수 부자로부터 시선이 원경으로 멀어지며, '용머리재'가 이들을 바라보는 것으로 작품을 끝맺고 있다. 마치 영화의 마지막 장면 같은 서술을 통해

독자에게 여운을 남기고, 수난을 극복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생명력과 의지에 대한 경외감을 불러일으킨다.

오답 풀이 ① 만도와 진수 부자는 '논두렁길'을 함께 걸으며 대화를 통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함께 수난을 극복할 의지를 다지게 된다.

② '고등어'는 진수에 대한 만도의 애정이 담긴 소재이자, (하)에서 소변을 봐야 하는 만도를 불편하게 만드는 소재이다.

③ 진수는 '수류탄 쪼가리'에 맞아 한쪽 다리를 잃게 되었다.

④ '아버지의 굵은 목줄기'는 수난 극복에 대한 만도의 강인한 의지와 생명력을 드러낸다.

07 인물·사건

만도는 진수를 업고, 진수는 만도가 들고 있던 고등어를 들고 서로 협력하여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장면은 2대에 걸쳐서 수난을 당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도우며 현실을 극복해 나갈 것임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따라서 진수가 만도를 언짢아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알아두기 '외나무다리'의 의미와 역할 및 작품의 창작 의도

작품의 결말

만도와 진수 부자가 서로를 도우며 '외나무다리'를 건넌



'외나무다리'의 의미와 역할

- 한쪽 팔이 없는 만도와 한쪽 다리가 없는 진수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의 공간
- 만도와 진수가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소재
- 민족의 시련과 고난의 공간이자, 수난 극복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소재
- 만도와 진수가 역경을 딛고 시련을 이겨 내리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소재
- 인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인물들을 화합시켜 주는 매개체



작품의 창작 의도

-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역사로 인한 상처와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 의지적인 모습을 표현하고자 함
-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이 우리 민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서로 힘을 합쳐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고자 함

+ 독해 체크

본문 098쪽

- ① 징용 ② 수류탄 ③ 징용 ④ 외나무다리 ⑤ 극복
⑥ 다이너마이트 ⑦ 수류탄 ⑧ 의지적

+ 어휘 체크

본문 099쪽

- 1 (1) 절단 (2) 노상 (3) 공연히
2 (1) ㉠ (2) ㉡ (3) ㉢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풍자 소설

성격 냉소적, 풍자적, 비판적, 고발적

주제 시대와 상황에 따라 빠르게 변신하는 기회주의자의 삶에 대한 비판

특징

- 일제 강점기, 소련군 주둔 시기, 6·25 전쟁 이후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함
- 급변하는 시대에 재빠르게 대응하는 인물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기회주의자의 삶을 풍자함
- 현재 시점에서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교차적으로 서술함

확인 문제

01 × 02 × 03 친일파 04 일본어

실력 문제

05 ③ 06 ② 07 ⑤ 08 ④

01 이 작품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전지적 위치에서 주인공의 말과 행동은 물론, 사건의 속사정과 인물의 심리까지 전달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02 (가)는 1945년 팔월 하순, 즉 광복 직후의 상황이지만 앞부분의 줄거리를 참고하였을 때, (가)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에 벌어진 일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6·25 전쟁 이후이다.

03 '친일파'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을 지지하고 따른 무리를 뜻하는 말로, 일제 강점기에 당시의 권력인 일본을 좇았던 이인국의 행적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4 '국어 상용의 가'라는 액자는 일제 강점기 때 이인국이 적극적으로 친일을 통해 받은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국어'는 일본어를 가리킨다.

05 **배경·소재 + 서술 + 주제**

이 작품은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역순행적 구성을 보이지만, ③과 같이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 있는 액자 소설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 말부터 8·15 광복, 1950년대 6·25 전쟁 전후를 배경으로 한다.

② 이 작품은 6·25 전쟁 이후의 시점인 현재에서 일제 강점기인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순행적 구성을 보인다.

④, ⑤ '개뽀뽀'는 영어의 '캡틴(captain)'에 해당하는 러시아어 '개뽀뽀'으로, 해방 후 북한에서 '우두머리, 최고'의 뜻으로 쓰인 말이다. 이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살아남은 이인국의 태도를 암시하고 풍자한 것이다.

알아두기 「개뽀뽀 리」의 역순행적 구성

현재	미국행을 위해 브라운 씨를 만나러 가며 회중시계를 봄
과거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붙어 처세함
현재	미국 대사관으로 가는 자동차 안에서 신문을 봄
과거	해방 직후 소련에 붙어 처세함
현재	브라운 씨에게 선물 공세를 하여 미국행을 성사시킴

06 인물·사건

(라)에서 이인국은 사람들이 소련군의 탱크 부대를 보고 목청이 터지도록 만세를 부르는 것과 달리, 급변한 상황에 어색해하며 자신에게 닥쳐올 일을 걱정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⑤ (가)에는 해방 이후 자신이 저지른 친일 행위 때문에 죄값을 치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두려워하는 이인국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③ (라)의 '그는 자기의 거동을 주시하지나 않나 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를 통해,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지 걱정하는 이인국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④ (나)의 '어제 저물녘에 그것(친일파를 타도하지는 벽보)을 처음 보았을 때의 전율이 되살아왔다.'를 통해 알 수 있다.

07 인물·사건

①에서 이인국이 불안과 초조를 느끼는 이유는 일제 강점기에 친일했던 민족 반역자들을 찾아 벌주고자 하는 내용의 벽보를 보고, 자신 또한 친일 행위로 인해 죄값을 치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친일 행위를 했던 이인국은 해방의 감격을 만끽할 수 없는 입장이다.

②, ④ 춘석과 눈이 마주친 일과 북쪽에 소련군이 들어온다는 사실은 이인국에게 꺼림칙하고 혼란스러운 일이라는 했지만, 잠을 못 잘 정도의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끼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③ 친일을 했던 이인국의 입장에서 일본군이 떠나는 것이 두려운 일이지, 그들이 떠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또한 일본군이 아직 다 떠나지는 않았다는 내용은 이 작품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08 배경·소재

액자 틀에 담겨 있던 종잇장에 적힌 '국어 상용의 가'라는 문구는 '국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집'이란 뜻으로, 여기서 말하는 '국어'란 일제 강점기에 사용을 강요하던 일본어를 말한다. 따라서 이런 문구가 적힌 액자를 집에 걸어 놓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시 이인국 박사의 친일 행적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이인국은 벽장문을 열고 안쪽에 손을 뻗쳐 액자 틀을 고집어낸 후, 액자 틀 뒤를 열어 '국어(國語) 상용(常用)의 가(家)'라고 적힌 두꺼운 모조지를 꺼내어 꼼꼼히 찢었다.

③ '이 종잇장 하나만 해도 일본인과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몇몇한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국어 상용의 가'라는 종잇장은 이인국의 친일 행위를 보여 주는 것이므로, 이인국은 자신의 친일 행적을 지우기 위해 이를 꼼꼼히 찢은 것이다.

05 해배판 리 2

본문 102~103쪽

확인 문제

01 ○ 02 × 03 소련 04 시계

실력 문제

05 ④ 06 ⑤ 07 ⑤

01 (마)는 6·25 전쟁 이후인 현재 시점이고, (바)~(아)는 소련군 주둔 시기~6·25 전쟁 중인 과거로, (마)는 (바)~(아)와 비교할 때 시간적 순서가 나중이다.

02 이인국의 아들이 소련 유학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스텐코프 소좌의 추천이 아닌, 스텐코프 소좌의 도움으로 요직에 있는 당 간부의 추천을 받았기 때문이다.

03 ‘노어’는 노서아어, 즉 러시아어를 뜻하는데, 이 시기에는 러시아가 소련이었다. 이로 보아, 이인국이 아들에게 노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한 이유는 결국 소련군 주둔 시기라는 시류(그 시대의 풍조나 경향)에 편승(세태나 남의 세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거둠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하여 살아남기 위해서이다.

04 (카)에서 이인국은 소련군 병사가 훔치려는 자신의 시계를 어떻게든 지키고 싶어 한다. 이를 통해 이인국의 시계는 그의 분신과도 같은 소중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05 인물·사건 + 서술
이 작품은 역순행적 구성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재배열하면, (차)~(카): 소련군 주둔 시기 / (바)~(아): 소련군 주둔 시기부터 6·25 전쟁 중 / (마), (자): 6·25 전쟁 이후의 현재 시점이다.

06 서술
이 작품은 작가(서술자)가 전지적인 위치에서 인물의 행동과 심리까지 모두 전달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또한 풍자와 비판의 대상인 주인공(이인국)에 대해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②, ③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④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07 인물·사건 + 서술 + 주제
[A]는 일제 강점기 친일 행적을 바탕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던 이인국이 이번에는 소련군 주둔 시기에 편승해 출세를 위해 아내의 반대에도 아들의 소련 유학을 결정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 이인국의 자기중심적이고 출세 지향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인국은 아들의 소련 유학에 대해 불안정하고 예민한 정서를 내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차 있다.

② 이인국의 말투는 단호하지만 폭력적이지는 않다.

③ 이인국은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으므로, 운명에 순응하는 체념(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함)적인 태도와는 반대되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④ 무슨 세상이 되든 할 대로 해 보자는 이인국에 말에서 과거에 대한 집착이 아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삶의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이인국의 기회주의적 면모를 엿볼 수 있다.

05 해배판 리 3

본문 104~105쪽

확인 문제

01 ○ 02 × 03 식민지 백성 04 혹

실력 문제

05 ② 06 ④ 07 ③

01 (타)의 “친일파, 민족 반역자, 반일 투사 치료 거부, 일제의 간첩 행위…….” / 이걸 너무도 어마어마한 죄상이다.’를 통해 이인국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고,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알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02 (파)에서 감방에 갇힌 이인국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조차, 스텐코프 소좌의 표정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감방에서 나갈 희망을 품고 있다.

03 (파)의 ‘그럼, 어떤단 말이야. 식민지 백성이 별수 있었어.’에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 즉 친일 행적에 대한 자기변명을 합리화하는 이인국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04 이인국이 감방에서 완전히 풀려날 기회로 포착한 것, 즉 ‘기적의 예시’는 스텐코프의 ‘오리알만 한 혹’이다.

05 인물·사건
친일 행적으로 죽을 수도 있었던 이인국은 소련군 장교인 스텐코프의 혹 제거 수술에 성공하고, 그의 신임을 얻음으로써 감방에서 풀려날 기회를 얻게 된다.

오답 풀이 ①, ⑤ 노어책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여 익힌 노어와 당사를 통해 스텐코프와 친해진 것은 이인국이 스텐코프의 혹 제거 수술을 하게 되는 기회를 잡게 해 주었다.

③ 이인국이 감방 속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은 것은 주변 상황의 변화를 민감하게 살피기 위해서이다.

④ 이인국은 복막염 수술을 한 소련군 환자의 실을 뽑는 옆에 온 스텐코프에게 혹 제거 수술을 제안하여 그 기회를 잡기는 했지만, 소련군 장교의 복막염 수술을 성공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6 인물·사건 + 주제
‘꺼배판’은 ‘우두머리, 최고’라는 뜻이므로 ㉠ ‘꺼배판 리’는 자신의 혹을 성공적으로 제거해 준 덕분에 이인국에 대한 스텐코프의 인식과 태도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게 하는 호칭이다.

오답 풀이 ③, ⑤ 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까뻐똥 리'에는 주인공인 이인국이 출세와 권력에 눈먼 기회주의자의 최고봉임을 비판하고 풍자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

07 주제

〈보기〉는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여 창작된 작품들의 다양한 창작 의도(주제)에 대한 설명이다.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 말부터 1950년대를 배경으로, 우리 민족의 수난기에 시류에 편승하여 기회주의적 삶을 살았던 이인국이라는 인물의 삶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작품이므로, ㉠의 창작 동기와 같은 맥락에서 창작된 작품이다.

05 개뻐똥 리 ④

본문 106~107쪽

확인 문제

01 × 02 ○ 03 고려청자 04 기회주의적

실력 문제

05 ① 06 ③ 07 ③ 08 ④

01 (더)를 통해 이인국은 스텐코프의 부탁이 있느냐는 물음에 소련군에게 빼앗긴 시계를 돌려받길 원한다는 말을 했음을 알 수 있다.

02 미국인인 브라운에게 고려청자를 바치며 미국에 가서의 모든 일을 부탁하는 것을 통해, 이인국이 마지막으로 지향하는 권력이 미국임을 알 수 있다.

03 이인국은 미국행을 성사시키기 위해 브라운에게 상감 진사 고려청자 화병을 선물로 바쳤다.

04 (버)의 '나보다 얼마든지 날뛰던 놈들도 있는데, 나쯤이야…….'에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살아온 스스로의 삶에 대한 이인국의 자기 합리화가 나타나 있다.

05 인물·사건

(더)에서 집에서 통근해도 좋다는 스텐코프의 말은 이인국이 처벌을 받지 않고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② (러)에서 브라운은 이인국이 선물로 가져온 청자병을 보고 만면에 미소를 띠고 기쁨을 참지 못했다. 따라서 이인국의 선물이 매우 마음에 들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러)의 '그날의 적기와 돌려 온 시계를 생각했다.'를 통해 이인국이 빼앗겼던 시계를 돌려받았음을 알 수 있다.

④ (서)의 '차창을 거쳐 보이는 맑은 가을 하늘이 이인국 박사에게는 더욱 푸르고 드높게만 느껴졌다.'에서 계획한 일이 뜻대로 잘 풀리고 있어 즐거워하는 이인국의 마음을 알 수 있다.

⑤ (러)의 '사실 그것을 내놓는 데는 얼마간의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를 통해, 청자병이 값진 것이라 내놓기가 아까웠던 이인국의 심리를 알 수 있다.

06 배경·소재

미국에만 갔다 오면 별이라도 판 듯이 날치는 꼴이 눈꼴사나웠다는 이인국의 말을 통해, 남한에서 사회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커졌음(ㄴ)을 알 수 있다. 또한 브라운의 집에 준비한 우리 문화재와 청자병을 선물하는 이인국을 통해, 우리 문화재가 국외로 유출되던 당시의 상황(ㄷ)이 드러난다.

오답 풀이 ㄱ. 브라운과 이인국은 영어를 간혹 쓰기도 하지만, "그거, 국무성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미국에 가서의 모든 일도 잘 부탁합니다."와 같이 한국어로 대화를 하고 있다.

ㄴ. 이인국은 지금까지 권력자에게 아부하여 자신의 부와 권력을 키워온 사람으로, (버)에서 그가 한 말인 '나보다 얼마든지 날뛰던 놈들도 있는데'를 통해 이러한 사람들이 이전에도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07 인물·사건 + 어휘

이인국은 부와 권력을 좇아 재빠르게 변신하는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인다. 이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지조 없이 이편에 붙었다가 저편에 붙었다 하는 약삭빠른 사람을 비꼬아 이를 때 쓰는 속담인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와 관련이 있다.

오답 풀이 ① 사람이 지나치게 결백하면 남이 따르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② 애써 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남보다 뒤떨어져 어찌할 도리가 없이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자기는 더 큰 흉이 있으면서 도리어 남의 작은 흉을 본다는 말이다.

⑤ 시작할 때는 크게 마음먹고 훌륭한 것을 만들려고 했으나, 생각과 다르게 초라하고 엉뚱한 것을 만들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08 배경·소재

(회중)시계는 일제 강점기, 소련군 주둔 시기, 6·25 전쟁 등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이인국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것으로, 이인국의 분신과도 같은 물건임을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다.

알아두기 '회중시계'의 의미와 역할

의미	- 이인국의 분신. 그가 걸어온 인생의 역정을 보여 줌 - 일제 강점기에 제국 대학을 졸업하며 받은 수상품으로, 일왕에게 받았다는 점에서 그의 반민족적 사고가 단적으로 드러남
역할	현재에서 과거로 이동할 때 매개 역할을 함(과거 회상의 매개체)

+ 독해 체크

본문 108쪽

① 소련군 ② 혹 ③ 미국 ④ 북한 ⑤ 소련
⑥ 미국 ⑦ 기회 ⑧ 회중시계 ⑨ 문화재 ⑩ 풍자

+ 어휘 체크

본문 109쪽

1 (1) 섬광 (2) 우격다짐 (3) 엄습
2 <가로> ① 전율 ② 타도
<세로> ① 전공 ③ 방도

갈래 단편 소설, 농촌 소설, 참여 소설

성격 사실적, 현실 고발적, 저항적

주제 소외된 사람들의 비참한 삶과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저항

특징

- 지식인으로 설정된 1인칭 관찰자가 조마이섬에서 일어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함
- 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 가는 사람들의 비극적인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보여 줌
- 부당한 권력과 이에 저항하는 섬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선명하게 부각함

확인 문제

01 × 02 ○ 03 낙동강 04 사투리

실력 문제

05 ③ 06 ④ 07 ①

01 (가)의 '이십 년이 넘도록 내쳐 붓을 꺾어 오던 내가'를 통해 '나'가 20년이 넘도록 절필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02 (가)에서 '나'는 낙동강 하류의 어떤 외진 모래톱에 관한 기막힌 사연들이 세상에 버려져 있는 데에 차마 묵묵할 도리가 없었다며, 글을 쓰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03 (가)를 통해 건우가 젊은 홀어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낙동강 하류의 외진 모래톱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나)에서 건우 어머니는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등장인물이 사용하는 사투리는 향토적·토속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며, 농촌의 실상을 현장감 있게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05 서술

'나'는 건우라는 제자를 통해 알게 된 조마이섬에 대한 이야기를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나'는 20년 전, 교사 생활을 할 때 경험했던 사건을 회상하여 서술하고 있다.

② '나'는 20년이 넘도록 절필했으나, 교사였던 시절 알게 된 조마이섬의 부조리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글을 쓰게 됐다는 점에서 고발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이 작품은 현재의 '나'가, 20년 전 교사였던 시절의 이야기를 회상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따라서 외부 이야기(현재) 속에 내부 이야기(20년 전)가 전개되는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이 작품의 서술자인 '나'는 건우를 통해 알게 된 이야기를 관찰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알아두기 서술자의 특징

이 작품에서 '나'는 건우의 담임 선생님이자, 작가로 조마이섬에 대한 이야기를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다.

'나'

-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서술자
- 조마이섬과 관련된 사건에 이해관계가 없음



'나'의 특징

- 사건의 관찰자이자 고발자의 역할을 함
- 중학교 교사로 있던 20년 전의 이야기를 회상하여 전달함
- 자신이 관찰한 바를 서술하여 독자들에게 객관성과 현실성을 느끼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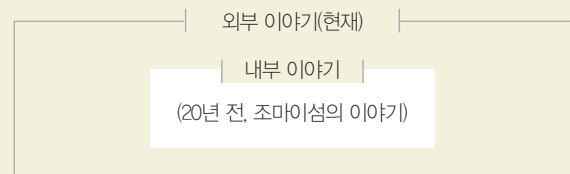


효과

권력자들과 섬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부각시킴

배경지식 액자 소설의 개념과 특징

- 액자 소설의 개념: 소설에서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 있도록 구성하는 것을 말함



액자 소설의 특징

- 독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함
- 내부 이야기를 객관화하여 이야기의 신빙성을 더할 수 있음
-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에 다른 시점을 설정하여 다각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할 수도 있음

06 인물·사건

건우가 읽은 「내가 본 국도」에 등장하는 섬사람들은 실생활과 관련이 없는 정치를 위하여, 선거 때가 되면 정당에서 보낸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 지정해 준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

오답 풀이 ①, ② (라)에서는 섬사람들에 대해 '조국의 사랑'이라곤 받아 본 일 없이 헐벗고 배우지 못한 그들'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그들이 나라의 보호와 관심을 받지 못했으며, 가난했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③ (라)의 '선거 때가 되면 소속 육지에서 똑딱선을 가지고 섬 백성을 모시러 오는 알뜰한 정당이 있어 ~ 지정해 주는 기호 밑에 도장을 찍어 주고 그 배에 실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조국의 사랑'이라곤 받아 본 일 없이 헐벗고 배우지 못한 그들의 아들들이 먼저 ~ 군인이 되어 갔다는 것'을 통해, 국가로부터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고 군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07 인물·사건

건우네 가족은 선조 때부터 조마이섬에서 살았지만 땅의 소유권은 나라, 국회 의원 등으로 계속 바뀌어 건우네 가족은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

오답 풀이 ② (나)에서 '나'는 건우 어머니에게 가정 사정과,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재산 등에 대해 질문했다고 하였다.

- ③ 건우 어머니는 건우 할아버지가 ‘개깃배(고깃배)’를 타신다고 하였다. 즉 건우 할아버지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나’는 건우의 글을 통해 건우의 가정 형편에 대해 대략 알고 있다고 하였다.
- ⑤ 건우 어머니는 ‘나’에게 건우가 길이 먼 데다 나룻배까지 타야 해서 지각이 많아 죄송하다고 하며, 아버지가 없으니 그런 점을 생각해서 잘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06 모래톱 이야기 2

본문 112~113쪽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 05 분노
06 을사 보호 조약

실력 문제

07 ① 08 ② 09 ④

- 01 ‘나’는 건우의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로, 건우네 가정 방문을 갔다가 건우가 쓴 글을 통해 조마이섬의 사람들이 소유권 문제에서 소외되어 왔던 상황을 알게 되었다.
- 02 (마)에서 ‘나’는 건우에게 언젠가는 조마이섬 사람들이 땅의 주인이 될 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조마이섬 사람들이 섬의 소유권을 가지게 될 것을 기대하며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억울하고 괴로워하는 건우가 희망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 한 말이다. 오히려 ‘나’는 유력자들에게 의해 소유권이 바뀌어 온 조마이섬의 역사를 알고, 이런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 비판적·저항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알아두기 '조마이섬'의 의미

조마이섬

- 작품의 공간적 배경으로,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외진 모래톱임
- 선조 때부터 거주해 온 섬사람들이 주인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유력자가 소유하고 있음

현실의 부조리함을 보여 줌

- 03 (바)에서 건우 할아버지가 ‘정말정말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들었다며 ‘나’의 손을 댄싸는 행동을 통해, 건우 할아버지가 ‘나’에게 우호적임을 알 수 있다. 건우 할아버지가 불만을 지니고 있는 대상은 ‘나’가 아니라, 국회 의원 등의 사회 지도층이다.
- 04 (사)에서 건우 할아버지가 “처음부터 없기싸 없었겠소마는 죄다 뺏기고 말았지요.”라고 말한 것을 통해, 조마이섬 사람들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자기 땅을 갖고 있었으나 외부 세력으로 인해 이를 빼앗기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05 건우 할아버지는 ‘나’에게 조마이섬의 소유권에 얽힌 내력을 들려주며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권력자들을 “적일 놈들.”이라고 표현하며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 06 (사)의 내용을 통해 1905년에 맺은 ‘을사 보호 조약’을 계기로 토지 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조마이섬 사람들이 땅을 빼앗기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07 인물·사건

자연적으로 형성된 조마이섬의 실질적인 주인은 섬사람들이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에 일제가 농토를 빼앗아 동척, 일본인들에게 불하하여 일본인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그 이후에는 국회 의원이나 하천 부지의 매립 허가를 얻은 유력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오답 풀이

② ‘청년단’은 윤춘삼과 갈등을 일으켰던 단체로, 조마이섬의 소유권을 차지했던 유력자들과는 관련이 없다.

③ ‘송아지 뺨갱이’는 윤춘삼의 별명으로, 윤춘삼은 일제가 불하하는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동척과 일본인이 아닌 조마이섬 사람이다.

④ 모래톱 사람들, 즉 조마이섬 사람들은 섬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선조들로부터 땅을 물려받았지만 점차 권력자들에게 땅을 빼앗겼다.

⑤ 국회 의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이후에 하천 부지의 매립 허가를 얻은 유력자에게 소유권이 다시 넘어갔다.

알아두기 '조마이섬'의 소유권 변천 과정

대상	소유권 변천 과정	시기
선조들	낙동강 물이 만들어 줌	예전
↓		
갈발새 영감 등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음	일제 강점기 이전
↓		
동척, 일본인	일제가 강제로 동척, 일본인들에게 불하함	일제 강점기
↓		
국회 의원, 유력자	친일 행적이 있는 국회 의원 등에게 해방 이후 넘어갔으리라 추정함	해방 이후

08 인물·사건

①은 부당한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지키고 살아온 섬을 빼앗아 간 사람들에게 대한 분노와 원망이 담긴 표현이다.

09 인물·사건 + 배경·소재 + 서술

건우 증조부(S#98)와 건우 할아버지(S#99)는 자신들의 땅으로 여겼던 조마이섬의 소유권이 부당하게 다른 곳으로 넘어간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으며, 나머지 인물들은 그의 말에 동조하거나 경청하고 있다. 즉 S#98~99에는 인물 간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으며, 소유권 이전에 찬성하는 인물 또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S#98에서 ‘길게 펼쳐진 조마이섬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 섬의 전체적인 지형을 카메라에 담는 E.L.S. 기법을 쓰고 있다.

- ② 일제 때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를 수탈한 사실이 작품에서는 서술자의 생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S#99에서는 건우 선생님의 대사로 제시되어 있다.
- ③ 내일까지 섬에서 나가라는 '시커먼 놈들'의 요구에 반발하는 건우 할아버지의 대사를 통해, 관객들은 이후에 생길지 모를 갈등 상황에 대해 긴장감을 느낄 수 있다.
- ⑤ S#98에서는 건우 증조부가 "대명천지에 이룰 수는 없는 기대!"를 외치고, S#99에서는 건우 할아버지가 역시 같은 말을 외치며 자신들의 억울함을 표출하고 있다.

- ⑤ 홍수는 조마이섬 사람들을 더욱 큰 위기에 빠지게 한다는 점에서, 조마이섬 사람들의 힘들고 비참한 삶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알아두기 '조마이섬'을 위협하는 요인

조마이섬을 위협하는 요인은 자연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적 요인	폭풍우로 인한 홍수
사회적 요인	외부 유력자들의 횡포
↓	
홍수가 끝나도 외부 유력자들과의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갈등이 중심이 됨	

06 모래톱 이야기 3

본문 114~115쪽

확인 문제

01 × 02 ○ 03 외면 04 홍수 05 건우

실력 문제

06 ④ 07 ② 08 ②

- 01 (아)에서 건우 할아버지는 부조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감성적 문학 행위에 대해 '썩어 빠진 글'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 02 홍수로 인해 보릿대과 두엄 더미들이 무더기로 흘러내리고 수박, 오이, 호박 등이 떠내려오는 모습은 생존을 위협받고 삶의 터전을 상실한 민중들의 삶의 모습을 나타낸다.
- 03 (아)에서 건우 할아버지는 부조리한 현실을 외면하고 감성적 문학 행위를 하는 당대 지식인들의 비겁함과 무능함을 비판하고 있다.
- 04 '나'는 홍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을 조마이섬이 걱정되어 버스를 탔다.
- 05 (자)에서 '나'는 물에 잠겨 가는 조마이섬을 바라보며, '나룻배 통학생임더!' 하던 건우의 목소리를 떠올리고 있다.

06 배경·소재

홍수는 조마이섬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유력자들이 쌓은 엉터리 독을 대들어서 무너뜨리게 하였다. 이는 이후 조마이섬 사람들과 유력자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홍수가 조마이섬 사람들과 유력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갑작스럽게 일어난 큰 홍수는 사건 전개 과정에서 위기감과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 ② 홍수가 조마이섬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비참한 삶을 다루는 이 작품의 주제와 관련이 있다.
- ③ 자연재해인 홍수는 조마이섬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07 인물·사건 + 배경·소재

- ⑥ '낙동강 물'은 부조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지식인들을 비판하기 위해 건우 할아버지가 인용한 구절의 일부이다.
- 오답 풀이 ① 보릿고개를 넘기기가 힘들어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은 민중들의 비참한 삶의 현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 ③ 건우 할아버지가 '나'에게 써 보라고 권하는 '우리 농사꾼이나 뱃놈들의 이바구'는 현실의 실상을 알리는 글로, '썩어 빠진 글'과 대비되는 글이라 할 수 있다.
- ④ 잘 보이지도 않는 조마이섬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조마이섬에 대해 걱정하는 '나'의 심리를 짐작하게 한다.
- ⑤ 기다리는 어제 일어났던 사건, 즉 조마이섬 사람들이 독을 허물었던 소동에 대해 '나'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08 주제

건우 할아버지는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쓰인 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②는 수탈을 일삼는 탐관오리(권력자)를 '참새'에, 힘없는 민중을 '늙은 홀아비'에 빗대어 가혹한 수탈로 인한 농민의 피폐한 삶을 드러낸 글로, 건우 할아버지가 '나'에게 써 보라고 요청한 내용의 글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노래한 시이다.
- ③ 떠나는 임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시이다.
- ④ 자연 속에서의 안빈낙도(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겨 지킴)를 노래한 시이다.
- ⑤ 가을 달밤의 정취와 풍류를 노래한 시이다.

06 모래톱 이야기 4

본문 116~117쪽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독 05 학교

실력 문제

06 ③ 07 ② 08 ③ 09 ⑤ 10 ③

01 유력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마이섬에 엉터리 독을 쌓았고, 이로 인해 홍수가 난 뒤 섬사람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02 갈발새 영감은 행패를 부리는 깡패를 물속에 태질했고, 깡패가 탁류에 휩쓸리면서 살인죄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03 윤춘삼은 섬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독을 무너뜨리고 살인죄로 감옥에 가게 된 갈발새 영감이 안타까워 눈물을 흘렸다.

04 큰 홍수로 물이 불어 엉터리로 만들어 둔 독이 갑자기 터지면 섬 전체가 위협에 빠질 수 있으므로, 섬사람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독을 허물어 버린다.

알아두기 '독'을 허무는 행동의 의미

- 자신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부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조마이섬 사람들의 노력
- 조마이섬을 빼앗으려는 유력자들의 부당한 권력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

05 이 작품은 폭풍우가 끝났지만 결국 건우가 학교에 돌아오지 않았으며, 조마이섬에 군대가 정지를 한다는 소문을 전달하며 비극적인 결말로 끝맺고 있다.

06 인물·사건

갈발새 영감은 섬을 통째로 삼키려는 유력자의 무리 중 한 명을 탁류에 던져 죽게 한다. 이 일로 경찰이 갈발새 영감을 찾았을 때 “내가 그랬소!”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부조리한 현실에 저항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오답 풀이 ① 갈발새 영감은 유력자들이 쌓아 놓은 독을 허무는 등 권력자의 횡포에 당당하게 맞서 싸웠다.

② 갈발새 영감은 행패를 부리는 깡패들에게 욕을 하고 태질을 하는 등 화가 났을 때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격을 지녔다.

④ ‘살신성인(殺身成仁)’은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인(仁)을 이룬다는 말로, 부당한 권력에 맞서 섬사람들의 목숨을 지키려다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갈발새 영감의 모습을 잘 표현한 말이다.

⑤ 윤춘삼의 말에 의하면 갈발새 영감은 그동안 조마이섬을 지켜 온 사람이며, 현재에도 섬사람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부당한 권력과 맞서 싸웠음을 알 수 있다.

알아두기 '갈발새 영감'의 성격을 표현한 방법

표현상 특징

- 역센 사투리와 수식이 없는 표현
- 강인하고 의지적인 어조
- 거칠면서도 부정적인 어휘



갈발새 영감의 무뎌죽고 고집이 센 성격, 의지적이고 저항적인 성격을 형상화함

07 배경·소재

조마이섬은 삶의 터전을 가꾸면서도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민중들과, 권력을 휘두르며 땅을 소유하려는 유력자들 사이의 갈등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은 세대 간의 가치관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의 갈등이 나타난다.

③ 홍수가 끝나고 조마이섬에 군대가 정지를 한다는 점에서, 조마이섬은 현실의 모순을 극복한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④ 홍수로 인해 잠긴 조마이섬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공간이라고 말할 수 없다.

⑤ 갈발새 영감은 경찰이 찾아오자 망설임 없이 자신이 한 행동이라고 말하는 등 부조리한 현실에 저항하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지만, 자신의 지난 삶을 반성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배경지식 배경의 역할과 종류

• 배경의 역할

-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주제를 뚜렷이 드러내는 데 기여함
- 인물과 사건에 사실성과 신뢰성을 부여하고, 인물의 심리나 미래의 사건을 암시함
- 인물의 의식, 성격이나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침

• 배경의 종류

시간적 배경	행위나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계절 등
공간적 배경	행위나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 지역 등
시대적·사회적 배경	인물이 처한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상황, 역사적 사건 등

08 서술

[A]에서 작품 속 서술자인 ‘나’는 갈발새 영감이 독을 무너뜨린 사건에 대해 윤춘삼에게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서술자인 ‘나’는 [A]에서 공간의 이동 없이 한자리에서 윤춘삼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② [A]에 제시된 내용은 어제 조마이섬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것이며, 등장인물의 심리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④, ⑤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인 ‘나’의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작품 밖 서술자인 3인칭 서술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09 인물·사건 + 배경·소재 + 주제

㉔ 앞에 제시된 ‘섬사람들의 애절한 하소연에도 불구하고’를 통해 섬사람들은 갈발새 영감의 감옥살이를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결국 기약 없는 감옥살이를 하게 된 갈발새 영감을 통해 약자인 민중들이 겪어야 했던 아픔, 부당한 대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사흘 내내 역수로 쏟아지는 ‘비’는 소외된 계층인 조마이섬 사람들의 삶을 더욱 위협한다. 즉 섬사람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심화시키는 소재로 볼 수 있다.

② ‘섬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던’에서 유력자들이 독을 쌓은 이유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③ 독을 허물고 있는 갈발새 영감의 행위를 뺏어 물속에 던지는 깡패 같은 청년들의 행위는 섬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법이나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짓밟힌 민중들의 현실을 서술한 것으로, 이 작품의 핵심 내용을 집약적으로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갈발새 영감(진우 할아버지)은 처음에는 독을 허물지 못하게 막아선 유력자의 무리를 타일렀다. 하지만 청년 하나가 자신의 팽이를 빼앗아 집어 던지며 방해하자 분노가 폭발해서 그를 탁류에 던졌다.

오답 풀이 ① 갈발새 영감은 섬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과정에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갈발새 영감이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은 법의 비형평성을 보여 준다.

② 독을 허물지 않는다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섬사람들은 독을 허물 수밖에 없었다.

④ 건우는 생계를 책임지던 할아버지가 감옥살이를 하게 되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을 것이고, 이로 인해 학교에 나오지 못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⑤ '황폐한 모래톱'은 부당한 권력에 맞선 민중들의 저항이 좌절된 현실을 상징한다. 건우는 모래톱의 비극적인 상황에서 권력자의 부당함에 맞서 저항한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불의에 저항하는 삶을 살고자 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알아두기 '황폐한 모래톱'의 상징적 의미

'황폐함'의 의미

- 폭풍우로 인해 물리적인 피해를 입음
- 부당한 권력에 의해 민중들의 정신이 압박받고 훼손됨



'황폐한 모래톱'의 의미

'모래톱' 마을에서 부당한 권력에 맞선 민중들의 저항이 좌절됨(비극적인 결말)

배경지식 + '모래톱 이야기'의 문학적 성격

농촌 문학

농민과 어민이 대부분인 조마이섬에서 농촌이 처한 비극적인 상황과 생존의 어려움을 드러냄

저항 문학

유력자의 횡포에 굴하지 않고 저항하는 갈발새 영감과 조마이섬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부당한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민중의 의지를 보여 줌

사실주의 문학

작품이 창작될 당시 낙동강 인근 마을의 궁핍한 형편과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그림

+ 독해 체크

본문 118쪽

- ① 홍수 ② 군대 ③ 고발 ④ 의지 ⑤ 해방
⑥ 소유권 ⑦ 회상 ⑧ 관찰 ⑨ 갈발새 ⑩ 저항

+ 어휘 체크

본문 119쪽

- 1 (1) 탁류 (2) 처사 (3) 묵연
2 <가로> ① 매립 ② 정지
<세로> ① 매국 ③ 부지

본문 120~121쪽

07

마지막 땅 ① _양귀자

갈래 현대 소설, 세태 소설, 연작 소설

성격 세태적, 일상적, 비판적

주제 자본주의적 도시화의 세태에 대한 비판과 땅의 가치에 대한 인식

특징 • 1980년대 원미동이라는 구체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다룸
• 원미동 사람들의 소박한 삶을 사실감 있게 드러냄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농사 05 묘사

실력 문제

06 ② 07 ⑤ 08 ③

01 (라)에 제시된 “이제는 참말이지 더 이상 땅값이 오를 수가 없게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라는 박 씨의 말을 통해 과거에 비해 이 작품의 배경인 원미동의 땅값이 많이 상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02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성격과 심리까지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03 박 씨 부부는 강 노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을 팔고, 그 땅이 개발되어 동네의 땅값이 오르기를 바라고 있다.

04 강 노인은 땅의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여 농사를 지으며 땅을 지키고 싶어 한다. 반면에 땅을 팔아 이익을 얻고 싶은 동네 사람들은 여름이면 밭에서 나는 거름 냄새를 싫어한다.

05 (나)에 서술된 강 노인의 외양 묘사를 통해, 그가 소탈하고 씩씩하며 당당한 성격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알아두기 '강 노인'의 외양 묘사

강 노인의 외양 묘사

- 일 미터 팔십을 넘는 큰 키에 거대한 몸집
- 막일꾼 차림새
- 씩씩한 걸음걸이, 팔뚝의 꿈틀거리는 힘줄



특징

- 당당하며 나이에 비해 풍채가 좋고 건강해 보임
- 꾸밈이 없이 소탈하고 씩씩함

06 인물·사건 + 배경·소재 + 서술

이 작품은 역순행적 구성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지 않다. (가)~(다)는 서술을 통해 작품의 배경과 인물을 소개하고, (라)는 대화를 통해 땅에 대한 등장인물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❶ 이 작품은 1980년대 원미동을 배경으로 한다.

❸ ‘꽃샘바람’은 ‘이른 봄, 꽃이 필 무렵에 부는 쌀쌀한 바람’을 의미하므로 이 작품의 계절적 배경을 알려 주는 소재이다.

❹ 강 노인은 땅을 팔지 않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고, 박 씨는 강 노인이 땅을 팔기를 바란다.

❺ 이 작품은 평범한 원미동 사람들의 일상적이고 소박한 삶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

07 서술

강 노인은 물질적 가치보다 땅의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강 노인이 땅값이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리느라 땅을 팔지 않는 것이라는 고흥택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오답 풀이 ❶ (라)에서 강 노인이 별다른 반응이 없자 박 씨가 나서서 말하다가, 박 씨의 말이 끝나자 고흥택이 거들고 있다.

❷ 박 씨는 팔팔 올림픽 전에 북에서 쳐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불확실한 정보를 언급함으로써 강 노인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킨다.

❸ 고흥택은 경국이 할머니도 땅을 팔고 싶어 한다고 언급하며, 강 노인의 아내도 자신들과 같은 생각을 지녔음을 설득의 근거로 내세운다.

❹ 박 씨가 앞으로 더 이상 땅값이 오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강 노인에게 지금 땅을 팔아야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08 인물·사건 + 배경·소재

강 노인은 땅을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이나 삶의 원천으로 인식하는 인물로, 도시를 개발하여 이익을 얻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오답 풀이 ❶ 박 씨는 ‘똥 냄새 풍겨 주는 밭’을 개발의 대상이자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인식한다.

❷ 강 노인은 고추를 심고 푸성귀를 가꾸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큰 이익을 얻지 못한다.

❹ 땅을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으로 인식하고 땅에 근원을 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은 박 씨가 아닌 강 노인이다.

❺ (가)의 ‘나방 떼’는 공터에 불을 질러 생긴 그늘음들이 바람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모양을 빗대어 표현한 말이다.

03 강 노인은 자신이 농사를 짓는 것에 불만을 지닌 동네 사람들이 일부러 밭에 연탄재를 던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는 (바)의 마지막 문장인 ‘이곳에다 연탄재를 내던지는 ~ 강 노인도 짐작하고 있었다.’를 통해 직접 제시되어 있다.

04 강 노인은 땅을 팔아서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해 준 것을 후회하고 있지만, 강 노인의 아내는 남은 땅도 팔아서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05 강 노인은 해마다 기대한 만큼의 수확을 안겨 주는 땅 농사에 비해 자식 농사는 허망하다고 생각한다.

06 강 노인은 여름에 더러운 인분 냄새가 난다고 극성을 떠는 동네 사람들 때문에 실컷 장만해 둔 밀거름을 땅에 제대로 쓰지 못했다.

07 23통 6반 반장은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반상회에서 강 노인의 밭으로 인해 인분 냄새가 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08 배경·소재

이 작품은 도시화로 인한 개발의 바람이 불어 땅값이 들쭉이는 상황에서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과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의 갈등을 다룬 소설로,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의 형태가 변화했다는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❶ 임 씨는 욕심내던 강 노인의 가게에 세를 들지 못해 앞장을 서서 강 노인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동네 사람들은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

❷ 1980년대에는 서울 근교에까지 개발의 바람이 불어닥쳤다.

❸ 산업화·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땅의 가치나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사라져 가고 있었다.

❺ 땅을 개발하여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은 자본주의적 세태를 반영한 것이다.

알아두기 '강 노인'의 모습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가치

강 노인의 모습	사회·문화적 가치
농사짓는 밭에 연탄재를 버리는 사람들을 싫어함	⇒ •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중시함 • 자본주의적 세태에서 벗어나 정신적 가치를 중시함
씨를 뿌려 수확을 거두는 농사일을 소중하게 여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땅을 팔지 않으려 함	

09 배경·소재

㉔의 ‘연탄재’는 농작물의 수확을 안겨 주는 땅을 부식하게 만들지만, ㉔의 ‘두엄’, ㉔의 ‘오줌’, ㉔의 ‘밀거름’, ㉔의 ‘똥’은 농작물의 성장과 수확에 도움이 된다.

10 인물·사건

‘서울 것들’, ‘서울 꼬나풀들’이라는 말은 땅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땅으로 이익을 얻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07 마지막 땅 2

본문 122~123쪽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 05 자식
06 밀거름 07 반상회

실력 문제

08 ④ 09 ② 10 ③ 11 ② 12 ②

01 강 노인은 땅값에 관계없이 땅을 팔기 싫어하기 때문에, 땅값을 더 올려 준다고 해도 팔지 않을 것이다.

02 (마)에서 강 노인은 박 씨 부부가 전라도 출신인 것을 알고 있지만, 땅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를 탐탁지 않게 여겨 ‘서울 것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원미동 사람들은 밭에서 두엄 냄새가 나면 질색하며 손을 내졌는데, 강 노인은 이들을 가리켜 '본데없이 막된 것들'이라고 말한다.
- ② 원미동 사람들은 상가 주택, 단독 연립 등의 다세대 주택에서 모여 살지만, 이러한 점이 '서울 꼬나풀들'의 특성은 아니다.
- ④ (사)에 의하면 동네 사람들이 반사회를 통해 자신의 불만을 말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점이 '서울 꼬나풀들'의 특성은 아니다.
- ⑤ 강 노인의 밭 때문에 정미의 옷에 똥이 묻었지만, 강 노인이 미안해하지 않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11 인물·사건

강 노인은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인 땅을 지키고자 한다. 따라서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인물은, 땅을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여기는 동네 사람들이 아닌 강 노인이다.

알아두기 계절에 따른 '강 노인'과 동네 사람들의 갈등

동네 사람들은 여름에는 밭에서 나는 인분 냄새에 불만을 품고, 겨울에는 강 노인의 밭에 일부러 연탄재를 버린다.

	강 노인	동네 사람들
여름	오줌과 인분 등의 밀거름을 쓰고 싶음	밭에서 나는 인분 냄새를 싫어함
겨울	자신의 돈을 들여 연탄재를 치워야 하는 손해를 봄	강 노인의 밭에 몰래 연탄재를 버림

12 인물·사건 + 배경·소재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도시 개발이 이루어진 서울 근교이기 때문에 농촌에서 촬영해야 한다는 ㄷ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강 노인은 박 씨가 복덕방에 들어간 후에 한마디 내뱉은 것이므로, 큰 소리로 외쳐야 한다는 ㄹ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ㄱ. 동네 사람들이 강 노인의 밭에 연탄재를 버리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연탄 등의 소품이 필요하다.
- ㄴ. 정미 엄마는 정미의 옷에 강 노인이 밭에 뿌린 똥이 묻어서 강 노인에게 따지러 왔으므로, 몹시 화가 난 표정을 짓는 것은 적절하다.
- ㄷ. 동네 사람들은 여름에 밭에서 나는 인분 냄새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강 노인과 갈등하고 있다. 따라서 인분 냄새를 맡았을 때 얼굴을 찡그리거나 코를 막으며 냄새를 맡지 않으려는 행동의 연기는 이 작품의 상황과 잘 어울린다.

07 마지막 땅 3

본문 124~125쪽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 05 집주인
06 아내 07 고추

심력 문제

08 ④ 09 ② 10 ② 11 ④

- 01 동네 사람들은 강 노인의 땅에 번듯한 건물을 지어야 거리가 완벽해져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
- 02 (자)에서 자식들이 직공들의 월급도 못 줄 형편이라는 강 노인의 아내의 말을 통해, 강 노인의 자식들이 사업을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03 강 노인은 자식들이 돈을 벌지는 못하고 쓸 줄만 알아 뒷감당은 모두 아비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강 노인이 그동안 자식들을 경제적으로 도와 왔음을 알 수 있다.
- 04 동네에 강 노인이 땅을 판다는 소문이 퍼졌는데, 이는 강 노인의 며느리인 경국이 엄마가 반사회회에서 강 노인이 땅을 팔 모양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 05 세를 든 사람들은 집값에 별 관심이 없지만, 집주인들은 집값 상승에 관심이 많아서 강 노인이 농사를 짓는 것을 더욱 반대한다.
- 06 강 노인의 아내는 강 노인이 땅을 팔아 형편이 어려운 자식들을 도와주기를 바란다.
- 07 동네 사람들은 고추 모종을 심은 강 노인의 밭에 연탄재를 폭격하는 해코지를 했는데, 이로 인해 고추 모종의 대부분이 상하게 되었다.

08 서술

(차)에서 고추 모종이 있는 강 노인의 밭에 연탄재를 던진 동네 사람들을 '짐승의 처사', '막된 인종들'과 같이 비판하고 있지만,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제와 반대되게 말을 하는 방어적 표현을 활용하지는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강 노인의 입장과 생각을 중심으로 강 노인의 내면 심리를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 ② (자)의 강 노인 아내의 말, (차)의 서술, (카)의 김 씨의 말에 말줄임표(……)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독자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유발한다.
- ③ 동네 사람들은 땅에 농사를 짓는 강 노인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고추 모종이 깔려 있는 밭에 연탄재를 폭격했고, 강 노인은 이를 두고 '짐승의 처사', '이런 짓거리', '막된 인종들'이라며 분노한다. 따라서 땅을 두고 강 노인과 동네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땅을 파는 문제를 놓고 나누는 강 노인과 아내의 대화를 통해 땅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배경지식 + 말줄임표(……)의 효과

- 독자에게 여운을 남김
-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함
- 함축성이 풍부한 글을 만들
- 독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함
- 다양하고 풍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함

09 인물·사건

먼저 동네 사람들이 강 노인의 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사회회를 열었다. 다음 날에 강 노인의 아내가 아들이 돈을 빌리

기 위해 처가로 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강 노인에게 말했고, 이 말을 들은 강 노인은 자식들을 도와주는 일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한다. 이후 반상회에서 며느리인 경국이 엄마가 했던 말을 김 씨가 전달하자, 강 노인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집으로 향했다.

10 인물·사건

강 노인의 아내는 강 노인이 땅을 팔아서 아들들의 빚을 갚아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에 생략된 말은 이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강 노인의 아내가 강 노인이 반상회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강 노인의 아내는 어려운 이웃이 아닌, 아들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④ 강 노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형제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 인물·사건

㉡의 '김 씨'는 자신의 부인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의 '강 노인'에게 전달했다.

- 오답 풀이** ① 강 노인(㉠)은 아내(㉡)와 며느리(㉢)가 땅을 팔고 싶어 하는 태도에 불만을 나타낸다.
 ② 강 노인의 아내(㉡)는 강 노인(㉠)이 경국이네(㉣) 가족을 위해 땅을 팔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다.
 ③ 강 노인의 아내(㉡)는 며느리(㉢)가 반상회에서 했던 말을 강 노인(㉠)이 오해하지 않도록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⑤ 강 노인의 며느리(㉢)는 어제 열렸던 반상회에서 강 노인(㉠)이 땅을 파실 것 같다고 말했다.

알아두기 땅을 둘러싼 등장인물의 갈등



07 마지막 땅 4

본문 126~127쪽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 05 강 노인
 06 바람 07 과심

심력 문제

08 ② 09 ④ 10 ② 11 ⑤

01 강 노인이 땅을 팔아 계약금을 받았다는 소문이 동네에 돌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02 김영진은 목동에서 살다가 철거 보상금을 받고 원미동으로 이주했는데, 그때 받은 철거 보상금을 삼 부 이자로 놓아 주겠다는 고흥택의 말만 믿고 용규에게 빌려주었다.

03 (하)를 통해 강 노인은 마지막 땅 조각을 붙들고 있다는 것에 위안을 얻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04 강 노인은 자식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빚을 진 사실을 알고 더 이상 모르는 척을 할 수 없어 땅을 팔아 빚을 갚아 주기로 결심하고 강남 부동산으로 향했다.

05 은혜 엄마는 강 노인이 땅을 팔았다는 소문을 듣고, 강 노인을 찾아와 경국이 엄마에게 빌려준 갯돈을 대신 갚아 달라고 하였다.

06 강 노인은 원래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서울 바람(도시 개발의 바람)이 불어 땅값이 크게 오르자 땅을 팔아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해 왔다.

07 (하)에서 강 노인은 빚쟁이가 물려와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용규 부부를 껄뻘하게 생각한다.

08 인물·사건

용규 내외는 자신들이 진 빚에 대해 모른 척하고 있을 뿐, 강 노인에게 대신 갚아 줄 것을 대놓고 부탁하지는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강 노인은 땅을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공간, 즉 생명을 기르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③ 강 노인의 아내는 농사를 짓는 것에 별 관심이 없어 아육의 걸임이 밀고 올라오기 시작해도 덤덤해했다.
 ④ (파)를 통해 김영진은 서울 목동에 살다가 집이 철거되는 바람에 서울에서 밀려 나와 원미동에서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여덟 명의 동네 사람들은 강 노인의 땅을 밟고, 큰아들인 용규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알아두기 등장인물의 특징

강 노인	• 회유와 압박에도 발농사를 포기하지 않음 • 땅을 삶의 터전으로 인식함 • 땅의 전통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물질보다 정신을 중요시함
강 노인의 아내	• 자식에 대한 애정이 깊음 • 땅을 팔아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함
강 노인의 자식들	• 강 노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함 • 강 노인이 땅을 팔아 빚을 갚아 주기를 원함
동네 사람들	• 강 노인의 발농사로 강 노인과 갈등함 • 밭에서 나는 인분 냄새로 불평하지만, 실제로는 동네의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서 농사를 반대함 • 농사를 방해하려고 연탄재를 버리는 등 비도덕적,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임

09 배경·소재 + 주제

강 노인은 농사를 생명을 기르는 행위이자 인간에게 필요한 먹거리를 거두어 수확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는 땅을 삶의 터전이자 생명이 자라는 공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여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 오답 풀이** ① '마지막 땅'으로 인해, 땅에 대한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강 노인과 그의 가족들이 갈등하고 있다.
 ② 강 노인은 땅을 팔아 큰돈을 벌었지만 허망함을 느끼기 때문에, '마지막 땅'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다.
 ③ 이 작품은 자연 파괴로 인한 환경 오염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내용이 아니다.
 ⑤ 강 노인이 땅을 보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 서술

㉠은 김영진이 철거 보상비를 용규에게 빌려준 이유를 요약적으로 제시한 부분으로, 형편이 어려운 김영진이 용규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이유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 오답 풀이** ① ㉠은 강 노인이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아니다.
 ③ ㉠은 김영진이 고흥택의 주선 아래에 용규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으로, 용규와 김영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에는 1980년대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사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타)에 경국이 엄마가 돈을 빌린 일, (파)에 용규가 돈을 빌린 일 등 자식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일이 병렬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과는 관련이 없다.

11 배경·소재

강 노인은 ㉠의 '멸피'를 보며 과거에 나무를 하러 산에 오르내리던 기억을 회상한다. 반면에 ㉡의 '고추 모종'은 강남 부동산으로 가던 강 노인의 발걸음을 집으로 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 오답 풀이** ① '멸피'와 '고추 모종' 모두 현재 강 노인이 직접 볼 수 있는 대상이다.
 ② '멸피'는 가족 간의 갈등과 관련이 없다.
 ③ '고추 모종'은 강 노인이 가꾸는 것이 맞으나, '멸피'는 동네 사람들과 관련이 없다.
 ④ 어린 시절에 '멸피'를 오르내렸던 경험은 강 노인이 '고추 모종'에 애착을 보이는 것과 관련이 없다.

+ 독해 체크

본문 128쪽

- ① 화유 ② 농사 ③ 부동산 ④ 전통 ⑤ 인분 ⑥ 팔팔
 ⑦ 연탄재 ⑧ 도시화 ⑨ 심리 ⑩ 생명

+ 어휘 체크

본문 129쪽

- 1 (1) 말본새 (2) 자명 (3) 번연히
 2 (1) ㉠ (2) ㉡ (3) ㉢

08

내가 그린 히말라야시다 그림 1 _성석제

본문 130~131쪽

-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성장 소설
성격 회상적, 고백적, 서사적
주제 기회와 선택의 순간에서 대처하는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삶의 모습
특징 • 주인공인 '0'과 '1'의 서술이 교차로 나타남(1인칭 주인공 시점의 교차)
 • 한 사건에 대한 두 인물의 갈등 양상과 대응 방식이 대조적으로 제시됨
 •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과거의 사건이 현재 등장인물의 삶에 미친 영향을 잘 드러냄

확인 문제

- 01 × 02 × 03 ○ 04 ○ 05 주인공 06 유언
 07 초등

심력 문제

- 08 ④ 09 ③ 10 ② 11 ⑤

- 01 (가)를 통해 '0'의 '나'가 미술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은 아버지 때문임을 알 수 있다.
 02 '0'의 '나'는 자신이 화가로서의 재능을 스스로 의심하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고개를 쳐들고 상대방의 눈을 쏘아보는 등 일부러 당당하고 강한 모습을 보였다.
 03 '0'의 아버지는 자신이 화가가 되는 것은 포기했지만 아들에게는 좋은 그림 재료를 사 주고 싶어서, 형편에는 과분하지만 화방에서 권하는 그림 재료를 샀다.
 04 (다)에서 '1'의 '나'는 그림을 좋아해 일주일에 한두 번은 화랑과 작은 미술관이 즐비한 거리를 돌아다닌다고 하였다.
 05 이 작품에서는 '0'의 서술자 '나'와 '1'의 서술자 '나'가 번갈아가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06 "난 아버님의 유언 때문에 그림을 포기한 대신 장가는 일찍 갔다네."라는 말을 통해, '0'의 아버지는 '0'의 할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화가가 되기를 포기하고 일찍 결혼했음을 알 수 있다.
 07 '그 사람, 백선규. 나와 같은 고향 출신이고,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는데'라는 '1'의 서술을 통해 '0'의 '나'는 백선규이며, '1'의 '나'와 같은 고향 출신으로 초등학교 동창임을 알 수 있다.
 08 **서술**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0'과 '1'의 두 서술자인 '나'가 각각 독백하듯이 자신의 심리를 직접 서술한다.

- 오답 풀이** ① '0'과 '1'의 서술자 '나'가 자신의 생각과 심리를 직접 서술하고 있다.
- ② 이 작품의 중심 사건인 '그날 그 일'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을 생략함으로써 독자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유발한다.
- ③ '0'과 '1'의 '나'는 같은 고향, 같은 초등학교 출신으로 어린 시절의 공통의 기억을 지니고 있다.
- ⑤ '0'의 서술자는 '그날 그 일'과 관련한 사건을 떠올리고, '1'의 서술자는 과거에 알던 '백선규'라는 인물을 떠올리고 있다.

알아두기 1인공 주인공 시점이 교차하는 서술 방식

이 작품의 주인공이자 서술자인 '0'과 '1'의 '나'는 같은 사건을 각자의 관점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등장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독자로 하여금 사건을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0'의 '나'(백선규)

- 주인공이자 서술자
- 남성
- 유명한 화가

'1'의 '나'

- 주인공이자 서술자
- 여성
- 그림을 좋아하는 미술 애호가

09 인물·사건

(가), (나)의 '나'는 평론가, 원로들, 스승들로부터 상을 받으며 화가로서 뛰어난 그림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 (나)의 '나'는 자신의 재능을 의심하며 살아왔지만, 재능보다 노력을 중시하는지는 알 수 없다.
- ② (가), (나)에 '나'의 어린 시절의 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④ (다), (라)의 '나'는 백선규가 어릴 때부터 많은 상을 받으며 인정을 받다가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가 된 것을 알고 있다.
- ⑤ (다), (라)의 '나'는 그림을 좋아해서 화랑과 작은 미술관에서 전시회 관람을 즐기지만 전문적인 비평가는 아니다.

10 인물·사건

(다), (라)의 '나'는 좋은 그림을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다), (라)의 '나'는 여유 있게 그림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는 것에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나'는 유명한 전시회나 박물관뿐만 아니라, 화랑과 작은 미술관에서도 그림을 감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술을 향유하고 있다.
- ③, ④ '나'는 찻집 '고갱'과 '고흐'에서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의 옷차림과 얼굴빛과 하늘의 색깔을 비교하고, 나뭇잎을 흔드는 바람에서 어떤 느낌을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가 얼굴빛이나 하늘의 색깔들을 화폭에 담는 것을 좋아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등을 표현한 그림을 즐기는 모습은 이 작품에 나타나지 않는다.
- ⑤ '나'가 '고갱'과 '고흐'와 같은 화가의 작품에 대해 평가하는 모습은 이 작품에 나타나지 않는다.

11 배경·소재 + 어휘

㉠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굶지 않고 겨우 살아가다'라는 의미를 지닌 '목구멍에 풀칠하다'의 관용 표현을 활용해 쓴 ㉡가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등잔 밑이 어둡다.'는 대상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리어 대상에 대하여 잘 알기 어렵다는 말이다.

- ② '가는 날이 장날'은 일을 보러 가니 공교롭게 장이 서는 날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을 공교롭게 당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③ '눈 가리고 아웅'은 얄은수로 남을 속이려 한다는 말이다.
- ④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어떤 일에 있어 서로에게 모두 이롭고 좋다는 말이다.

알아두기 '0'의 아버지의 태도

아버지의 상황과 처지

그림에 재능이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화가가 되는 것을 포기함

아버지의 태도

가난하지만 아들에게는 좋은 재료로 그림을 그리게 해 주고 싶음 → 아들에 대한 사랑

08 내가 그린 히말라야시다 그림 2

본문 132~133쪽

확인 문제

- 01 × 02 ○ 03 × 04 × 05 사생
06 제재소 07 과외비

실력 문제

- 08 ⑤ 09 ② 10 ② 11 ③

- 01 사생 대회에는 심사 과정의 부정을 막기 위해서 그림 뒤에 이름 대신에 번호를 적는 규정이 있었다.
- 02 사생 대회와 축구 결승전이 같은 날 열렸는데, '0'의 '나'에게는 사생 대회보다 축구 결승전이 더 중요했다.
- 03 '1'의 '나'는 어린 시절에 피아노, 바이올린, 그림을 배웠다. 정구를 배운 것은 '나'의 오빠들이다.
- 04 미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아버지에게 '1'의 '나'가 그림에 재능이 뛰어나다고 말했는데, '나'는 선생님이 비싼 과외비를 받으니 그냥 해 본 말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 05 선생님은 '0'의 '나'가 그림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여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나'의 학년을 속이고 4학년 이상만 나갈 수 있는 사생 대회에 참가하게 하였다.
- 06 (사)에서 '1'의 '나'는 자신의 아버지가 읍내에서 제일 큰 제재소를 운영했다고 말했다.
- 07 '1'의 '나'는 읍내에서 유일한 사립 중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비싼 과외비를 치르고 그림 과외를 받았다.

08 인물·사건

선생님은 친구의 아들도 자신의 친구처럼 그림에 소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

해 학년을 속이면서까지 '0'의 '나'를 사생 대회에 참가시켰다. 따라서 선생님이 '0'의 '나'와 '1'의 '나' 중에서 누가 더 실력이 뛰어난지 확인하기 위해 '0'의 '나'를 사생 대회에 내보낸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선생님은 '0'의 '나'가 아버지를 닮아 그림에 소질이 있다고 믿었는데, '0'의 '나'가 장원을 했기 때문에 '나'의 재능을 더욱 확신했을 것이다.
- ② 선생님은 '0'의 '나'가 장원을 한 것을 축하해 주기 위해 술병을 들고 '0'의 '나'의 집으로 찾아왔다.
- ③ 사생 대회는 4학년 이상만 나갈 수 있었는데, 선생님은 '0'의 '나'를 대회에 내보내기 위해 3학년인 '0'의 '나'를 4학년 5반이라고 속였다.
- ④ 선생님은 '0'의 아버지는 집안 형편 때문에 그림을 포기했지만, '0'의 '나' 또한 아버지를 닮아 그림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해 '0'의 '나'를 사생 대회에 내보냈다.

알아두기 선생님이 '0'의 '나'를 사생 대회에 내보낸 이유

이유	결과
- 친구의 아들인 '나'가 그림에 소질이 있을 것이라고 믿음 - 친구 대신 아들에게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음	3학년인 '나'가 학년을 속이고 4학년 5반 대표로 사생 대회에 나가 장원을 하게 됨

09 인물·사건

(자)에서 '1'의 '나'는 그림을 열심히 그릴 필요가 없다는 아버지의 말을 미술 선생님에게 전해 듣고 그림을 열심히 배울 생각이 사라졌다.

- 오답 풀이** ① '0'의 '나'는 사생 대회에 나가는 것보다 같은 날에 열린 축구 결승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 ③ 축하해 주며 기쁜 내색을 감추지 않는 선생님과는 달리, '0'의 아버지는 씩스럽게 웃기만 했을 뿐 기쁜 마음을 크게 내색하지 않았다.
- ④ '1'의 아버지는 집 안에 정구장을 지어 주거나 배우고 싶다는 것을 모두 배우게 해 주는 등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있다.
- ⑤ '0'의 선생님은 다른 참가자들보다 나이가 어린 '0'의 '나'가 크레파스를 이번에 처음 접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원을 한 것을 매우 대견하고 대단하게 생각한다.

알아두기 '0'의 아버지의 성격

근거	성격
사생 대회에서 아들이 장원을 했다는 소식을 듣지만 씩스럽게 웃는 듯했을 뿐, 별 다른 말과 행동을 보이지 않음	감정 표현이 서툴고 무뎉둑함

10 서술

이름을 쓰지 않고 번호만 적게 하는 사생 대회의 규정은, 앞으로 이것과 관련하여 장원이 바뀌게 되는 중심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 오답 풀이** ①, ③, ④, ⑤ ㉠, ㉡, ㉢, ㉣의 내용은 앞으로 일어날 중심 사건을 암시하거나, 사건 전개에 필연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배경지식 복선의 역할

복선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는 장치이다. 인물들의 대화와 행동, 공간이나 날씨, 인물들이 사용하는 도구 등이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진행을 예시적으로 보여 주기도 한다.

복선-암시의 장치	역할
사생 대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작품 뒤에 참가자의 이름 대신 미리 부여한 번호를 적는 규정이 있음	이 번호와 관련하여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함

11 배경·소재

〈보기〉는 사회·문화적 상황을 토대로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과 관련이 있다. ㉠을 당대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으면, 이 작품의 배경이 된 시대에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의 아버지의 말과 관련이 없다.
- ②, ⑤ 독자 입장에서 ㉠을 감상한 내용이다.
- ④ ㉠을 표현 방법과 관련하여 감상한 내용이다.

알아두기 '0'과 '1'의 아버지의 특징

'0'의 아버지	'1'의 아버지
- 가난한 농부임 - 자신이 못 이룬 화가의 꿈을 아들이 이룰 수 있다고 기대함 - 아들에게 꿈을 펼칠 기회를 주고 싶어 함	- 읍내에서 제일 큰 제재소를 운영하며 부유한 형편임 - 여자는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편견을 지니고 있음 - 딸이 화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음

08 내가 그린 히말라야시다 그림 3

본문 134~135쪽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 05 간장 06 심사
07 재능

실력 문제

08 ① 09 ④ 10 ② 11 ②

01 '0'의 '나'와 '1'의 '나'는 4학년 때 같은 사생 대회에 함께 나가게 되었다.

02 (자)에서 '0'의 '나'는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이 상품으로 나오는 차상과 차까까지는 괜찮지만, 그냥 특선이나 입선은 곤란하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특선이나 입선을 할 경우에는 그림 도구가 아닌, 공책이나 연필을 상품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03 (자)의 ‘한 해 전과는 다르게 크레파스 뚜껑이 달아나 버려서 습자지를 덮고 고무줄로 동여맸지.’를 통해 ‘0’의 ‘나’가 작년과 같은 크레파스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0’의 ‘나’는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을 상품으로 받기를 기대하지만, 사생 대회 결과는 (아)~(카)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05 (아)에서 ‘1’의 ‘나’는 ‘0’의 ‘나’에게서 받은 인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옷도 지저분하고 검정 고무신을 신은 데다 간장 냄새가 나던 녀석이 기억에 오래 남아.’라고 하였다.

06 ‘0’의 ‘나’는 사생 대회의 심사 결과가 궁금했기 때문에, 축구를 하면서도 자꾸 눈이 심사를 하고 있을 교실로 향했다.

07 (카)에서 ‘0’의 ‘나’는 사생 대회의 심사 결과를 기다린 것에 대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천부적인, 천재적인 재능을 명백히 확인받고 싶다는 충동’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08 인물·사건

㉠(‘1’의 ‘나’)은 ㉡(‘0’의 ‘나’)에게서 느껴지는 가난의 냄새와 꼴이 싫어서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이미 밑그림을 그린 후라서 자리를 옮기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② ㉡은 ㉠이 자신과 영원히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은 ㉠이 자신과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은 ㉠이 자신을 힐끗 보며 코를 찡그리고 눈길을 주지 않는 것을 보고, 자신에 대한 ㉠의 부정적인 감정을 눈치채게 되었다.

④ ㉠의 크레파스는 뚜껑이 없고 한 번만 더 쓰면 쓸 수 없을 만큼 닳았지만, ㉠의 크레파스는 한 번도 쓰지 않은 새것이라는 점에서 ㉠과 ㉡의 상반된 가정 형편을 알 수 있다.

⑤ ㉠과 ㉡은 모두 주책 축이 확인 도장을 찍어서 나누어 준 도화지에 그림을 그렸다.

알아두기 ‘0’의 ‘나’와 ‘1’의 ‘나’가 서로에게서 받은 인상

‘0’의 ‘나’가 ‘1’의 ‘나’에게서 받은 인상	- 자주색 원피스에 검정 에나멜 구두를 신고 푸른 구슬 리본을 매고 있음 - 얼굴이 희고 예뻐 ‘나’와는 달리 부유한 환경의 아이임 ‘나’와 비슷한 점이 하나도 없음 - 앞으로 영원히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은 사람임 ‘나’를 피하는 듯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
‘1’의 ‘나’가 ‘0’의 ‘나’에게서 받은 인상	- 옷도 지저분하고 검정 고무신을 신음 - 간장 냄새가 남 -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지독한 가난의 냄새가 남 ‘나’와는 달리 가난한 환경의 아이임

09 인물·사건

‘124’번은 몇 해 전에 침투한 무장간첩을 훈련시킨 부대 이름을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나’는 ‘124’번에 얽힌 잊지 못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생 대회에서 부여받은 번호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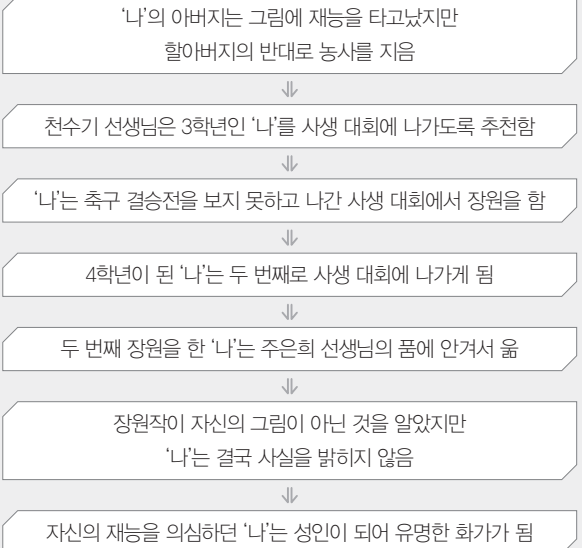
오답 풀이 ① ‘나’가 좋아하는 번호라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사생 대회에서는 참가자에게 같은 번호를 부여할 수 없다.

③ 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나’가 도화지 뒷면에 검정색으로 ‘124’라고 적었다.

⑤ (자)에서 ‘나’는 124번을 잊어버릴 수 없는 이유를 말하며 ‘무장간첩을 훈련시킨 부대 이름이 124군 부대라서 그런 게 아냐.’라는 언급은 하였지만, 이는 무장간첩의 수와는 관련이 없다.

알아두기 시간 순서에 따라 ‘0’의 ‘나’가 경험한 사건



10 인물·사건

‘0’의 ‘나’는 1년 전에는 그림보다 축구를 더 좋아했지만, 사생 대회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지금은 축구보다 그림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답 풀이 ① ‘0’의 ‘나’는 사생 대회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는 있지만, 심사 결과가 궁금한 탓에 경기에 집중하지 않아 친구들의 핀잔을 들었다.

③ ‘0’의 ‘나’는 사생 대회에가기 위해 크레파스를 들고 학교에 갔지만, 그 크레파스는 한 번만 더 쓰면 쓸 수 없도록 닳아 있었다.

④ ‘0’의 ‘나’는 ‘1’의 ‘나’와 같은 위치에서 비슷한 그림을 그렸지만, 이는 3학년 때 사생 대회에서 장원을 한 것과 관련이 없다.

⑤ ‘0’의 ‘나’는 아버지에게 천부적인 재능을 물려받아 1년 전에도 사생 대회에서 장원을 했다.

11 서술

주인공인 ‘0’과 ‘1’의 서술자 ‘나’가 서로 교차하여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 명의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과 심리를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 독자는 해당 서술자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오답 풀이 ① ‘0’의 ‘나’와 ‘1’의 ‘나’ 중에서 한 명의 서술자 시선으로 서술하더라도, 1인칭 주인공 시점이므로 주인공인 서술자가 자신의 속마음을 주관적으로 솔직하게 전달하게 될 것이다.

③, ⑤ 한 명의 서술자 시선으로 서술하면, 한쪽 서술자의 입장만 드러나므로 두 인물의 심리나 관점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④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주인공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지만, 주인공이 관찰하는 인물의 심리는 간접적으로 전달된다.

배경지식 + 서술자와 시점

- 서술자: 소설에서,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존재
- 시점: 소설에서, 이야기를 서술하여 나가는 방식이나 관점

1인칭 주인공 시점	• 소설 속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함('나'=주인공=서술자) • 독자에게 친근감과 신뢰감을 줌
1인칭 관찰자 시점	• 소설 속 등장인물인 '나'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주인공의 이야기를 서술함 • '나'의 눈에 비친 세계만을 제한적으로 그려 내기 때문에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함
3인칭 관찰자 시점	• 소설 밖의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등장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을 서술함 • 독자의 상상력이 확대됨
전지적 작가 시점	• 소설 밖의 서술자가 신과 같은 위치에서 인물의 성격과 심리까지 서술함 • 서술자가 사건 전개에 크게 개입하므로 독자의 상상력이 제한될 수 있음

08 내가 그린 히말라야시다 그림 4

본문 136~137쪽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 05 ×
06 히말라야시다 07 강당 08 그런데

실력 문제

09 ① 10 ③ 11 ⑤ 12 ②

- 01 '1'의 '나'가 실수로 참가 번호를 '124'번으로 잘못 쓰는 바람에, '1'의 '나'의 그림으로 '0'의 '나'가 상을 받게 되었다.
- 02 (타)에서 '1'의 '나'가 상을 받지 않아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1'의 '나'는 상을 받지 못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3 '0'의 '나'는 회색 크레파스가 떨어져서 그림에 회색을 사용할 수 없었지만, '1'의 '나'는 히말라야시다 가지 끝의 앞부분을 회색 크레파스로 칠했다.
- 04 (너)에서 '1'의 '나'는 길에서 우연히 백선규를 보고 화가인 백선규와 그림 감상을 좋아할 뿐인 자신은 가는 길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1'의 '나'가 백선규처럼 유명한 화가가 되는 것을 꿈꾼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5 (너)에서 '1'의 '나'는 백선규에게 인사를 해 볼까 하다가, 귀찮은 생각이 들어서 인사하지 않았다.

06 (파)에서 '0'의 '나'는 '1'의 '나'가 그린 그림을 보며 풍경은 자신의 그림과 비슷했지만, 자신의 그림과 달리 히말라야시다 가지 끝의 앞부분이 회색으로 칠해진 그림이었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0'의 '나'와 '1'의 '나'는 모두 같은 자리에서 히말라야시다 그림을 그렸음을 알 수 있다.

07 (하)를 통해 '0'의 '나'와 '1'의 '나'가 사생 대회 입상작을 전한 학교 강당에서 서로 마주쳤음을 알 수 있다.

08 (파)에서 '0'의 '나'는 '그런데', '절대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장원작이 자신의 그림이 아닌 것을 알게 된 후의 심리적 충격과 당혹감을 강조하고 있다.

09 인물·사건 + 주제

(타)에서 '1'의 '나'는 자신의 그림으로 '0'의 '나'가 장원을 한 것을 알았지만 잘못된 과정을 바로잡는 것이 귀찮고, 한 아이에게 좌절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실수를 바로잡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② (파)에는 장원을 한 그림이 '0'의 '나'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1'의 '나'가 그린 그림이라는 반전이 드러나 있다.

③ (하)에서 '0'의 '나'는 학교 강당에서 '1'의 '나'와 마주쳤지만, 장원작이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눈을 감는다.

④ (거)에서 '0'의 '나'는 그 일 이후로 끊임없이 자신의 재능을 의심하고 어떤 그림을 그리든 최선을 다하였다고 하였다.

⑤ (너)에서 '1'의 '나'는 길을 가다가 백선규를 보았지만, 귀찮고 각자의 길이 다르다고 생각하여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

알아두기 사건의 반전

그림을 확인하기 전

'0'의 '나'는 사생 대회에서 장원을 하고,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함

그림을 확인한 후

'0'의 '나'는 장원작이 '1'의 '나'의 그림임을 알고, 그 여자아이가 자신보다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함

10 인물·사건

'0'의 '나'는 자신이 부여받은 '124'번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장원작의 뒷면에는 '124'라고 쓰여 있었지만, 그건 자신의 글씨가 아니었다. 따라서 '1'의 '나'가 자신의 번호를 쓰지 않고 실수로 '0'의 '나'의 번호를 썼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0'의 '나'가 도화지의 뒷면에 쓰인 '124'를 보았는데 자신의 글씨가 아니었다. 따라서 '1'의 '나'는 '0'의 글씨를 흉내 내지 않았다.

② '0'의 '나'는 자신의 번호가 '124'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④ '0'의 '나'가 잘못된 곳에 번호를 적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⑤ '1'의 '나'는 번호를 잘못 쓴 것이 자신의 실수라고 말하고 있다.

11 인물·사건

(하)에서 '0'의 '나'는 장원을 한 그림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밝힐 것인지 말 것인지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다. ⑤의 '정수' 또한 공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인물(삶의 터전을 빼앗긴 사람들)과 자연(집중 호우)의 외적 갈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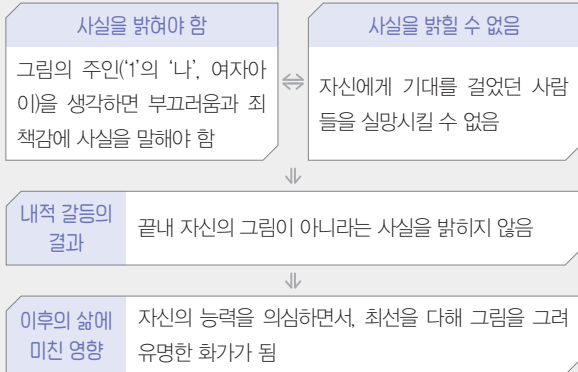
② 인물(아래층 여자)과 인물(위층 여자)의 외적 갈등이다.

③ 인물(취업이 되지 않는 취준생)과 사회(좋은 경기)의 외적 갈등이다.

④ 인물(민서)과 인물(예지)의 외적 갈등이다.

알아두기 'O'의 '나'의 내적 갈등과 이후의 삶

내적 갈등은 인물의 마음속에서 상반되거나 분열된 심리가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심리적 갈등을 말한다.



12 서술

(너)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주인공인 'I'의 '나'가 자신의 생각과 심리를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반면에 <보기>는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작품 밖의 서술자가 'I'의 '나'에 해당하는 여자의 행동이나 사건을 관찰하고 있다. 3인칭 관찰자 시점은 등장인물이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하여 독자의 상상력이 더욱 필요하므로, (너)를 <보기>와 같이 바꾸면 독자의 상상력이 더욱 확대된다.

오답 풀이 ① 독자에게 친근감과 신뢰감을 주는 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이다.

③ (너)와 <보기>에는 모두 등장인물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보기>는 작품 밖의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여자의 행동을 서술한 것이다.

⑤ (너)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주인공인 'I'의 '나'의 심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보기>는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여자의 심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 독해 체크

본문 138쪽

- ① 장원 ② 성인 ③ 화가 ④ 만족 ⑤ 죄책감
⑥ 좌절감 ⑦ 서술자 ⑧ 의심 ⑨ 선택

+ 어휘 체크

본문 139쪽

- 1 (1) 과분 (2) 고명말 (3) 즐비
2 <가로> ① 천부적 ④ 원로
<세로> ② 부정 ③ 장원

본문 140~141쪽

09

춘향전 1 _작자 미상

갈래 고전 소설, 판소리계 소설, 애정 소설

성격 해학적, 풍자적

주제 • 표면적: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과 정절

• 이면적: 신분 상승의 의지, 탐관오리에 대한 저항

특징 • 조선 시대의 신분적 한계가 남녀의 사랑을 통해 드러남

• 편집자적 논평, 확장적 문체 등 판소리의 특징이 나타남

• 판소리계 소설의 해학과 풍자가 많이 나타남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유교 05 청룡 06 내직

실력 문제

07 ⑤ 08 ② 09 ③ 10 ⑤ 11 ①

01 방자는 이몽룡이 부리는 하인으로, 이몽룡과 성춘향 사이에서 서로의 말을 전해 주는 전달자의 역할을 한다.

02 (가)에서 이몽룡은 자신의 부름을 거절하는 성춘향의 말을 전해 듣고, 언짢아하는 것이 아니라 기특하다고 생각한다.

03 춘향 어미는 이몽룡과 성춘향의 만남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04 성춘향은 지조와 절개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유교적 이념에 해당한다.

05 춘향 어미는 꿈에서 본 청룡을 '꿈 몽(夢) 자, 용 룡(龍) 자'로 풀어 이몽룡을 가리킨다고 생각하고 있다.

06 이몽룡은 내직으로 승진한 아버지를 따라 남원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이몽룡과 성춘향은 이별을 맞이한다.

07 인물·사건

성춘향은 “예사 처녀를 함부로 부를 리도 없고 부른다 해도 갈 리도 없다.”라며 이몽룡의 부름을 거절한다. 이는 예사 처녀를 함부로 부르는 것이 도리에 어긋난다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① 성춘향에게 혼인을 약속한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성춘향은 퇴기의 딸이므로 양반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분의 차이를 근거로 이몽룡의 부름을 거절하지는 않았다.

③ 성춘향이 부모의 허락을 받고 이성을 만나고 싶다고 말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성춘향은 다른 집 처자들도 광한루에서 그네를 탔는데 유독 자신에게만 뭐라 한 방자가 이해가 안 된다는 식의 말은 했지만, 이몽룡이 유독 자신만을 부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는 않았다.

08 인물·사건 + 배경·소재 + 서술

(나)에서 춘향 어머니는 간밤에 꾸 꿈을 근거로 성춘향과 이몽룡의 만남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성춘향에게 이몽룡을 만나고 오라고 한다.

오답 풀이 ① 이몽룡은 성춘향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전하지 않고 방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양반들은 아랫사람에게 전갈을 보내 간접적으로 소통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성춘향은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내는 지아비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옛글을 인용하여 지조와 절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④ 성춘향의 집 문 앞에서 울고 있는 이몽룡의 모습을 '통째 건더기째 보자기째 왈카 쏟아진다.'라고 해학적으로 표현하여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⑤ '사람이 위아래를 막론하고 누구나 어머니에게는 허물이 적으니'라는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허물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어머니와 이몽룡의 관계를 독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다.

09 인물·사건

춘향 어머니는 신분 상승 욕구를 지닌 인물로, 성춘향에게 "양반이 부르시는데 아니 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양반인 이몽룡의 부름에 성춘향이 응하게 한다.

오답 풀이 ① 이몽룡은 어머니에게만 자신과 성춘향의 관계를 털어놓았다. 따라서 이몽룡의 아버지는 이몽룡과 성춘향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② 이몽룡의 어머니는 성춘향과의 관계를 털어놓는 이몽룡을 꾸짖는다. 성춘향과 이몽룡의 만남이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춘향 어머니이다.

④ 이몽룡은 성춘향과의 이별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물만 흘릴 뿐,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는다.

⑤ 성춘향은 (가)에서 이몽룡의 부름을 거절하고, (나)에서도 어머니의 말을 듣고 못 이기는 모습으로 겨우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성춘향이 신분의 차이 때문에 양반의 부름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볼 수 없다.

10 서술

㉠은 이몽룡을 만나러 가기 위해 광한루를 건너는 성춘향의 아름다운 걸음걸이를 다양한 비유로 열거하여 표현하고 있다.

알아두기 열거를 통한 장면의 극대화

열거

간단한 내용을 다양하게 열거하여 내용을 확장하고 덧붙임으로써 장면을 극대화함

예 대명전(大明殿) 대들보의 명매기걸음으로, 양지(陽地) 마당의 씨암탉걸음으로, 흰모래 바다의 금자라 걸음으로

효과

특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확장시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감동을 줌(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11 인물·사건

이몽룡은 어머니에게 성춘향과의 일을 읊면서 털어놓는데 꾸중만 듣는다. 따라서 이몽룡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서운함을 느꼈을 것이다.

오답 풀이 ②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어머니에게 이몽룡이 미안함을 느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어머니는 허물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편집자적 논평으로 볼 때, 어머니에게 이몽룡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자신을 꾸짖는 어머니에게 이몽룡이 동정심을 느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이몽룡이 이별의 슬픔에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볼 때, 태연해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9 춘향전 2

본문 142~143쪽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친구 05 말
06 집장사령

실력 문제

07 ② 08 ② 09 ⑤ 10 ②

01 (마)에서 성춘향이 이몽룡에게 "조부모 상(喪)을 당하셨소."라고 말한 것은 이몽룡이 울고 있는 이유를 묻기 위해 열거한 하나의 예일 뿐, 이몽룡이 실제로 조부모 상을 당한 것은 아니다.

02 성춘향은 이몽룡의 눈물을 닦아 주며 달래는데, 이몽룡이 울음을 그치지 않고 더 쉴게 하자 결국 화를 낸다.

03 새로 부임한 사또는 이몽룡에 대한 '일부종사(一夫從事)'를 이유로 수청을 거부하는 성춘향에게 곤장을 맞게 한다.

04 후배사령은 아들을 찾는 이몽룡의 아버지에게 이몽룡이 친구를 만나고 있다며 거짓말을 했다.

05 (바)에서, 가자고 네 굵을 치는 말의 모습은 이별을 재촉하는 듯하다. 반면 성춘향은 이별을 슬퍼하여 떠나는 이몽룡의 다리를 부여잡는다.

06 (아)에서 성춘향이 매를 맞는 것을 구경하던 한량들은 "집장사령 놈 눈 익혀 두어라. 삼문(三問) 밖 나오면 급살을 주리라."라며 변 사또에게 직접 화풀이하지 못하고 집장사령에게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07 서술 + 주제

이 작품은 판소리 사설이 문자로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로 판소리의 특징인 운문적인 요소, 즉 운율을 지닌 표현이 자주 나타난다. '꾸중을 들으셨소. ~ 분함 당하셨소.', '울지 마오. 울지 마오.' 등과 같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부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은 '근원 설화 → 판소리 → 소설'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을 거쳐 이야기가 만들어져 온 것이다.

③ 이 작품은 고전 소설의 한 종류인 판소리게 소설이다. 고전 소설에서는 대부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평면적 구성이 나타난다.

④ 이 작품에서는 부당한 매질을 하는 형리와 통인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민중들을 억압하는 당대의 지배층을 비판한다. 이는 신분 제도와 경제적 궁핍 속에서 살아가던 민중들의 힘든 삶을 웃음으로 해소하고, 동시에 지배층의 억압과 횡포를 웃음을 통해 비판한 것이다.

⑤ 이 작품은 신분을 초월한 남녀의 사랑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의 의지 및 탐관오리에 대한 저항 등 다양한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

08 인물·사건

성춘향은 (마)에서 울기만 하는 이몽룡에게 화를 내고, (바)에서 이별을 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사), (아)에서 지배층인 변학도의 부당한 명령을 거절하고 지조를 지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 강인한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성춘향이 양반들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인물이 아니며, 적극적이고 저항적인 성격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④ 성춘향은 유교적 가치관에 바탕을 둔 굳은 신념으로 '일편단심(一片丹心)', '일부종사(一夫從事)'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 따라서 통명스럽고 충동적이라거나,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낸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이몽룡과 이별을 해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몽룡에 대한 지조와 정절을 지키고자 한다.

⑤ 수청을 요구하는 지배층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는 성춘향의 모습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고 볼 수는 없다.

알아두기 등장인물의 특징

성춘향	- 유교적 이념에 충실하여 정절을 지킴 - 신분의 제약을 뛰어넘어 사랑을 쟁취하려는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인물임 - 지배층의 부당한 억압과 횡포에 맞섬
이몽룡	- 처음에는 미숙하고 철이 없는 모습이었지만, 사랑을 지키는 의리 있는 인물로 변화함 - 부패한 탐관오리를 징벌함
변학도	- 부패한 지방 수령임 - 어리석고 혐오와 조롱의 대상이 됨
월매	- 성춘향의 모친으로 수다스럽고 방정맞음 - 현실에 민감하며 신분 상승 욕구를 지님
방자	- 이몽룡의 하인으로 성춘향과 이몽룡 사이에서 사랑의 전달자 역할을 함 - 양반을 조롱하고 풍자하며 웃음을 불어넣음

09 서술

㉠은 성춘향이 매를 맞는 비극적인 장면인데, 형리와 통인이 매질을 하는 모습을 '닭싸움하는 모양'에 빗대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이처럼 웃음을 유발하여 비극성을 막고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것은 판소리게 소설의 특징이다.

오답 풀이 ① 반어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과장의 방법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구체적인 배경 묘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하나 치면 하나 굶고 둘 치면 둘 굶고'에서 '~면 ~고'의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지만, 해학적으로 표현하여 독자의 안타까움이 아닌 웃음을 불러일으킨다.

10 인물·사건

성춘향은 지배층의 핍박에 맞서다 부당한 형벌을 받는 민중 계층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성춘향이 매질을 당하는 모습을 보던 마을 사람들이 집장사령 늑에게 급살을 준다며 강한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당시 지배층에게 억압받던 민중들의 동조와 공감을 얻어 낼 수 있는 부분이다.

오답 풀이 ① 이몽룡을 양반 계층으로 설정한 것은 양반층의 취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성춘향이 한자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지조를 나타내도록 설정한 것은 양반층을 위한 것이다.

④ 새로 부임한 사또가 성춘향이 불쌍하고 가련하다고 말하는 것은 진심이 아니다.

⑤ 성춘향은 절개를 지키기 위해 새로 부임한 사또의 수청을 거절하는데, 이는 유교적 이념과 관련한 것이므로 양반층을 위한 설정으로 볼 수 있다.

09 춘향전 ③

본문 144~145쪽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윤봉 05 차운 06 갈비

심력 문제

07 ① 08 ③ 09 ② 10 ⑤

01 (자)에서 성춘향은 자신을 찾아온 이몽룡에게 내일 생일잔치 끝에 자신이 죽거든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던 '초혼'을 이몽룡의 육성으로 해 달라고 부탁한다. 이는 죽어서도 이몽룡과 함께 하고 싶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02 이몽룡은 백성들의 어려운 삶과는 대조를 이루는 화려한 본관의 생일잔치를 보고 마음이 심란해졌다.

03 이몽룡은 개다리소반에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등이 놓인 자신의 상을 보고, 윤봉의 상에 차려진 갈비를 달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몽룡의 잔칫상은 잔치에 참여한 다른 수령들의 잔칫상과 다르게 초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4 본관은 자신의 생일잔치에 잡인의 출입을 금하였지만, 이몽룡의 거동을 본 윤봉은 본관에게 이몽룡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자고 청한다. 본관이 이런 윤봉의 청을 받아들여 이몽룡은 잔치에 참석하게 된다.

05 (카)에서 운봉은 잔치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차운 한 수썩을 짓자고 제안하고 있다.

06 (카)에 제시된 '갈비'는 신체 부위인 '갈비'와 음식 '갈비'를 의미하므로,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에 해당한다.

07 배경·소재

이몽룡이 사치스러운 본관의 생일잔치를 보고 심란해하는 모습을 통해, 지배층과 다르게 백성들의 삶이 힘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오냐, 도적질은 내가 하마. 오라는 네가 저라.'라는 이몽룡의 속마음을 통해, 중앙 관리인 어사또가 부패한 지방 관리를 벌하는 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기생의 딸인 성춘향이 양반인 이몽룡과의 사랑을 지키려다 시련을 겪는 모습을 통해, 신분의 차이가 있는 남녀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힘든 시대였음을 알 수 있다.

㉣. 물건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여 물건을 한꺼번에 샀다가 값이 오르면 파는 매점매석을 통한 경제 활동이 이 작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08 서술

㉠의 '갈비'는 신체 부위인 '갈비'와 음식 '갈비'를 뜻하는 동음이의어이다. ㉢의 '이부'는 두 명의 남편인 '이부(二夫)'와 이씨 성을 지닌 남편인 '이부(李夫)'를 뜻하는 동음이의어이다. 따라서 ㉠과 ㉢은 모두 동음이의어를 통한 언어유희의 방법으로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코앞의 물건을 못 찾는 사람을 '눈 뜬 장님'이라는 속담에 빗댄 해학적 표현이다.
 ②. '밥 더미'를 '남산 더미'만 하다며 과장한 해학적 표현이다.
 ④. 갓을 뒤집어 쓴 인물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통한 해학적 표현이다.
 ⑤. 오래 끓어서 배가 고픈 상황을 뱃가죽이 등에 붙고 갈빗대가 따로 났다며 과장한 해학적 표현이다.

배경지식 + 동음이의어의 의미

동음이의어 두 개 이상의 낱말이 우연히 소리만 같을 뿐,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이 낱말들을 동음이의어(동형어)라고 함

- 예 ㉠ 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 → 강이나 바다에서 타는 '배(船)'
 ㉡ 과수원에서 배를 따다. → 먹는 '배(梨)'
 ㉢ 떡볶이를 먹어서 배가 부르다. → 사람의 몸의 일부인 '배(腹)'

09 서술

〈보기〉는 편집자적 논평에 대한 설명이다. ⑥는 편집자적 논평이 아니라, 판소리의 창자가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판소리 공연의 특징이 판소리계 소설에 남아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백성들의 어려운 형편과 대조되는 변학도의 사치스러운 잔치에 대한 반감을 서술자가 직접 드러낸다.
 ③. '명관'은 이몽룡이 어사또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관리들을 서술자가 반어적으로 평가하고 조롱한 것이며, '어찌 아니 명관인가.'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관리들의 어리석음을 강조한 것이다.
 ④. 운봉의 제안으로 이몽룡을 잔치에 참여시킨 것을 못마땅해하는 본관의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⑤. 자신에게 차려 준 초라한 밥상에 대한 이몽룡의 분노를 서술자가 설의적으로 표현하여 독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10 인물·사건

운봉은 이몽룡과 변학도를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면서 사건 전개에 도움을 주는 보조적 인물이다. 하지만 지배 계층에 대한 비판 의식을 지니고 행동하는 인물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변학도는 전형적인 탐관오리를 대표하는 인물이므로, 심술궂은 모습으로 분장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본관의 생일잔치에 초대된 수령들은 변학도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인물들이므로, 흥청망청 노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성춘향은 지배층인 변학도에 맞서 죽음까지 무릅쓰고 자신의 정절을 지키고자 하므로, 기득권의 횡포에 저항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의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다.
 ④. 어사또가 되어 다시 남원에 온 이몽룡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본관의 생일잔치에서 능청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09 추항전 4

본문 146~147쪽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 05 봉고파직
 06 행복 07 인물 08 사회

실력 문제

09 ⑤ 10 ④ 11 ③ 12 ③ 13 ③

01 (타)에서 이몽룡이 지은 한시는 본관의 사치스러운 생일잔치와 백성들의 고통을 대비하여, 백성들을 폄박하는 탐관오리의 가혹한 정치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02 어사 출두 후에 허둥대며 도망치는 수령들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당대 관리들의 허위성을 고발하고 있다.

03 (하)에서 어사또의 명령에 따라 고개를 든 성춘향은 어사또가 이몽룡인 것을 확인하고 크게 기뻐한다.

04 '결말' 부분에서 성춘향은 이몽룡과 재회하고 함께 서울로 떠나게 되어 기쁘지만, 고향을 떠난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05 이몽룡은 탐관오리인 본관에게 봉고파직의 징벌을 내렸다.

06 대체로 고전 소설은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후에 주인공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구조를 지니는데, 이 작품 또한 성춘향과 이몽룡이 재회하여 함께 서울로 떠나는 행복한 결말로 끝맺고 있다.

배경지식 + 고전 소설의 특징

주제	• 권선징악(勸善懲惡):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함 • 인과응보(因果應報):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있음
인물	평면적, 전형적 인물
사건	우연적, 비현실적인 사건
배경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배경
시점	대부분 전지적 작가 시점임
구성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대기적 구성, 평면적 구성
문체	운문체, 문어체
결말	주로 행복한 결말로 끝맺음

07 어사또가 되어 남원으로 돌아온 이몽룡이 탐관오리인 변학도와 겪는 갈등의 유형은 인물과 인물 사이의 외적 갈등에 해당한다.

08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나 이몽룡과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성춘향은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09 배경·소재

이몽룡이 지은 한시는 백성들을 핍박하는 탐관오리의 횡포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지배층의 삶과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삶이 대조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한시의 내용은 어사 출두를 암시하여 사건을 극적으로 전환시켜 긴장감을 고조한다.

② 탐관오리를 고발하고 비판하는 한시의 내용은 암행어사가 출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④ 한시는 백성들의 것을 수탈하고 착취하는 변학도의 횡포를 질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부패한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 의식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알아두기 '어사 출두'로 인한 사건의 반전

어사 출두 전	• 본관인 변학도가 상황을 주도함 • 탐관오리의 횡포가 이루어짐 • 성춘향이 죽을 위기에 처하며 갈등이 극에 달함
↓	
어사 출두 후	• 어사또인 이몽룡이 상황을 주도함 • 이몽룡이 탐관오리를 징벌함 • 성춘향이 옥에서 풀려나며 갈등이 해소됨

10 인물·사건

이몽룡의 한시를 듣고 '아빨싸, 일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아, 운봉은 눈치가 빠르고 상황 판단력이 뛰어남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한시를 듣고 상황을 알아차린 운봉과 달리, 본관은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어리석은 것은 운봉이 아니라 본관이다.

② 학식과 견해가 이몽룡보다 나은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⑤ 이 작품에 제시된 운봉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11 서술

본관의 생일잔치에 참여했던 수령들이 체면을 차리지 않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며 도망치는 모습을 통해, 어사 출두로 당황한 관리들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인궤 잃고 과줄 들고, 병부 잃고 송편 들고~'는 놀라서 허둥대는 관리들의 모습을 열거와 대구를 사용하여 장면을 극대화한, 판소리계 소설의 확장적 문체가 활용된 부분이다.

④ '문 들어온다. 바람 달아라. 물 마른다. 목 들어라.'는 단어의 위치를 뒤바꾸어 말하여 당황하는 본관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⑤ '본관이 똥을 싸고 멍석 구멍 생겨 눈 뜨듯 하고' 등과 같이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들의 행동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12 배경·소재

㉠의 '추절(秋節)'은 가을을 의미하며, 동시에 성춘향에게 수청을 요구한 본관의 횡포를 의미하는 중의적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과 ㉡은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중의적 표현이다.

② ㉠의 사전적 의미는 '계절이 가을인 때', 즉 가을이다.

④ ㉡은 '오얏 꽃에 부는 봄바람', 즉 '따뜻한 봄바람'을 의미한다.

⑤ '객사에 봄이 들어 이화 춘풍(李花春風)'이 자신을 살린다고 하였으므로, ㉡은 성춘향을 구해 줄 이몽룡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3 주제

'남존여비(男尊女卑)'는 사회적 지위나 권리에 있어 남자를 여자보다 우대하고 존중하는 일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작품은 부패한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을 뿐, 남존여비 사상에 대한 비판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은 성춘향과 변학도, 이몽룡과 변학도 등 주요 인물들 간의 갈등을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② 고난 속에서도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성춘향의 모습은 유교적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다.

④ 신분을 초월한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은 봉건 사회의 질서를 부정한 자유연애 사상을 담고 있다.

⑤ 변학도를 징벌하는 이몽룡을 통해, 탐관오리를 징벌하고자 하는 당대 사회 개혁 의지를 엿볼 수 있다.

+ 독해 체크

본문 148쪽

- ① 한양 ② 어사 ③ 절개 ④ 수청 ⑤ 이몽룡
⑥ 횡포 ⑦ 출두 ⑧ 편집자 ⑨ 해학 ⑩ 탐관오리

+ 어휘 체크

본문 149쪽

- 1 (1) 남루 (2) 지조 (3) 심란
2 <가로> ② 직신 ⑤ 단좌
<세로> ① 봉고파직 ③ 신세 ④ 일편단심

갈래 고전 소설, 단편 소설, 한문 소설

성격 풍자적, 비판적, 사실적

주제 양반 계층의 무능과 위선적인 태도 비판

특징

- 조선 후기의 사회상이 잘 드러남
- 실사구시(實事求是: 사실에 토대를 두어 진리를 탐구하는 일)의 실학 정신이 잘 드러남
- 몰락하는 양반들의 경제적인 무능과 허례허식, 위선적인 모습을 풍자함

확인 문제

01 × 02 × 03 한 문 04 환곡, 신분 05 소인

실력 문제

06 ④ 07 ⑤ 08 ③ 09 ⑤ 10 ④

01 양반은 군수가 새로 부임하면 반드시 인사를 갔을 정도로 성품이 어질고 글 읽기를 좋아했지만, 경제적으로는 무능력하여 일천 섬의 환곡을 갚지 못해 결국 양반 신분을 팔게 된다.

02 같은 마을에 살던 부자는 어려움에 처한 양반의 환곡을 대신 갚아 주고, 평소 부러워하던 양반 신분을 산다.

03 (나)에서 현실적인 생활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반의 아내는, 환곡을 갚지 못해 관청에 끌려갈 위기에 처했지만 해결할 능력이 없어 울기만 하는 남편에게 “한 톨도 못 되는 그놈의 양반!”이라며 질책한다.

04 (라)에서 양반 신분을 동경하던 부자는 양반이 갚지 못한 일천 섬의 환곡을 대신 갚아 주고, 양반의 신분을 사게 된다.

05 (라)에서 양반은 부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팔았으므로, 군수에게 자신을 낮추어 ‘소인’이라고 칭하면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였다.

06 인물·사건

(나)에서 양반은 환곡을 갚지 못해 관청에 잡혀갈 위기에 처했음에도 어쩔 줄을 몰라 밤낮으로 울기만 한다. 양반을 찾아가 거래를 제안한 것은 부자이다.

07 배경·소재

(다)로 보아, 부자가 양반 신분을 사려고 하는 이유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양반들처럼 존중받지 못하고 욕을 보며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③ 부자가 환곡을 대신 갚아 주고 양반의 신분을 사는 모습을 통해,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사고팔며 신분 제도가 붕괴되어 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부자가 평민인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④ 환곡을 갚지 못해 곤란한 처지에 놓인 양반을 통해, 경제적으로 무능한 양반들의 권위가 무너져 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알아두기 작품에 나타난 조선 후기의 시대상

- 양반이 자신의 신분을 팔아 환곡을 갚음
- 평민인 부자가 부를 축적하여 양반 신분을 사게 됨



- 부유한 평민이 등장함
- 신분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함
-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이 있었음
- 돈으로 신분을 사고파는 경우가 있었음(신분 질서의 동요 현상)

08 인물·사건

(나)에서 아내는 “그렇게도 글을 잘 읽었지만 환곡을 갚는 데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구려.”라고 말하며 양반의 경제적 무능함을 비판하고 있다. 아내가 양반의 학문의 깊이에 대해 평가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② (나)로 미루어 볼 때, 양반의 아내는 현실적인 생활 능력을 중시하는 실용적인 사고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④, ⑤ (나)에서 아내는 글공부는 많이 했지만, 경제적으로는 무능한 남편을 ‘한 톨도 못 되는 양반’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아내의 태도와 말에는 양반의 무능을 풍자하고자 하는 작가 의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09 인물·사건 + 주제

⑦은 일천 섬이나 쌓인 환곡을 갚지 못해 관청에 잡혀갈 위기에 처했음에도 밤낮으로 울기만 하는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을 비판하는 말이므로, 양반을 풍자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담긴 표현이다.

알아두기 양반에 대한 풍자가 드러나는 부분 ①

“한 톨도 못 되는 그놈의 양반!” 글 읽기에만 열중할 뿐, 경제적으로 무능력하여 식 구조차 부양하지 못하는 양반을 풍자함



작가의 주제 의식 조선 후기, 양반 계층의 무능력을 비판함

10 인물·사건 + 어휘

[A]는 부자임에도 평생 천대받는 신분으로 치욕스럽게 살았던 부자의 오랜 분함과 탄식이 드러난다. 따라서 ‘뼈에 사무칠 만큼 원통하고 한스러움’을 뜻하는 ④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을 아는 말이다.

② 아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를 이르는 말이다.

③ 자기가 그린 그림을 자기가 칭찬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자랑함을 이르는 말이다.

⑤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다.

확인 문제

01 × 02 × 03 어쭙 04 군자

실력 문제

05 ③ 06 ④ 07 ③ 08 ③

- 01 (마)에서 군수는 부자에 대해 ‘참으로 양반’이라며 칭찬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런 행동의 이면에는 돈으로 양반의 신분을 산 부자의 속물근성을 비판하고자 하는 작가의 풍자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02 (바)에서 군수가 작성한 증서는 부자가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규범을 담고 있는 것으로, 체면과 허례허식에 얽매인 양반의 모습들을 보여 줄 뿐 부자가 원하던 양반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
- 03 (마)에서 군수는 양반 신분을 산 부자를 ‘군자’, ‘양반’, ‘옳음’, ‘어쭙’, ‘슬기로우며’라고 칭찬하는데, 본질적으로 이것은 부자에 대한 풍자로 볼 수 있다.
- 04 (바)에서 군수는 양반의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 덕이 있는 양반을 ‘군자’라고 한다고 말한다.

05 인물·사건

(바)의 마지막 부분에서 군수가 “여기 적힌 모든 행실에서 ~ 바로잡을 것이니라.”라고 말한 것은 부자가 양반 증서의 내용에 적힌 양반의 행실과 덕목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양반 신분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경고로 이해할 수 있다. 부당한 일로부터 부자를 보호해 주기 위함이다.

오답 풀이 ① (바)에서 ‘아래 문서는 양반을 값에 처서 팔아 환곡을 갚기 위한 것으로서 그 값은 일천 섬이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양반 증서의 가격이 환곡 일천 섬임을 알 수 있다.

② (바)에서 ‘손에 돈을 쥐지 말고, 쌀값도 묻지 말고’라고 하였는데, 이는 실생활과 관련된 일을 멀리하는 양반의 모습(비생산적인 양반의 모습)을 비판한 것이다.

④ (바)에서 ‘무관이면 서쪽에 줄을 서고 문관이면 동쪽에 줄을 서는 까닭에 이것을 양반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⑤ (마)에서 군수는 부자에 대해 “낮은 것을 싫어하고 높은 것을 바랐으니 슬기로우며라.”라고 말하며, 고을 백성들을 불러 모아 증인으로 세우고 증서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다.

06 인물·사건

(마)를 통해, 군수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사사로이 신분을 사고팔면 나중에 소송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양반 증서를 만들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작품 속에서 전개되는 표면적인 이유이며,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양반 증서는 결국 부자가 양반이 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오답 풀이 ① 군수가 양반 증서를 만들려는 이유는 부자와 양반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소송의 빌미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이지, 군수가 적극적으로 신분을 사고파는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임은 아니다. 오히려 군수는 작가 의식을 대변하는 인물로서 신분 거래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② 군수는 결국 부자가 양반이 되는 것을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

③ 제시된 지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⑤ 군수는 엄숙한 태도로 증서를 작성하긴 하지만, 이것은 양반을 배려하여 대접해 주기 위해서 한 행동은 아니다.

07 배경·소재

㉔의 ‘인색’은 ‘재물을 아끼는 태도가 몹시 지나치거나, 어떤 일을 하는 데 대하여 지나치게 박한 태도’를 뜻한다. 나머지는 군수가 부자를 칭찬하는 표현이다.

08 주제

(바)에 제시된 양반 증서에는 양반이 지켜야 할 의무와 규범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는 결국 체면에 집착하고 허례허식에 얽매인 양반들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드러낸다.

오답 풀이 ① 신분 제도의 모순을 비판하는 것은 작가가 이 작품을 창작한 의도와는 관계가 없다. 작가는 신분 거래 자체를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④, ⑤ 양반들의 부정부패나 양반의 권위가 훼손되어 가는 세태,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삶에 집착하는 태도는 (바)에 제시된 1차 양반 증서의 내용과 관계가 없다.

알아두기 1차 양반 증서의 내용과 의미

1차 양반 증서	내용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규범을 제시함
	의미	체면과 허례허식을 중시하는 양반의 모습을 비판함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 05 양반 증서
06 도적놈

실력 문제

07 ⑤ 08 ⑤ 09 ④

- 01 이 작품은 조선 후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양반 신분을 사고파는 것을 소재로 한 고전 소설이다. 따라서 작품 속에는 신분 질서에 동요가 발생했던 당시의 사회상이 잘 드러난다.

02 양반 아내가 자신이 진 빚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비생산적인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는 것과, 부자가 부당한 특권을 누리며 횡포를 일삼는 양반의 모습이 도적놈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는 것에서 이 작품의 창작 목적이 양반 계층의 무능과 위선적인 태도를 비판, 풍자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03 군수가 작성한 2차 양반 증서의 내용에는 신분과 지위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양반들의 부패한 모습이 풍자적으로 드러난다.

알아두기 2차 양반 증서의 내용과 의미

2차 양반 증서	내용	양반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제시함
	의미	신분과 지위를 이용한 재물 취득, 무위도식, 백성에 대한 수탈과 횡포 등 부도덕한 양반의 모습을 비판함

04 군수가 양반의 신분을 산 부자를 위해 작성해 주려고 한 1, 2차 양반 증서의 내용을 보고, 결국 부자는 양반이 되기를 포기하고 뛰쳐나간다. 따라서 군수는 부자가 양반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05 1차 양반 증서에서는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규범을 제시하여 체면과 허례허식을 중시하는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고, 2차 양반 증서에서는 양반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제시하여 부도덕한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06 결말 부분에서 부자는 “장차 나더러 도적놈이 되라는 말입니까?”라고 말하며 양반이 되기를 포기한다.

07 **인물·사건**
군수는 작가의 의도를 작품 속에서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인물로서, 표면적으로는 양반 증서를 만들어 신분 매매를 확실히 하고자 하지만, 이면적으로는 양반의 허례허식과 부도덕한 모습을 풍자하고, 돈으로 신분을 사려는 부자도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 나아가 작품 속에서 부자가 결국 양반이 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역할도 한다.

알아두기 등장인물의 특징 및 역할

양반(신분을 파는 자)	부자(신분을 사는 자)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며 현실 대응 능력이 없음 → 가장 신랄한 풍자의 대상이 됨	부를 바탕으로 신분 상승을 꾀하는 인물(풍자의 대상임)로, 양반 증서를 보고 양반이 되기를 포기함
군수(신분 매매의 매개자) • 표면적: 양반과 부자의 신분을 공정하게 매매하게 하는 역할 • 이면적: 부자가 양반 신분을 얻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는 역할	

08 인물·사건 + 서술

(자)에서 부자가 “장차 나더러 도적놈이 되라는 말입니까?”라고 말한 이유는 2차 양반 증서의 내용을 통해 양반이란 신분과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재물을 축적하고, 무위도식하며, 백성들에게 횡포를 일삼는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알아두기 양반에 대한 풍자가 드러나는 부분 ②

“장차 나더러 도적놈이 되라는 말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부도덕한 일도 서슴지 않고, 백성을 괴롭히는 양반의 악행을 풍자함
작가의 주제 의식	조선 후기, 양반 계층의 위선적인 태도를 비판함

09 주제

〈보기〉에서는 권세와 이익을 꾀하지 말고, 곤궁하더라도 선비의 본분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선비가 지녀야 할 마음과 자세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양반전」은 이와 같은 선비다움을 잃어버린 양반 사회의 부도덕성을 비판하고, 신분 제도의 동요에 따른 양반 사회의 비윤리적 모습을 풍자하기 위해 창작되었다.

- 오답 풀이**
- ① 〈보기〉와 이 작품에서는 신분 제도의 모순과 근대 의식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다.
 - ② 이 작품과 관직에 있는 사람인 관리의 자세와는 관련이 없다.
 - ③ 〈보기〉에 따르면 양반은 경제력과 상관없이 선비로서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
 - ⑤ 〈보기〉와 이 작품에서는 인재 등용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다.

알아두기 「방경각외전」에 나타난 작가의 의도

올바른 선비	지금의 선비들
• 권세와 이익을 꾀하지 않음 • 곤궁하더라도 선비의 본분을 잃지 않음	• 명분과 절의를 닦는 것에 힘쓰지 않음 • 문벌을 이득의 기회로 여겨 대대로 내려오는 덕을 팔고 삼

작가는 「방경각외전」에서 올바른 선비의 모습을 제시하고 그와 동떨어진 선비들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신분을 팔고 사는 것은 장사치와 다를 것이 없다며 부패한 양반들을 비교하며 풍자하고 있다.

+ 독해 체크

본문 156쪽

- ① 한곡 ② 양반 ③ 도적놈 ④ 양반 ⑤ 증서 ⑥ 신분
⑦ 의무 ⑧ 허례허식 ⑨ 도적놈 ⑩ 무능력

+ 어휘 체크

본문 157쪽

- 1 (1) 역정 (2) 횡포 (3) 빌미
2 〈가로〉 ① 분수 ③ 허례허식
〈세로〉 ② 수결 ④ 무위도식

3. 극/수필

본문 162~163쪽

12월 1주

들판에서 1_이강백

갈래 희곡(단막극)

성격 상징적, 교훈적, 우의적

주제 형제가 마음의 벽을 허물고 우애를 회복함(남북 분단의 현실과 극복 의지)

특징

- 등장인물과 소재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님
- 날씨 변화를 통해 사건 전개 방향을 암시함
- 형제의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분단 현실을 되돌아보게 함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 05 희곡 06 실습
07 말뚝

심력 문제

08 ③ 09 ⑤ 10 ④ 11 ②

01 (가)의 ‘해설’ 부분에서 등장인물과 배경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로 보아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들판’이다.

02 (나)에서 형과 아우는 서로의 그림을 칭찬하며 우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누가 더 잘 그리는지 알 수 없다.

03 이 작품에서 날씨의 사건이나 극의 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발단’ 부분에서 형제는 화창한 날씨 속에서 즐겁고 평화롭게 그림을 그리고 있다.

04 (라)를 통해 측량 기사는 형제의 땅을 공장 부지로 개발하여 팔거나 주택지로 팔아 큰돈을 벌 속셈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5 이 작품은 연극, 즉 무대에서 상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희곡이다.

06 (라)에서 측량 기사는 형제의 땅을 빼앗으려는 속셈을 숨기고 형제에게 측량 실습을 위해 땅을 찾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07 (마)에서 측량 기사는 말뚝과 밧줄로 형제가 있는 공간인 들판을 나누어 놓았는데, 이는 앞으로 일어날 형제의 갈등을 암시한다.

08 **형상화 방식**

이 작품은 희곡으로, 희곡은 무대 상연을 하기 위한 글이므로 시간과 공간 및 등장인물의 수에 제약을 받는다.

오답 풀이 ① 희곡은 모든 사건이 현재형으로 표현된다.

② 희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다.

④ 희곡은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고, 주로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된다.

⑤ 희곡은 등장인물 사이의 극적인 대립과 갈등을 주요 구조로 사건이 전개된다.

배경지식 + 희곡과 소설의 비교

	희곡	소설
목적	무대 상연	글로 표현하여 독자가 읽기 위함
전개 방법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	서술자의 묘사와 서술
시간적·공간적 배경	제약이 많음	제약이 없음
등장인물의 수	제약이 많음	제약이 없음
표현 방법	주로 현재형으로 표현함	주로 과거형으로 표현함
사건 전개 양상	대립과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함	

09 **인물·사건**

(라)에서 형과 아우는 계산적이고 교활한 측량 기사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측량 기사에게 심하게 대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형제가 착하고 순박한 성격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마)에서 말뚝과 밧줄을 대하는 형제의 태도로 볼 때, 형은 소심하고 소극적이지만 동생은 대범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② 측량 기사와 조수들은 들판에 말뚝을 박고 밧줄을 매서 형제의 아 름답고 평화로운 들판을 훼손했다.

③ 형과 아우는 작가의 주제 의식을 실천하는 주동 인물이지만, 측량 기사와 조수들은 주동 인물을 방해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반동 인물이다.

④ 측량 기사와 조수들은 우애 깊은 형제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새로운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배경지식 + 작품 속 인물 유형

	종류	의미
역할에 따라	주동 인물	작품의 주인공으로 작가의 주제 의식을 실천하는 인물 ㉠ 형, 아우
	반동 인물	주동 인물을 방해하며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 ㉡ 측량 기사, 조수들
성격 변화에 따라	평면적 인물	작품 안에서 성격의 변화가 없는 인물 ㉢ 측량 기사, 조수들
	입체적 인물	작품 안에서 사건의 전개에 따라 성격이 변화하는 인물 ㉣ 형, 아우

10 인물·사건 + 어휘

㉠에서 측량 기사는 형제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땅을 측량했는데도, 도리어 형제에게 화를 내고 있다. 따라서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란다.'라는 의미를 지닌 ④의 한자 성어가 측량 기사의 태도에 가장 잘 어울린다.

- 오답 풀이**
- ①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꾸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 ② 우물 속에 앉아서 하늘을 본다는 뜻으로, 사람의 견문(見聞)이 매우 좁음을 이르는 말이다.
 - ③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 ⑤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을 이르는 말이다.

11 배경·소재 + 주제

〈보기〉는 문학 작품이 사회를 반영하며, 이 작품 역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담고 있다는 내용이다. 〈보기〉를 토대로 할 때 이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사회적 상황은 우리 민족의 분단 현실로, 결국 '들판'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우리 국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들판'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형제의 우애를 돋보이게 하지만, 사회의 모습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다.
 - ③ '들판'은 형과 아우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지만, 사회의 모습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 ④ '셋노란 민들레꽃, 빨간 양철 지붕의 집, 한가롭게 풀을 뜯는 젖소' 등이 존재하는 들판은 한가롭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지지만, 사회의 모습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 ⑤ 화곡의 공간적 배경 제약으로 인해 들판의 풍경을 걸개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이는 무대 장치와 관련한 설명으로 사회의 모습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알아두기 '들판'의 의미와 역할

-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으로 형제의 삶의 공간임
- 평화롭고 행복한 분위기를 형성함
- 형제의 우애를 돋보이게 함
-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우리 국토'를 상징함

01 들판에서 2

본문 164~165쪽

확인 문제

- 01 ○ 02 × 03 ○ 04 × 05 젖소
06 반어 07 총

실력 문제

- 08 ② 09 ③ 10 ⑤ 11 ④

01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형제는 밧줄을 사이에 두고 가위바위보를 하며 줄넘기 놀이를 하는데, 아우가 형을 세 번이나 이겼다.

02 (바)에서 형은 아우에게 계속해서 지게 되자 화를 내는데, 아우는 이와 같은 형의 권위적인 태도에 화가 났다.

03 '밧줄'은 그나마 형제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벽'은 의사소통이 단절된다. 따라서 '밧줄'보다 '벽'이 형제의 대립과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소재라고 볼 수 있다.

04 (사)에는 측량 기사의 부추김과 이간질로 인한 형과 아우의 외적 갈등이 나타나 있다.

05 (사)에서 아우는 젖소들을 자신만의 소유로 하고 싶어서, 젖소들이 넘어가지 못할 만큼 튼튼한 것을 설치하려고 한다.

06 (아)에서 측량 기사는 들판의 벽을 '훌륭한 관광 명소'라고 말하는데, 이는 분단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남북의 분단 현실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7 (자)에서 측량 기사가 팔려고 하는 '총'은 다른 소재와 달리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제의 갈등을 극단으로 몰아가며 극도의 긴장감을 유발한다.

08 배경·소재 + 주제

줄넘기 놀이를 하면서 형은 아우에 대해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를, 아우는 형에 대한 피해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형제간 갈등의 원인이 외부 세력인 측량 기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제 내부에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형은 아우가 자신을 속였다고 의심하지만, 이것이 사실인지의 여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③ 제시된 부분에는 형제가 화해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형님은 언제나 이겨야 하고, 동생인 나는 항상 져야 한다!"라는 아우의 말을 통해 아우의 불만은 과거부터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지만, 작가가 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미는 아니다.
 - ⑤ 아우는 형이 고정 관념을 지니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지만, 작가가 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미는 아니다.

알아두기 형제의 대립과 갈등의 원인

내부 원인

'줄넘기 놀이'라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형제의 갈등(권위적이고 독선적인 형의 태도 ↔ 동생의 피해 의식)이 표면화됨. 형제 사이에 잠재되어 있던 서로에 대한 불만이 갈등으로 터져 나옴

외부 원인

측량 기사가 형제의 땅을 빼앗을 속셈으로 접근하여 이간질함

09 인물·사건

㉠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여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다. 이처럼 측량 기사는 계산적이고 교활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아우에게 지자 화를 내며 다시는 놀이를 하지 않겠다는 형의 태도에서 아우에게 지기 싫어하는 독선적이고 권위적인 성격을 엿볼 수 있다.
- ② 동생은 동생이라는 이유로 항상 형에게 저 왔다는 피해 의식을 지니고 있다.
- ④ 측량 기사는 형제간에 싸움을 부추겨 땅을 빼앗고 돈을 벌려고 하고 있다.
- ⑤ 측량 기사는 아우에게 충을 살 것인지 묻지도 않고 아우가 충을 구입하도록 하고, 대금은 땅으로 달라고 한다. 이를 통해 측량 기사가 아우에게 충을 팔고 그 대금으로 땅을 받음으로써 땅을 모조리 빼앗으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알아두기 등장인물의 성격

형	• 소극적이고 소심함 • 독선적이고 권위적인, 응졸함 • 체면을 중시함
아우	• 적극적으로 대범함 • 형에 대한 피해 의식을 지님
측량 기사	• 교활하고 계산적임 • 뻔뻔하고 능청스러움

10 인물·사건

㉔에서 측량 기사와 조수들은 아우에게 충을 팔고 웃으며 퇴장하는데, 이는 자신들의 음모가 실현되어 가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계략에 넘어가는 아우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웃음이다.

- 오답 풀이** ① ㉔에서 측량 기사와 조수들은 아우를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하지는 않는다.
- ② ㉔에서 측량 기사와 조수들은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
- ③ ㉔에서 측량 기사와 조수들은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지 않는다.
- ④ ㉔에서 측량 기사와 조수들은 허탈감을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알아두기 '측량 기사'의 계략

측량 기사의 계략	형제간의 갈등과 불신이 심해지도록 조장하고, 형제를 이간질하여 땅을 빼앗음
↓	
행동	• 서로의 영역을 구분 짓는 말뚝과 밧줄을 설치함 • 서로를 단절시키는 벽을 설치함 • 서로를 의심하게 하는 전망대를 설치함 •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켜 서로에게 충을 쓰도록 함

11 인물·사건 + 배경·소재

이 작품에서 측량 기사와 조수들은 형제의 땅을 빼앗으려는 외부인이다. 이를 <보기>에 제시된 우리 민족의 현실과 관련 지으면, 측량 기사와 조수들은 남과 북의 분단을 부추기는 외부 세력인 미국과 소련으로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벽'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형제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므로 휴전선을 상징한다.

- ② '충'은 대립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의미하므로, 남과 북의 군사적 대립을 상징한다.
- ③ 우애 있게 지내다가 대립하고 갈등하는 '형'과 '아우'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
- ⑤ '전망대'는 상대방을 감시하는 도구로, 형제간의 불신을 조장하여 갈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남과 북의 의심과 불신을 상징한다.

알아두기 현실과 관련된 소재의 상징적 의미

형제	우리 민족
측량 기사와 조수들	외세(외부 세력)
들판	우리 국토
말뚝, 밧줄	남과 북의 대립, 38선
벽	남과 북의 단절, 휴전선
전망대	서로를 향한 남과 북의 의심과 불신
충	남과 북의 군사적 대립, 무력 충돌

01 들판에서 ③

본문 166~167쪽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 05 날씨 06 들판

실력 문제

07 ② 08 ③ 09 ④ 10 ③

- 01 (차)에서 조수는 형과 아우의 대립을 심화시키기 위하여 형에게 충을 쓰는 법을 알려 주었는데, 이는 형제의 총격전을 유발한다.
- 02 (차)에서 충을 지닌 형과 아우는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서로를 향해 위협사격을 한다.
- 03 (카)에서 비를 맞으며 벽을 지키던 형제는 벽을 사이에 두고 멈춰 서서 자신들의 잘못을 후회한다. 이처럼 '비'는 형제가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다.
- 04 (파)에서 형제는 우애의 증표인 '민들레꽃'을 서로에게 던지며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달하는데, 형제는 이 꽃을 주워 들고 기뻐하며 벽을 허물기로 한다.
- 05 이 작품에서 날씨의 변화는 사건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형제의 심리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 06 (파)에서 무대 조명이 무대 뒤쪽의 들판 풍경을 그린 걸개그림을 환하게 비추는 것은 형제가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들판을 되찾았음을 의미한다.

07 주제

형제가 '벽'을 허무는 행위는 형제간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를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 민족의 현실과 관련지으면, 분단 상황을 극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고발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③ 이 작품은 남북으로 분단된 현실에서 분단 극복, 즉 통일에 대한 염원과 의지를 담고 있다.

④ 갈등과 대립을 끝내고 남과 북이 화해하여 통일을 이루면 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할 수 있다.

⑤ 측량 기사와 조수들이라는 외부 세력이 형제간의 갈등을 부추기므로, 벽을 허무는 행동은 외세의 개입과 간섭에 대한 저항으로도 볼 수 있다.

알아두기 '벽'과 '벽 허물기'의 상징적 의미

벽	- 대립과 단절 - 화해를 막는 장애물 - 분단의 벽, 휴전선
벽 허물기	- 대립과 갈등의 끝 - 형제간의 우애 회복 - 민족 통일에 대한 의지

08 배경·소재

이 작품에서 '민들레꽃'은 형제가 서로 우애 있고 행복하게 지내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여 화해의 실마리가 된다. 그러나 부모님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형제는 민들레꽃을 두고 다정하게 지내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민들레꽃은 형제간 우애의 증표이다.

② (타)에서 아우는 형님과 자신이 믿을 만한 것이 남아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민들레꽃을 떠올린다. 따라서 민들레꽃은 형제간의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④ (파)에서 형제는 서로에게 민들레꽃을 던지며 화해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민들레꽃은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⑤ (타)에서 형제는 민들레꽃을 보며 우애 있게 지내던 시절을 그리워한다.

알아두기 '민들레꽃'의 상징적 의미

- 형제간 우애의 증표임
- 형제간에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형제간의 불신을 없애 주는 계기를 마련함
- 형제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함
- 형제가 서로를 그리워하게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함

09 인물·사건 + 배경·소재

㉠의 번개와 천둥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보여 주지만, ㉡의 번개와 천둥과 비는 갈등 상황에서 극적인 반전의 분위기를 마련하여 화해의 분위기를 제공하고, ㉢의 햇빛은 형제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한다.

오답 풀이 ① ㉠은 형제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것을 의미하지만, 형제의 비극적인 운명과는 관련이 없다.

② ㉠은 형과 아우의 외적 갈등을 드러낸다.

③ ㉡는 비가 내리면서 반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하강' 단계이므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여 새로운 사건을 일으키기보다는 현재의 갈등이 해소되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것임을 암시한다.

⑤ 형제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보여 주는 것은 ㉢가 아니라 ㉡이다. ㉠의 햇빛은 화해의 분위기를 암시하며 형제가 우애를 회복함을 보여 준다.

알아두기 날씨 변화와 사건 전개

천둥, 번개	• 서로를 향해 총을 쏘 • 형제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나타냄 • 극도의 긴장감과 불안한 분위기를 형성함 • 인물의 불안한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함
비	• 형제에게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함 • 사건이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나타냄 •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함 • 형제의 내적 갈등이 시작됨
햇빛	• 화해의 분위기를 암시함 • 형제간의 갈등이 해소됨 •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나타냄

10 현상화 방식

ㄴ. (카)에서 형이 “부모님께서 날 꾸짖는 거야!”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며 마치 천둥소리가 부모님께서 자신을 꾸짖는 소리로 들린다는 의미이므로, 부모님이 형을 호되게 꾸짖는 장면을 중간에 삽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ㄷ. (파)에서 형제는 갈등을 해소하고 우애를 회복하기 위해 벽을 허물자고 말하는 것이므로 지친 목소리는 어울리지 않는다.

오답 풀이 ㄱ. 총소리, 천둥소리, 빗소리는 효과음으로 처리할 수 있다.

ㄴ. 우애의 증표인 민들레꽃을 강조하기 위해 크게 확대하여 촬영하는 것은 적절하다.

ㄹ. (파)에서 '무대 조명, 서서히 꺼진다.'라고 했으므로,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적절하다.

+ 독해 체크

본문 168쪽

- ① 민들레꽃 ② 벽 ③ 비 ④ 우애 ⑤ 들판 ⑥ 하강
⑦ 햇빛 ⑧ 피해 ⑨ 계산 ⑩ 통일

+ 어휘 체크

본문 169쪽

- 1 (1) 명소 (2) 심통 (3) 측량
2 (1) ㉠ (2) ㉡ (3) ㉢

갈래 시나리오**성격** 서정적, 향토적**주제** 희생적인 외할머니와 철부지 손자의 가슴 따뜻한 사랑

특징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전개함
- 할머니에 대한 상우의 심리 변화가 대사와 행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남
- 말 못하는 할머니로 인해 대사보다는 지시문을 통한 행동 위주로 내용이 전개됨

확인 문제

01 × 02 × 03 시나리오 04 초코파이

실력 문제

05 ④ 06 ③, ④ 07 ③ 08 ④

01 이 작품의 등장인물인 할머니가 말을 못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작품의 경우 대사보다는 지시문의 비중이 높으며 지시문을 통한 행동 위주로 내용이 전개된다.

02 S#56에서 할머니가 상우에게만 자장면을 사 준 이유는 손자에게 신발까지 사 준 뒤 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03 시나리오에는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쓴 각본으로, 장면이나 그 순서, 배우의 행동과 대사 등을 상세하게 표현한다.

04 S#63에서 할머니가 걱정되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상우는 할머니가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왔음을 알게 된다. 이에 할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의 표현으로 자신이 아끼던 초코파이를 할머니의 보파리 속에 넣어 둔다.

05 현상화 방식

시간과 공간, 등장인물의 수에 제약이 많은 것은 희곡의 특징이다. 시나리오에는 영화로 촬영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등장인물의 수에 제약이 거의 없다.

오답 풀이 ① 희곡에 비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으며 장면의 전환이 자유롭다.

② 장면(scene)은 영화의 최소 단위로, 시나리오의 기본 단위가 된다.

③ 영화 촬영을 목적으로 하므로, 촬영에 필요한 특수 용어들이 표시된다.

⑤ 작가의 개입이 어려우므로, 인물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고 사건이 진행되며 주제가 형상화된다.

06 인물·사건

할머니와 장에 다녀온 일을 통해 상우는 할머니의 경제적인 형편을 짐작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자신

을 위해서 해 준 일들을 통해 할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상우는 전파상을 그냥 지나치며 건전지를 사고 싶은 욕구를 참거나,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를 오래도록 기다리는 등 할머니를 배려하는 행동을 한다.

오답 풀이 ① 할머니가 사 준 새 신발을 신고 다니는 상우의 모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할머니가 사 준 자장면을 허겁지겁 먹는 상우의 모습은 아이다운 천진한 면을 보여 주는 장면이다.

⑤ 할머니가 꼬깃꼬깃한 천 원짜리 몇 장을 꺼내 간신히 계산하는 것을 유심히 보는 상우의 모습은 상우가 할머니의 경제 사정을 짐작하게 되는 장면이다.

07 배경·소재

S#63에서 상우는 할머니의 보파리를 들고 걷다가, 생각난 듯 자신이 아끼 두었던 초코파이를 할머니의 보파리 속에 넣어 둔다. 이것은 할머니에 대한 상우의 미안함과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08 인물·사건

S#54에서 상우가 슬프고 화가 나는 이유는 고생하는 할머니가 나물과 채소를 손해 보듯이 팔고 있는 모습에 슬프고, 또 그런 할머니가 창피해서 다가가지 못하고 숨어 있는 자신에게 화도 났기 때문이다.

확인 문제

01 × 02 ○ 03 사랑 04 그림엽서

실력 문제

05 ③ 06 ④ 07 ③

01 S#83에서 상우는 혼자 남은 할머니를 걱정하여 글을 못 읽는 할머니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고 있다. '보고 쉽다.'라고 잘못 쓴 것은 어린 상우가 맞춤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02 S#83에서 상우가 할머니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는 모습이나 S#84~S#87에서 그림엽서를 만들어 주고 떠나는 모습에서 상우는 혼자 남은 할머니가 상우를 보고 싶을 때, 그리고 몸이 아플 때 손자인 자신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03 이 작품은 할머니와 어린 손자의 사랑을 주제로 한다.

04 S#87에서 상우가 그림엽서를 만들어 주고 떠나는 모습을 통해 할머니에 대한 상우의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05 인물·사건 + 배경·소재

이 작품에서 상우는 글을 모르고 말도 할 수 없는 할머니를 위해 로봇 그림엽서에 '아프다', '보고 싶다'라는 뜻의 글자와 그림을 남기고 떠난 것이지, 아끼던 로봇을 주고 간 것이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상우는 혼자 남은 할머니를 위해 '아프다', '보고 싶다'라는 글자를 가르치고자 했다.
 ② 할머니가 글자를 빨리 익히지 못하자, 상우는 자신이 그림엽서를 만들어서 할머니가 자신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상우는 "할머니, 많이 아프면 그냥 아무것도 쓰지 말고 보내."라고 말하며, 할머니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드러내었다.
 ⑤ 상우는 할머니가 주무시는 사이에, 눈이 어두운 할머니를 위해 모든 바늘에다 실을 꿰어 놓았다.

알아두기 '상우'의 행동에 담긴 의미와 작품의 주제



06 인물·사건

㉔에서 상우가 할머니의 시선을 외면하고 고개를 떨군 것은 쏟아질 것 같은 눈물을 참으며, 자신이 우는 모습을 할머니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이다.

07 형상화 방식

S#84~86에서는 상우가 할머니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나 무언가 열심히 그리고 있다는 것만 따뜻한 느낌으로 전달하면 된다. S#86에서도 그림의 내용은 드러나지 않으며, 할머니가 그림엽서에 담긴 그림을 확인하는 것은 S#87에서 상우가 떠난 뒤이다.

+ 독해 체크

본문 174쪽

- ① 백숙 ② 심통 ③ 아프다 ④ 대사 ⑤ 지시문
 ⑥ 바늘 ⑦ 걱정 ⑧ 사랑

+ 어휘 체크

본문 175쪽

- 1 (1) ㉠ (2) ㉡ (3) ㉢
 2 <가로> ① 엽서 ② 반진고리
 <세로> ① 엽차 ③ 광주리

03

파초 _이태준

본문 176~177쪽

갈래 현대 수필, 경수필

성격 체험적, 서정적, 사색적

주제 파초에 대한 애정과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

- 특징**
- 두 개의 이야기가 '파초'라는 공통된 소재로 연결됨
 - 파초를 통해 문인으로서의 풍류와 가치관을 드러냄
 - 파초를 대하는 '나'와 앞집 사람의 대조적인 태도를 보여 줌

확인 문제

01 ○ 02 × 03 × 04 그늘 05 창

실력 문제

06 ② 07 ③ 08 ④ 09 ④

01 (다)에서 앞집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나'의 파초가 내년에는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02 '나'는 지나다닐 때마다 마음에 들었던 큰 파초를 이웃집에서 사 왔다.

03 (라)에서 '나'가 파초를 두고 '이왕 죽을 것을 가지고'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나'는 파초의 수명이 다해 감을 알고 있다.

04 (나)에서 '나'는 폭염 아래서도 푸르고 싱그러운 그늘로 눈을 시원하게 해 주는 파초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

05 (라)에서 앞집 사람은 '나'에게 내년이면 죽게 될 파초를 오 원에 팔아 '챙'을 살 것을 제안한다. 이는 식물에 대한 애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물질적 가치에 초점을 두고 대상을 대하는 태도이다.

06 **글쓰기**

글쓰기는 지금 팔면 오 원 이상은 받을 수 있다며 파초를 팔라는 옆집 사람의 제안에 마음이 얼른 흔들리지 않아 한다. 즉 파초가 죽게 되어 쓸모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팔지 않으려고 한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선지, 생선 씻은 물, 깻묵 물 등 파초에 좋다는 거름을 써 파초를 정성껏 키웠다.

③ (라)에서 '나'는 비를 피하기 위해 챙을 달라고 권하는 앞집 사람에게 챙을 하면 파초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나'가 비 오는 날에 파초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즐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나'는 울봄에 크게 키운 파초의 새끼를 다섯이나 뜯어내 번식시켰다.

⑤ 앞집 사람은 '나'가 서재에 챙을 달지 않는다고 자신의 일처럼 성화를 부렸다.

배경지식 + 1940년대 '오 원'의 가치

1940년대에는 화폐의 단위로 '원'을 사용했다. 이 시대에 쌀 80kg 한 가마니의 가치는 금액이 22.69원이었다. 이태준의 또 다른 작품 「돌다리」를 보면 서울의 교통 편한 자리의 삼층 양옥을 삼만 이천 원으로 살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삼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중략> 지금의 병원을 팔면 일만 오천 원쯤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준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삼만 이천 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07 표현

이 작품은 파초를 키운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느낀 파초에 대한 애정과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주관적으로 서술할 수필로, 파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다), (라)에서는 옆집 사람과 '나'의 대화를 직접 제시하여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② 이 작품은 글쓴이가 파초를 키우면서 느꼈던 애정과 파초의 멋 등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다.

④ (나)에서는 파초가 비를 맞는 장면을 자세히 서술하여 파초에 대한 글쓴이의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⑤ 앞집 사람은 파초를 팔아 돈을 남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애정을 다해 키운 파초를 돈 때문에 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대상을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를 대조하여 제시함으로써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배경지식 + 수필의 종류

이 작품은 파초를 키운 글쓴이의 경험을 토대로 파초에 대한 글쓴이의 애정과 정성을 드러낸 경수필이다.

	경수필	중수필
뜻	일상생활에서 얻은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쓴 개인적 성격의 수필	특정한 주제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쓴 사회적 성격의 수필
성격	주관적, 감성적, 신변잡기적	객관적, 논리적, 사회적
특징	일상적인 소재를 다루며, 문장이 가볍고 부드러움	사회적, 시사적인 문제를 다루며 문장이 무겁고 딱딱함
종류	일기, 편지, 기행문 등	칼럼, 평론 등

08 글쓰기 + 표현

㉠에서 글쓴이는 물질적 가치에 초점을 두고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 앞집 사람만이 특별하게 모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답 풀이 ① 파초를 특별히 좋아하는 글쓴이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다른 사람을 속여 파초를 팔자는 앞집 사람의 말이 자신에게 선의의 의도로 제안한 것임을 알기에 직설적인 비판을 하지 않는다.

③ '나'는 식물(파초)을 키우면서 느끼는 애정과 같은 정신적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앞집 사람에 대한 반감을 지니고 있다.

⑤ '나'는 곧 죽을지도 모르는 데도 아무 걱정 없이 너울거리는 파초를 보며 연민과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알아두기 '나'와 '앞집 사람'의 가치관 비교

'나'	앞집 사람
정성을 다해 애정으로 키운 파초를 경제적인 이득으로 따질 수 없음	곧 죽을 파초이니 지금 팔아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것이 좋음
파초를 팔라고 제안한 앞집 사람과 함부로 팔지 않는 '나'를 대조하여, 금전적·물질적 가치만을 중시하는 현대적 가치관을 비판함	

09 글쓰기 + 주제

이 작품의 '나'는 파초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기>의 화자는 '솔(소나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지니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와 <보기>의 화자 모두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며 교감하고 있다.

② 이 작품과 <보기>는 성실하고 근면한 삶의 태도를 주제로 하지 않는다.

③ '나'와 <보기>의 화자는 자연에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⑤ '나'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 파초의 멋과 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보기>의 화자는 계절의 변화에도 꾸준한 '솔(소나무)'의 모습에서 고난과 시련을 이겨 내는 '솔(소나무)'의 절개를 예찬한다.

배경지식 + 윤선도, 「오우가(五友歌)」

작가는 다섯 자연물인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을 '오우(五友)'로 의인화하고, 자연물이 지닌 속성에서 인간의 덕성을 유추하여 예찬하고 있다.

자연물	자연물에서 유추한 인간의 덕성
물	깨끗하고 맑은 불변성
바위	변하지 않는 영원성
솔(소나무)	고난과 시련을 이겨 내는 굳은 절개
대나무	곧고 굳은 지조
달	광명과 과묵

+ 독해 체크

본문 178쪽

- ① 정성 ② 텅 ③ 빗방울 ④ 물질 ⑤ 경험 ⑥ 대화
⑦ 멋 ⑧ 정신

+ 어휘 체크

본문 179쪽

- 1 (1) 주렴 (2) 텅 (3) 폭염
2 (1) ㉠ (2) ㉡ (3) ㉢

갈래 현대 수필, 경수필

성격 교훈적, 자기 고백적

주제 • 실수의 긍정적 의미

• 실수를 너그럽게 용납해 주는 태도의 필요성

특징 • 실수와 관련된 일화를 통해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함

•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대상(실수)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보여 줌

• 한시를 인용하거나 속담 및 관용 표현을 활용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함

확인 문제

01 × 02 ○ 03 흰 종이 04 빗

실력 문제

05 ⑤ 06 ③ 07 ⑤ 08 ③

01 이 작품은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실수의 긍정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쓴 경수필이다.

02 글쓴이는 실수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음을 광휘원의 일화와 자신의 일화를 바탕으로 참신하게 전달하고 있다.

알아두기 '실수'와 관련된 일화

광휘원의 일화	글쓴이의 일화
떨어져 사는 아내에게 문안 편지 대신 흰 종이를 보낸 실수가, 아내에게 의외의 기쁨을 줌	스님에게 빗을 빌려 달라고 한 실수가, 산사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스님의 잠든 시간을 깨움

03 (가)에서 광휘원은 아내에게 편지 대신 '흰 종이'를 넣어 보내는 실수를 했다가, 아내로부터 뜻밖의 답 시를 받게 되었다.

04 (나)에서 글쓴이는 머리카락이 없는 암자의 스님에게 '빗'을 빌려 달라는 실수를 했다.

05 **표현 + 주제**

이 작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실수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실수를 했어도 결과가 좋으면 가치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일화는 사소한 실수가 의외의 긍정적 효과를 불러온 경우로, 글의 도입부에서 독자의 흥미와 재미를 유발한다.

②, ③ (가)와 (나)의 일화는 실수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의외의 사례가 된다.

④ (가)와 (나)는 실수의 긍정적 효과를 드러내는 일화이므로, 작품의 주제와 연결된다.

06 **표현**

이 작품은 중수필이 아니므로, 글쓴이의 주장이나 그에 대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광휘원의 아내가 보낸 답 시를 인용하고 있고, (가)와 (나)에서 '꿈보다 해몽이 좋다', '우물가에서 송봉 찾는 격'이라는 속담을 인용하고 있다.

② (가)의 '행복한 오해'에서 역설적 표현을, (나)의 '20년 또는 30년, 마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떼처럼 ~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에서 비유적 표현을, '파르라니 깎은 스님의 머리가 유난히 빗을 내며 내 눈에 들어왔다.' 등에서 묘사를 사용한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나)에서 글쓴이는 암자에서 스님에게 빗을 빌려 달라고 말했던 자신의 실수를 제시하고 있다.

⑤ (나)에서 글쓴이는 자신의 덜렁거리는 성격이나 실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자신의 가치관을 진솔한 표현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07 **글쓴이 + 표현**

㉔은 글쓴이 자신의 실수가 스님에게 잊고 살았던 과거의 추억(잠든 시간)을 떠올리게 만들었다는 의미이다.

08 **글쓴이 + 표현**

(가)의 아내는 남편이 자신에 대한 그리움을 말로 다할 수 없어 흰 종이를 넣어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생각을 답 시로 적어 보낸다. 따라서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말로 다할 수 없어서 한시에 담아 보냈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아내도 처음에는 남편이 보낸 편지가 백지인 것을 보고 당황했을 것이다.

② 아내는 남편이 실수로 잘못 보낸 흰 종이를 말로는 다할 수 없는 그리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믿고, 그 감정을 적어 답 시를 보낸다.

④, ⑤ 글쓴이는 (가)의 일화를 통해, 의도치 않은 실수가 때로는 신선한 충격과 행복한 오해로 이끌 수도 있다며 실수의 긍정적 면을 말하고 있다.

확인 문제

01 × 02 ○ 03 어처구니없음 04 여백

실력 문제

05 ③ 06 ③ 07 ②

01 (다)에서 글쓴이는 자신이 저지르는 대부분의 실수가 의외의 수확이나 즐거움을 가져다줄 때가 많았다고 하였다.

02 (다)로 보아 글쓴이는 집중하는 대상에 강하게 몰입하는 성격으로, 어떤 생각에 매달려 있을 때에 사소한 실수들을 자주 저질렀음을 알 수 있다.

03 (라)에서 글쓴이는 어이없음을 의미하는 '어처구니없음'의 뜻을 바탕으로, 실수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다.

04 (마)에서 글쓴이는 결국 실수는 '삶과 정신의 여백'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글쓴이에게 실수란 이처럼 각박한 세상에서 숨을 돌릴 수 있게 하는 삶과 정신의 여유인 것이다.

05 **글쓴이**
(다)에서 글쓴이는 악의적이지 않은 실수는 봐줄 만한 구석이 있다며, 자신이 번번이 저지르는 실수들의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글쓴이가 저지르는 실수의 긍정적인 효과에 해당한다.

⑤ (라)에서 상상력이 풍부하고 자유로운 사람은 실수가 잦은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06 **표현**
(사)의 마지막 문장에서 글쓴이는 실수가 만들어 내는 삶의 행복과 가치에 대해 말하고 있다. 따라서 '빚 하나'는 글쓴이의 실수로 인해 산사의 노스님이 떠올리게 된 자신의 젊은 시절의 추억 하나를 비유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07 **글쓴이 + 주제**
글쓴이는 타인의 사소한 실수조차 비난하는, 조금하고 너그럽지 못한 모습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므로 ②는 성찰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⑤ (마)에서 글쓴이는 '실수는 삶과 정신의 여백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결국 실수는 정신과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삶의 여백이며, 여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글쓴이는 자기 성찰을 통해 빠르고 각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여유를 가지고 실수에 너그러워지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알아두기 글쓴이의 성찰과 깨달음

오늘날의 세태와 글쓴이의 성찰

- 발 빠르게 돌아가는 각박한 세상임
- 사소한 실수조차 짜증과 비난의 대상이 됨
- 수많은 실수를 하고 살면서도, 다른 사람의 실수는 너그럽게 받아주지 못했음



글쓴이의 깨달음(작품의 주제)

실수는 삶과 정신의 여백임을 이해하고,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함

+ 독해 체크

본문 184쪽

- ① 종이 ② 실수 ③ 기쁨 ④ 추억 ⑤ 수확 ⑥ 악의
⑦ 속담 ⑧ 여백

+ 어휘 체크

본문 185쪽

- 1 (1) ㉠ (2) ㉠ (3) ㉠
2 <가로> ① 십상 ③ 비구니
<세로> ② 회상 ④ 어처구니

05

이옥설 _이규보

갈래 고전 수필, 설(說)

성격 경험적, 교훈적, 유추적

주제 잘못을 알고 그것을 고쳐 나가는 자세의 중요성

특징 • '경험한 내용 + 깨달음(의견)'의 구성 방식을 취함
• '집 → 사람 → 정치'로 연관 지어 논지를 확대해 나감
• 유추의 방법으로,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여 내용을 전개함

확인 문제

- 01 ○ 02 × 03 ○ 04 행랑채 05 수리
06 재목

실력 문제

- 07 ② 08 ② 09 ④ 10 ⑤

01 이 작품은 글쓴이의 경험을 토대로(경험적) 얻은 깨달음(교훈적)을 전하는 고전 수필로, 한문 문체 중 하나인 '설(說)'에 해당한다.

02 이 작품에서 첫 문단은 글쓴이의 경험을 제시한 부분이며,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은 경험으로부터 얻은 글쓴이의 깨달음을 제시한 부분이다.

03 '이(理)'는 무엇을 '고치다'라는 의미이고, '옥(屋)'은 '집'이라는 의미이다. 즉 '이옥'은 '집을 수리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설(說)'은 사물의 이치를 풀이하고 의견을 덧붙여 서술하는 갈래이다.

04 이 작품의 글쓴이는 행랑채를 수리한 경험에서 잘못은 빨리 고쳐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고 이를 정치에 적용하고 있다.

05 (가)로 보아, 글쓴이는 행랑채를 수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계속 미루다가 하지 못해 수리했음을 알 수 있다.

06 (다)에서 글쓴이는 탐관오리들을 내버려 두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고 말하며, 그런 뒤에 급히 바로잡으려 하는 것은 이미 썩어 버린 재목처럼 때늦은 것이라고 말한다.

07 **표현**
이 작품은 '경험 + 의견'의 형식을 지닌 교훈적 성격의 설(說)로, 글쓴이가 집(행랑채)을 수리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인물에 대한 풍자는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⑤ 이 작품은 교훈적인 성격의 한문 고전 수필로, 설(說)의 갈래에 해당한다.

- ③ (다)의 마지막에서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라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잘못을 알고 그것을 고쳐 나가는 자세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강조한다.
- ④ 행랑채를 수리한 글쓴이의 경험을 제시하고,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08 글쓰기

(가)에서 글쓴이는 행랑채를 고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망설이며 미루다가 문제가 커진 뒤에서야 고쳤으며, 세 칸 중 제때 고치지 못한 두 칸으로 인해, 수리비가 많이 들었다고 말하였다.

09 주제 + 어휘

글쓴이는 행랑채를 수리하며 얻은 경험을 통해, 잘못된 것을 알고 고쳐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이와 의미가 통하는 속담은 '적은 힘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에 쓸데없이 많은 힘을 들이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④이다.

- 오답 풀이** ① 소의 귀에 대고 경을 읽어 봐야 단 한 마디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 주어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 ② 대상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리어 대상에 대하여 잘 알기 어렵다는 말이다.
- ③ 가늘게 내리는 비는 조금씩 젖어 들기 때문에 여간해서도 옷이 젖는 줄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거둬지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⑤ 모든 일은 근본에 따라 거기에 걸맞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0 표현

〈보기〉에서 A는 (가)에, B는 (나)에, C는 (다)에 해당한다. 글쓴이는 행랑채를 고친 경험(A)에서 사람도 잘못됨을 알고 바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깨달음(B)을 얻고, 이를 부패한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C)으로 확장하여 적용한다. 그러므로 나라의 정치에 대한 주장은 C에 한 번만 제시된다.

- 오답 풀이** ① (가)에는 행랑채를 수리한 경험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 ②, ③, ④ 글쓴이는 행랑채를 수리한 경험으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유추의 방법을 통해 사람의 경우를 추론(B)하고 있으며, 이것을 다시 나라의 정치(C)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 독해 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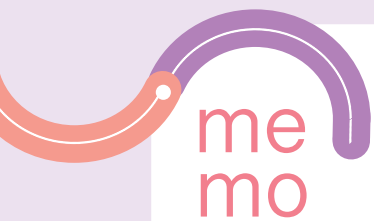
본문 188쪽

- ① 행랑채 ② 정치 ③ 수리비 ④ 사람 ⑤ 정치
⑥ 잘못 ⑦ 경험 ⑧ 깨달음 ⑨ 유추

+ 어휘 체크

본문 189쪽

- 1 (1) 유추 (2) 재목 (3) 도탄
2 (1) ㉠ (2) ㉡ (3) ㉢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